





'한마디 말, 퍼즐 조각들' 시리즈 <안녕> <비둘기> <너와 나>  
acrylic on canvas | 22.7×15.8cm |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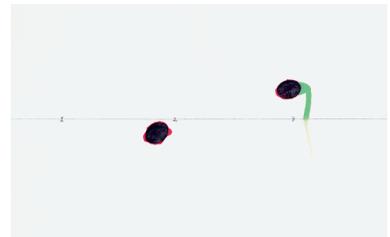
이달의 표지 작가

## 강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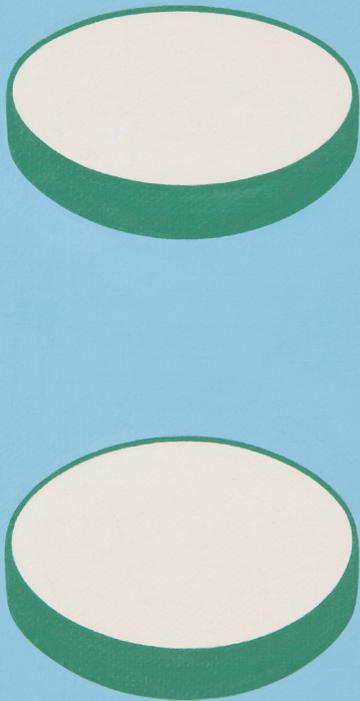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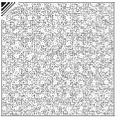
2015년 서울문화재단 시각예술 분야 지원 작가. 2009년 광주시립미술관 양산동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대진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에서 동일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10년 개인전 <우연히 발견한 물건의 주인을 찾습니다>를 열었고, 2015년 개인전 <너와 나 사이의 한마디 말> 이후부터는 <빨간색 그림> 대어, <사랑 모양 씨앗> 배포 등 이야기를 주고받는 예술 활동을 시도하고 있다. '서울시 동대문우체국 사서함 62호'로 사랑에 관한 편지를 보내면 작가의 답장을 받을 수 있다.



표지 작품  
<사이, 자라나다>

pencil, acrylic on paper | 27×38cm | 2002



‘한마디 말, 퍼즐 조각들’ 시리즈 < I >  
acrylic on canvas | 22.7×15.8cm | 2015

나는 작품으로 사랑을 말하고, 따뜻하게 전하고 싶다. 현재는 사랑에 대한 생각과 기억, 감정을 나누려고 한다. 주고받고 싶은 말을 먼저 이야기하기보다 떠올릴 수 있도록 제작한 작품이 ‘한마디 말, 퍼즐 조각들’ 시리즈다. 이 시리즈의 작품들은 글자의 일부분을 가져 오거나 그 글자를 해석한 이미지이며, 모두 사랑을 주제로 한 이야기가 담긴다.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노래를 만나 공연장을 찾았고, 나 자신이 흠여지는 충격을 받았다. 달리 다른 표현을 찾을 수 없었다. 나를 이끈 그 노래의 제목이 < I >였다. 어린 시절 나의 그림책에 실린 ‘잃어버린 한조각 동그라미’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앞에 두고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그림에 노래와 같은 제목을 붙였다. 짧은 한마디 말을 하지 못해서 긴 여정이 시작된 듯하다. 책 속에서 조각이 큰 동그라미와 마주 본다. 큰 동그라미로부터, 조각은 직설적인 말을 듣고도 바로 알아듣지 못한다. 이윽고 조각은 큰 동그라미가 떠난 방향으로 향한다. 나는 당시 뮤지션이 착용했던 기타 스트랩을 갖고 있다. 아직 풀지 못한 의문들로 가고 싶은 곳을 약속한 장소로 그린다. ‘사랑’이 작품의 메시지로 떠오르기까지 흘러버리지 못한 우연들을 의식했다.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추적해서 글로 적고, 그 글을 기반으로 한 작품들을 제작해서 2015년에 개인전을 열었다. 전시명이자 글의 제목이기도 한 <너와 나 사이의 한마디 말>을 통해 일부 미공개로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

표지 작품 <사이, 자라나다>는 나의 고민이 담긴 그림이다. 나는 작품이 감상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작품을 통해 다른 사람과 대면할 동기를 부여하고, 대화를 꾀한다. 그림은 많은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이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유로 그림을 그린다고도 할 수 있다. 켜켜이 쌓인 이야기들을 글로, 그림으로 옮긴다. 어떤 이야기가 얼마큼 읽힐지는 나의 몫이 아니다. 다만 나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 부디. “나를 만나러 오세요.”

# CONTENTS

2017.3 — VOL.121



## 06 테마 토크 서울문화재단의 내일을 말한다

서울문화재단이 올해로 창립 13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9월 주철환 대표이사 취임과 함께 다시 한 번 새로운 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서울문화재단은 '다' 즐겁고 '다' 행복한 문화도시 만들기 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절이 하 수상하니 서울문화재단의 어깨는 더욱 무겁다. 이번 호 테마 토크에서는 전·현직 대표이사 4인의 좌담과 2017년 사업 계획 소개를 통해 서울문화재단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 22 사람과 사람 한국만화가협회 신임 회장, 만화가 윤태호

수많은 작품을 통해 사랑받고 있는 윤태호 작가가 한국만화가협회(이하 만협) 회장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포털의 강력한 유인 동력으로 떠오른 만화, 그에 따라 만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위상이 급변하는 상황인 만큼 만협의 역할이 중요하다. '돈 버는 자리가 아니라 일 버는 자리'라는 만협 회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날 무렵, 윤태호 협회장을 동교동의 한 출판사 사무실에서 만났다.

### 오만 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인 주철환  
편집 총괄 이규승  
기획·편집 안현미, 씨네21(주)  
객원 편집위원 전민정  
디자인·사진 씨네21(주)

(재)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전화 02-3290-7000  
팩스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웹진 www.sfac.or.kr/munhwaplusseoul  
발행일 2017년 2월 28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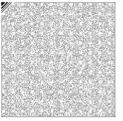
## 32 진실 혹은 대담 주요 공공극장의 시즌 프로그램

시즌제는 극장과 관객 모두에게 유용하다. 극장의 입장에서는 사전 예매를 통해 안정적 고객 확보가 가능하며, 관객에게는 폭넓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미 시즌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주요 공공극장들은 저마다의 실정과 정체성을 반영한 시즌제를 만들어가고 있다. 서로 다른 개성을 지닌 공공극장의 시즌제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



## 42 쟁점 1 <더러운 잠> 전시 논란

지난 1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 BYE! 展>의 전시 작품 중 한 작품이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다. 바로 이규영 작가의 <더러운 잠>이다. 작가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해당 작품은 전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켰고, 작품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미성숙한 논쟁들이 한동안 계속됐다.



- 04 발행인의 말  
주철환의 더다이즘, 여섯 번째

### 테마 토크 서울문화재단의 내일을 말한다

- 08 서울문화재단 전·현직 대표이사들의 수다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서울문화재단에게
- 16 서울문화재단의 2017년 사업 계획  
예술로 '더' 새롭게, 문화로 '더' 즐겁게

### 사람과 사람

- 22 한국만화가협회 신임 회장, 만화가 윤태호  
'미생'이길 자처하며 세상을 탐구하다
- 28 광장극장 '블랙텐트' 극장장 이해성  
극장이 돌아왔다
- 32 진실 혹은 대담  
주요 공공극장의 시즌 프로그램
- 38 예술가의 밥그릇  
수중사진작가 와이진
- 40 서울 찻나  
백무산 시인의 <노동의 밥> 중에서

### 이슈 & 토틱

- 42 쟁점 1  
<더러운 잠> 전시 논란
- 44 쟁점 2  
순수예술까지 확산된 '한한령'
- 46 화제  
메릴 스트립의 수상 소감과  
이 시대 문화예술의 역할

- 50 아트 캠페인 '바람난 미술'

### 공간, 공감

- 52 공간 1  
남산예술센터 2017 시즌 프로그램 공개
- 54 공간 2  
고려대 앞 서점 '지식을 담다'
- 56 공감 1  
뮤지컬 <미스터 마우스>와  
연극 <메디아>
- 58 공감 2  
전시  
<닉 나이트 사진전-거침없이, 아름답게>와  
<아이작 줄리언: 플레이타임>
- 60 공감 3  
책 <체체파리의 비법>과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 62 예술적 상담소

### Soul of Seoul

- 64 메모리인 서울  
시간의 흐름을 간직한 광화문 거리
- 66 서울 단상  
음악평론가 송현민의 석관동 캠퍼스의 추억
- 68 이명석의 썬(說)  
양꼬의 <나쁜 친구>와  
세계 각국의 자전적 만화들
- 70 장윤선의 음악 정원으로  
기악음악 감상법
- 72 서울 건축 읽기  
서촌의 이름지기 사옥
- 74 연극 10분 희곡 릴레이  
김지은 작 <클라이맥스>

### 3월의 서울문화매뉴얼

- 76 3월 Calendar
- 84 편집 후기

주철환의 더다이즘, 여섯 번째

# 공터에서 하늘을 보다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엔 옥상정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선 완전히 드넓은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을 볼 때면 대학교 4학년 때 모교에 교생 실습을 나갔을 적이 떠오릅니다. 국어 수업을 맡았는데 그때 제가 가르친 수필 제목이 ‘신록예찬’입니다.”





소설가 김훈 선생이 신작을 준비한다고 들었을 때부터 가슴이 설렸습니다. 나오면 곧바로 베스트셀러 목록에 들 거라 짐작했고 예측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니다. 저만의 추측은 아닙니다. 소설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대체로 그 정도 예상은 했을 겁니다.

이름만으로도 기대를 모으려면 대충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인지도, 호감도, 신뢰도입니다. 일단 존재를 알리고 호감을 얻은 후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믿고 읽는 작가, 믿고 보는 배우는 이렇게 생기는 거죠.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믿음이 깨지면 호감은 무너지고 결국 기억에서도 사라지게 됩니다.

김훈 작가의 이번 소설 제목은 <공터에서>입니다. 예전에 저는 삶의 터전을 여러 군데로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쉼터, 배움터, 일터, 싸움터, 놀이터, 이렇게 다섯입니다. 가정은 쉼터, 학교는 배움터, 직장은 일터, 군대는 싸움터입니다. 놀이터는 다양합니다. 누군가에겐 극장이나 공연장이, 누군가에겐 게임방이나 운동장이 놀이터입니다.

이 장소들은 종종 영역이 겹칩니다. 특히 싸움터가 그렇습니다. 사이가 틀어진 가족에겐 쉼터가 싸움터입니다. 국회는 언제부터인가 일터이자 싸움터가 되었습니다. 지나치게 경쟁을 부추기다 보니 즐거워야 할 교실조차도 싸움터로 바뀌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에겐 일터가 놀이터입니다. 연기가 즐거운 배우에게 무대는 일터이자 놀이터입니다. 이세돌이 알파고와 대국을 벌이던 곳은 일터, 놀이터, 배움터, 싸움터가 겹치는 곳으로 보였습니다.

살면서 여러 터전을 거치고 또 머물렀지만 공터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문득 기억이 1970년대 초동 스키라 극장 맞은편으로 향합니다. 거기에 제가 자주 다니던 맥줏집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글레이드(glade)였습니다. ‘숲속의 빈터’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공터지만 그곳은 제게 쉼터이자 놀이터, 그리고 배움터였습니다. 거기엔 술이 있고 음악이 있고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많이 대화하고 토론도 했습니다. 언젠가 그 ‘숲속의 빈터’에 새 건물이 들어섰을 때 제 청춘의 버팀목이 힘없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엔 옥상정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선 완전히 드넓은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을 볼 때면 대학교 4학년 때 모교에 교생 실습을 나갔을 적이 떠오릅니다. 국어 수업을 맡았는데 그때 제가 가르친 수필 제목이 ‘신록예찬’입니다. 글을 쓴 이양하 선생의 문장이 아름다워서 지금도 줄줄 외고 있습니다.

“세속에 얽매여,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머니의 돈을 세고, 지위를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는 데 여념이 없거나, 또는 오욕칠정(五欲七情)에 사로잡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데 마음에 영일(寧日, 편안한 날)을 가지지 못하는 우리 사람이란...”

제가 다니는 직장은 계단마다 공연, 전시, 축제, 포럼을 알리는 포스터가 훈장처럼 붙어 있습니다. 사무실마다 문화 예술서적들이 꽂 차 있습니다. 층마다 별책부록처럼 꾸며진 작은 사랑방에선 직원들이 옹기종기 모여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눕니다. 하루에도 서너 번 그곳들을 기웃거리며 작은 시비(?)를 거는 게 저의 소박한 즐거움입니다.

출근할 때는 계단을 성큼성큼 걸어 오릅니다. 마침내 제 사무실이 있는 5층에 이르면 입구의 세 글자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감사팀. 저는 그것을 ‘감시와 사찰’로 읽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 아무도 막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이제 한 층만 더 올라가면 공터와 하늘을 시원하게 볼 수 있다는 혜택에 오늘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주철환

주철환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행복한 문화도시 서울을 만든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지원과 예술교육, 시민 문화예술 활동지원 등을 펼쳐온 서울문화재단이 올해로 창립 13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9월 주철환 대표이사 취임과 함께 다시 한 번 새로운 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지원 전문기관과 시민을 위한 문화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더’ 즐겁고 ‘다’ 행복한 문화도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절이 하 수상하니 서울문화재단의 어깨는 더욱 무겁다. 이번 호 테마 토크에서는 전·현직 대표이사 4인의 좌담과 2017년 사업 계획 소개를 통해 서울문화재단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 서울 문화 재단의

# 내일을 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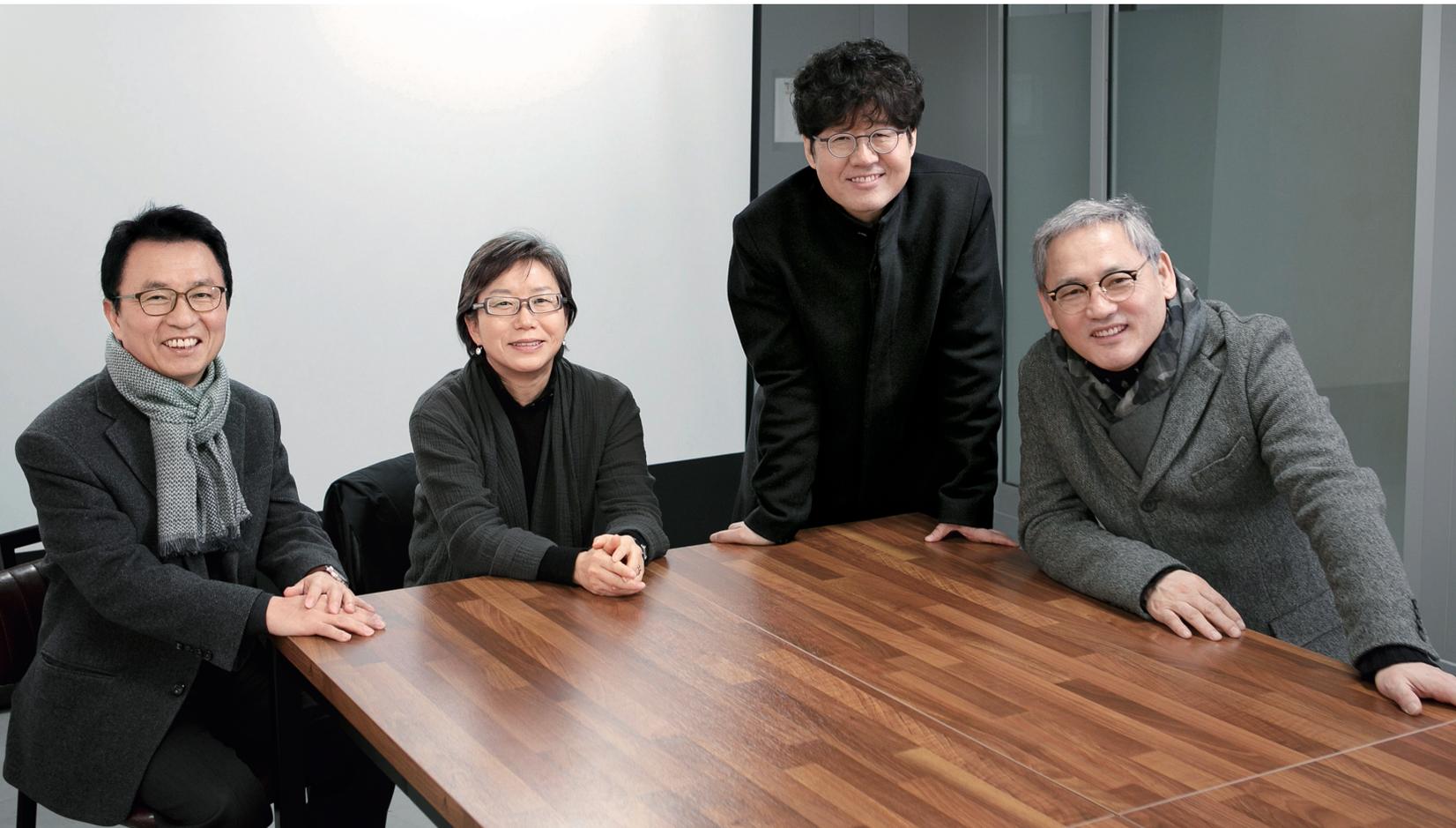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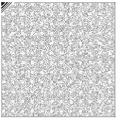


서울문화재단 전·현직 대표이사들의 수다

#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서울문화재단에게

지난해 9월 1일 서울문화재단에 주철환 대표이사가 취임했다. 2004년 서울문화재단 창립 이후 네 번째 대표이사다. 그동안 서울문화재단을 이끌어온 역대 대표이사들은 서로 다른 삶의 궤적을 그려왔다. 유인촌 초대 대표이사는 연극계를 대표하는 연극인으로, 대중들로부터 국민 연기자로 인정받았다. 안호상 2~3대 대표이사는 예술의전당 창립 멤버로 시작해 현재는 국립중앙극장 극장장을 세 번째 연임한 대표적인 공연 기획자다. 조선희 4~5대 대표이사는 한겨레신문 문화부 기자 출신으로 씨네21 편집장과 한국영상자료원 원장을 거쳐 현재는 소설가로 활동 중이다. 현 주철환 대표이사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시작해 방송국 PD와 사장을 역임했으며, 대학교에서 젊은이들에게 문화를 가르쳐왔다. '연극과 연기' '공연기획과 예술행정' '소설과 영화' '방송과 교육' 등 서로 다른 분야를 대표하는 인물들이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문화'라는 데 이견이 없다. 올해로 창립 13주년을 맞이하는 서울문화재단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전·현직 대표이사들이 4인용 식탁에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참석** 유인촌\_ 초대 대표이사,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호상\_ 2~3대 대표이사, 현 국립중앙극장 극장장  
 조선희\_ 4~5대 대표이사, 전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주철환\_ 현 대표이사

**일자** 2017년 1월 18일(수)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주철환 이번에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호상 극장장님께서 국립중앙극장 극장장으로 세 번째 연임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전임자들이 잘되는 것을 보니 너무 좋습니다.<sup>1</sup>

안호상 서울문화재단이 터가 좋은 거 같습니다. 장관님도 배출하지 않았나요. (웃음)

유인촌 그런가 보네요. 주철환 대표님은 오래간만에 뵙네요. 우리 인연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지 않았나요.

주철환 네. 맞습니다. MBC <전원일기> 시절부터니까 정말 오래됐습니다.

유인촌 서교예술실험센터는 오래간만에 방문합니다. 예전에 젊은 친구들이 전시를 할 때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땐 여기가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안호상 이곳이 재단 초창기에 조성한 공간입니다.

유인촌 2009년이라고 하던데, 안 대표님 시절이 아닌가요?

안호상 네. 이 공간은 마포구에서 주민센터가 통합되면서 남은 유휴 공간을 서울문화재단에 운영해달라고 부탁해서 시작됐습니다.

조선희 서교예술실험센터는 마포구가 건물을 소유하고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데 2년 전 쯤 마포구청이 건물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금싸라기 땅이니까요. 그런데 지금처럼 공공성을 가지고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임대업을 계획했던 거예요. 그래서 흥대 앞 예술가들이 항의하고 시장님도 안 되겠다 하셔서 다시 원위치된 거죠. 지금도 그런 현안이 잠복해 있는 공간입니다.

## 창작 초연 중심의 제작극장인 '남산예술센터'는?



남산예술센터는 창작 초연 중심의 현대연극 제작극장, 시대의 맥박을 느낄 수 있는 동시대 공연장,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극장을 표방하며 이 공간만의 색채와 특성을 재정립해왔다. 남산예술센터는 희곡 창작의 중심지로서, 창작극 제작 및 초연은 물론 자체제작과 공동제작을 병행해왔다. 2013년부터는 공모를 통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협력 극단과 함께하는 공동제작에 초점을 맞추어 타 제작극장과는 다른 행보를 이어왔다. 2016년부터 연극의 범위를 보다 확장해온 남산예술센터는, 2017년에도 변함없이 동시대성을 담은 주제 발굴과 창작자를 존중하는 공공극장의 역할을 지켜가고자 한다.

### 한국 최초의 현대식 극장, 드라마센터

2009년 9월 서울시 창작공간으로 재개관한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는 건축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가장 오래된 근현대식 공연장으로서 그 전신은 한국 현대연극의 메카, 드라마센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2년 국내 최초 현대식 민간극장이었던 드라마센터는 극작가이자 연출가였던 동량 유치진 선생이 연극 전용 극장 건립 계획의 뜻을 품고 미국 록펠러 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 정부가 제공한 남산 중턱의 옛 과학관 부지에 세웠다.

### 한국 현대연극의 역사적 뿌리, 드라마센터

1962년 4월 12일 개관 공연 <햄릿>을 시작으로 한국 연극사에 새로운 장을 연 드라마센터는 개관 당시 약 200명에 객석 473석을 갖춘 중형 극장으로 한국 연극의 중흥기를 이끌었다. 개관 공연 이후 같은 해 <밤으로의 긴 여로> <포기와 벼스> 등 6개 작품을 공연하였으며 연극 인재 양성을 위한 부설기관인 연극 아카데미를 발족시켰으나 1963년 재정난으로 극장 운영 1년여 만에 막을 내렸다. 이후 드라마센터는 후진 양성기관으로 운영 방향을 바꾸어 1964년 서울연극학교 설립, 1974년 서울예술전문대학으로 발전하면서 학생들의 실습 전용 무대로 사용되었다. 2009년 9월,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수많은 연극인들이 한국 현대연극을 꽃피웠던 의미 있는 공간이자 꿈의 무대인 드라마센터의 연극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나아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관객들과 호흡하고자 새롭게 단장을 마치고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의 문을 열었다.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38 개관일 2009년 6월 8일

시설현황 중극장: 최대 480석, 전체 면적: 1,531㎡

반출무대: 330㎡, 원형무대(아레나 스테이지)와 사이드 스테이지: 99㎡

“드라마센터가  
잘된 것도 재단에서  
직접 기획하기 때문입니다.  
자체 기획을 많이 해야  
합니다. 재단의 그런  
역할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유인촌



유인촌 그러니까, 재산권은 자치구에 있고 문화재단이 임대해서 사용하는 좋은 사례군요.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도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안호상 동량재단이 학교에 임대를 주고 돈을 받았습니까. 당시 학교에서 재단이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는 교육부 감사를 받아 시설을 안 쓰고 임대를 주었습니다. 마침 우리도 예술교육사업이 확장되면서 추가 공간이 필요하기도 했고요.

조선희 남산예술센터가 작년에 작황이 좋지 않았나요?

유인촌 작년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늘 좋았지요.

조선희 한동안 슬럼프였다가, 그건 제 탓도 있는데, 작년부터 극장장을 새로 영입하면서 공간의 존재감이 살아났지요. 물론 정치적인 환경과 관련이 있지만. 임대 기간이 올해 말까지라 임대를 연장할지 여부가 곧 이슈가 되겠지요. 잘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유인촌 당시에 제가 동량재단 이사장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진도를 나가기 어려웠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연극계를 위해서 빌려주든지 아니면 기부를 하든지

큰 결정을 하라고요. 그때는 재단 사무실이 지금의 남산예술센터가 위치한 서울예대 아래쪽에 있어서 몇 번을 올라가 차 한 잔 하면서 얘기하곤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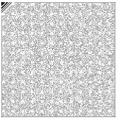
안호상 그때의 인연으로 우리 재단에 온 거였군요. (웃음)

유인촌 네. 정말 제안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당시 이사장이 워낙 완강해서 쉽지 않았습니다.

#### 새로운 청사, '동숭아트센터'의 기대와 숙제

안호상 서울문화재단이 동숭아트센터를 인수하면 계속 쓰게 되는 건가요?

유인촌 오히려 재단에서 확보하면 연극계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대학로가 복판은 떠났다고 보면 됩니다. 상업 영화처럼 몇 년씩 룰런하는 연극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이런 사람들밖에 안 남았습니다. 소위 순수하게 연극하는 친구들은 대학로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선돌극장이나 게릴라극장 등과 같이 한성대와 혜화동 번두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동숭아트센터 같은 곳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면 너무 좋은 현상



입니다. 민간에서 더 이상 공연장을 운영할 여건이 안 됩니다. 당시에는 공연장 수도 적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공연장 수도 많아지고, 동숭아트센터도 아마 저와 같은 입장일 겁니다.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시어터도 동숭아트센터처럼 큰 볼륨으로 시작했으면 오히려 나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네요. 처음에는 200석도 안 되는 작은 공연장에 무대 기술, 홍보마케팅, 관리, 기획 등 13명의 직원으로 시작했습니다. 2년간을 월급 주면서 버텼는데, 나중에 공직을 맡으면서 극장에서 손을 떼게 됐습니다. 결국 공간을 서비스했어도 책임자가 없으니까 망하게 되더군요. 지금은 화재라도 날까봐 걱정입니다. 제대로 지원을 안 해주면 문을 닫는 게 낫다고 봅니다. 3년간은 서비스해주고, 장관 시절엔 무상으로 대여하고, 만 원짜리 대관도 해봤는데, 지금은 문을 닫았습니다. 극장에서 쓰던 모든 조명, 의자 등 물건들은 학교와 극장을 거쳐간 연극인들이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걸 보면서 가슴이 아팠죠. 그래도 다른 데 안 가고 연극인들이 사용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조선희** 물건에도 수명이 있는 거죠.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동숭아트센터에 입주합니다. 주 대표님은 공간을 어떻게 쓰실지 생각해보셨나요?

**주철환** 조 대표님을 만나서 얘기해볼 겁니다. (웃음) 제가 오기 전에 MOU(업무협약)를 체결하셨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걸리는 것은 동숭아트센터에 교회가 입주해 있다는 것이죠.

**조선희** 그런데 교회 자체가 아니라 교회에서 운영하는 교육관 아닌가요? 임대기간이 2019년 초까지인가 그럴 겁니다. 재단이 입주할 때 임대기간이 남은 공간들까지 한꺼번에 인수하면 좋을 텐데 교회 쪽과 협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인촌** 어찌 됐든 슬기롭게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숭아트센터가 어차피 공연을 하는 공간이며,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니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 서울문화재단이 동숭아트센터로 이전?



동숭아트센터는 지난 1989년에 김옥랑 대표가 세운 국내 최초의 민간 복합 문화공간으로, 동숭홀(452석), 동숭소극장(161석), 꼭두소극장(151석) 등 극장을 비롯해 사무, 전시, 교육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서울문화재단은 기초예술계의 안정적인 창작지원과 서울시 문화예술 발전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동숭아트센터를 공공극장과 재단 청사로 이용할 계획이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발표한 '2015 공연예술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학로의 공연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132개 소에 이르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연장이 동숭동 일대를 중심으로 혜화동 로터리 북쪽 방향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저렴한 대관료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학로의 예술 생태계를 지원할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서울문화재단의 주요 기능이 대학로로 이전하면 수요자 중심의 재단 주요 사업이 확대되고, 공공극장을 기반으로 창작공연이 활성화되며, 문화예술 향유자 증가에 따른 경제적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단의 접근성이 원활해지고, 업무공간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서울문화재단은 청사 이전에 따른 업무시설을 확보함으로써 대학로의 공연기반 시설로서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공연장 중심의 간접지원 확대와 예술인과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다목적 복합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향후 재단 이사회와 시의회 의결 등 부동산 매입을 위한 행정 절차를 완료한 후, 양해각서 내용 외 사권 정리 등 본격적인 매입협상을 진행해 2017년 하반기 매입 완료하고 리모델링을 거쳐 2018년 상반기에 이전할 계획이다.

주철환 이런 시조가 있습니다. ‘옛사람도 나를 못 보고, 나도 옛사람을 못 보았지만, 옛사람이 가던 길이 있지 않냐.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어떻겠느냐.’<sup>2</sup> 이제는 사랑방에 시민들이 찾아와서 어르신들의 지혜로운 말씀도 듣게 만들 겁니다.

유인촌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주철환 이렇게 전임자들이 인격, 덕을 갖춰 새로운 길을 제시해줬기 때문에 그 길에서 흐트러짐 없이 홍보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서울문화재단하면 유인촌을 떠올립니다. 제가 할 일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서울문화재단을 알리고, 다 함께 참여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이 520억 정도입니다. 이 소중한 예산을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잘 집행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생활예술과 생활문화 등에 집중할 겁니다. 동숭아트센터에 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들께도 자문을 구할 계획이고요.

조선희 말씀을 너무 잘하는 거 같습니다. (웃음) MC도 본 적 있나요?

주철환 네, 물론입니다. OBS 시절에 <문화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을 1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동숭아트센터 계약 당시 계획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것은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안호상 동숭아트센터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조선희 대략 700평 됩니다.

주철환 대학로에서 그만 한 규모를 자랑하는 공간도 없습니다.

유인촌 제가 있던 시절에도 대학로에 연습실이 있는 건물을 사려고 했는데 결국 못 샀습니다.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지금 시세가 대략 10배 오르지 않았나요. 당시 시의회에서 허가를 안 해줬죠. 기본 재산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데 안 된다고 하더

라고요. 특히나 재단은 재산 확보를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민간에서는 어렵습니다. 드라마센터가 잘된 것도 재단에서 직접 기획하기 때문입니다. 자체 기획을 많이 해야 합니다. 재단의 그런 역할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조선희 제가 있을 때 공간사옥을 사려다 시의회의 제동이 걸려 무산됐었죠. 정말 아픈 기억이네요. 대학로 연습실은 10년 넘게 임대료 내면서 운영할 줄 알았으면 공간을 매입하는 게 마땅히 옳았는데요.

주철환 면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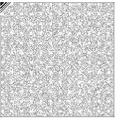
#### 블랙리스트의 시대, 대표로서의 투명한 원칙 지켜야...

유인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새 최순실 사태를 보면서 주 대표님이 힘들 거라 생각했습니다. 문화 관련 기관장들의 일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최순실 사태 때문에 문화부가 완전 초토화되지 않았나요. 전·현직 장·차관이 끝났다고 봅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원만 해도 1만 명이나 됩니다. 1만 명을 제외하면 누가 있나요. 혹여나 블랙리스트라는 말이 돌았다면 최고 책임자가 역할을 제대로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희 지금의 블랙리스트는 단적으로 구시대의 잔재입니다. 이는 박근혜 정권의 특수성이며 정치적 성향에 따라 조직적으로 배제되는 일이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없었습니다. 안 대표님 시절에도 보수정당의 시장이라고 해서 진보적 예술가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로 있던 시절에도 그랬고요. 시에서도 그렇게 정치적으로 재단 지원사업에 개입해온 적은 없습니다. 행정부와 지자체의 차이도 있겠지요. 행정부가 훨씬 정치적으로 바람을 타지 않겠어요?

유인촌 결국 대표가 옳은 판단을 하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고 책임자가 옳은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대표였던 시절에도 ‘문화연대’와 잘 지냈습니다. 실제로 일할 때도 전혀 구분이 없었고요. ‘옳다’, ‘그르다’의 문제로 결정했습니다. 싸움이 있더라도 지금과는 종류가 다르죠. 조금만 현장을 알았다면 정리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안호상 이런 시대의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여 현장 중심으로 자



“이런 시대의 사회적 요구를  
반들어 현장 중심으로  
자립성을 키워야 합니다.”

안호상



립성을 키워야 합니다. 일하면서 제일 큰 장애는 시가 아닌가요. 그분들이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휘두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현장을 바라보는 이해의 차이라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개입하는 것이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현장과 생각이 유리되어 있기 때문이죠.

유인촌 지금 사태가 이러니까 현장 사람들을 많이 만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희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장 예술인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더군요. 우리 재단이 지원기관이라 현장 예술인들과의 관계가 까다로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호상 저 역시 지원과 관련해 서울시나 그 어느 누구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유인촌 난리 나는 걸 보니까 누군가 재단에서 거르는 사람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주철환 전 국민이 교육을 받는 기간이라 생각합니다. 최순실과 차은택을 보지 않았나요. 이제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도 생겼고요. 부

정 청탁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 또한 PD 출신입니다. PD는 배우나 가수만 만나는 직업이 아닙니다. 방송국에서 야심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납니다. 지금까지 누구의 청탁을 받아 행동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주철환이라는 이름을 지키고 싶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유인촌 장관 시절에 미술계 분들 20명과 사무실에서 2시간 정도 이야기했는데, 그런 자리는 육박에 안 납니다. 끊임없이 2시간을 떠들었는데,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모 대학 교수가 나가면서 그러더군요. “시간 내줘서 고맙다. 하나도 안 해줘도 된다. 우리들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다. 이 정도만 해줘도 고맙다”라고요. 처음에는 안 해줘도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알겠더군요. 현장의 느낌이 그런 겁니다. 그런 작은 역할만 해줘도 이런 큰 사고가 안 났다고 봅니다. 그나저나 역대 대표가 이렇게 4명밖에 없는 건가요?

주철환 안 대표님이 5년, 조 대표님이 4년 반, 유 대표님이 3년을 했습니다. 비교적 오래 있었죠. 모두들 투명하면서도 자기

의 세계관이 뚜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것입니다.

### 지역문화재단의 시대... 서울문화재단의 역할은?

주철환 올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금천구, 서대문구, 양천구 등 5개 구에 기초문화재단이 더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니다. 지역이라는 관계에 대해서 재단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안호상 너무 많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요구에 의해서 생기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유인촌 실제 문화재단이 긍정적 역할을 하는 곳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안호상 앞으로 서울문화재단이 그런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희 저는 반드시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요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공무원 조직에서 하던 문화정책 문화사

업들을 민간의 전문가들에게 넘김으로써 훨씬 전문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구청 입장에서는 정부나 교육청이나 시의 예산을 따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재단을 통해서 신청하라는 요구가 많아지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안호상 제일 돈이 많다는 서초구조차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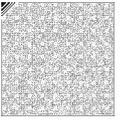
조선희 서울문화재단도 생활문화지원단이 생겨 기초단위로 내려가서 하는 문화사업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역할이 바뀌어야 합니다. 서울문화재단이 광역 문화재단으로서 별개의 문화재단이 아니라 기초문화재단들 전체를 네트워킹하면서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 문화정책의 기획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 기초재단이 4~5개밖에 없을 때는 무의미했지만 이제 15개 정도 생기니까 하나의 시스템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서울문화재단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유인촌 어차피 추세는 계속 생겨나가니까 그런 역할이 필요함

“서울문화재단이 광역 문화재단으로서 별개의 문화재단이 아니라 기초문화재단들 전체를 네트워킹하면서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조선희





“제가 할 일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서울문화재단을 알리고, 다 함께 참여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생활예술과 생활문화 등에 집중할 겁니다.”

주철환



니다. 이제는 서울특별시 전체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다 소화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곳이 생기면 오히려 더 정교하게 문화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 “나는 재임 시절에 이거 하나는 잘했다!”

유인촌 그래도 지나서 생각해보니 서울문화재단에서 일할 때가 제일 즐거운 추억이 많았네요. 그때는 매일같이 머리를 싸매면서 아이디어도 내고 그랬어요. 그때처럼 고민을 많이 했던 시절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또 재단 일을 안 했으면 문화부 일도 못했을 거고요. 서울문화재단에서의 3년 동안의 경험이 제 인생의 큰 자산이 됐습니다.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집칸(재단 청사)이라도 만들고 나온 겁니다. 비록 그때 청계천 9가가 시골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집’이 낫죠. 안 대표님이 편하게 계셨던 겁니다. (웃음) 저는 먼지 구덩이 속에서 일했어요. 나중에는 직원들에게 미안하기도 했지요.

안호상 저는 서교예술실험센터, 금천예술공장, 연희문학창작

촌 등 버려졌던 공간들을 예술가들과 시민들을 위한 창작공간으로 조성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앞으로 문화재단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질 거라 기대합니다.

조선휘 그럼 저는 창작공간을 안정화시킨 것을 들고 싶습니다.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고, 위탁사업을 고유사업화하고 창작공간에서 각 장르별 예술지원을 하도록 했지요.

주철환 이런 선배 대표들의 씨앗과 열매를 ‘아무나’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모두 잘했다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많은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정리 이규승\_서울문화재단 홍보팀장 사진 서울문화재단

1 2년 전에도 안호상 극장장의 두 번째 연임 소식으로 전·현직 대표이사 좌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출처: 2015년 2월호 [문화+서울] <https://goo.gl/2Gfxri>

2 옛 어른들은 돌아가셔서 이제는 볼 수 없지만, 옛 어른들이 가셨던 길(가르침)은 앞에 있으니 그 길을 따르겠다며 다짐하는 퇴계 이황(李滉, 1501~1570)의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12수 중 후육곡(後六曲) 가운데 세 번째 작품이다.  
작품 원문: 古人(고인)도 날 문보고 나도 古人(고인) 문 뵈 / 古人(고인)을 문뵈도 녀던 길 알피었니 / 녀던 길 알피 잇거든 아니 녀고 엇덜고

서울문화재단의 2017년 사업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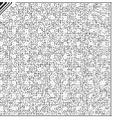
# 예술로 '더' 새롭게 문화로 '다' 즐겁게

서울문화재단은 안정된 예술생태계, 쉽게 즐기는 생활 속 문화, 협력의 플랫폼, 신뢰받는 전문가 집단 형성을 정책 목표로 정하고 2017년의 닳을 올렸다. 지난 1년의 활동과 성과를 돌아보고, 이를 토대로 서울문화재단이 제시하는 2017년 '문화도시 서울'의 청사진을 살펴본다.



2





- 1 문래예술공장이 문래창작촌 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MEET' 프로그램의 공연 모습.
- 2 유망예술지원사업 중 하나인 문래예술공장의 'MAP(Mullae Arts Plus)'.
- 3 남산예술센터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 2016년, 문화예술로 행복한 도시를 위한 노력

지난해 서울문화재단은 예술가 창작지원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연계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 진입단계의 신진예술가를 돕는 '최초예술지원' 사업을 통해 총 54명의 청년예술가를 필드에 안착시켰고, '유망예술지원'을 통해 22명의 실력 있는 예술가에게 힘을 보탤다.

서울무용센터 리모델링 개관, 남산예술센터 창작연극 지원 등 창작공간 활성화를 통한 예술 생태계 지원 확대의 노력도 꾸준했다. 사회적 예술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자 30명의 청년 인력에게 역량교육을 실시했고, 공공예술포럼과 심포지엄을 통해 사회적 예술 담론화에도 앞장섰다.

전문 예술가뿐 아니라 시민문화를 꽃피우는 예술교육과 예술치유 방면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민예술대학을 운영하며 생애주기별 예술교육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서서울예술교육센터를 성공적으로 개관했다. 어린이 창의예술교육을 전담하는 '예술가교사' 47명을 선발해 초등학교 307개 교에 파견했으며, 특정집단, 특수직군을 대상으로 한 '예술, 마음,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했다.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과 지역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서울 상상력 발전소 프로젝트'는 오랜 세월 축적된 상공인의 생활문화와 기술력의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시도였다. 세운상가의 상인들과 전문 메이커가 협업한 시민 대상 워크숍이 그 첫 시도였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연계해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가 하면, 성북구 정릉과 성동구 성수동 지역을 대상으로 '예술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동네 생활공간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복작복작 예술로(路)'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거리예술축제에서는 총 47개 작품, 96회 공연을 통해 시민에게 다양한 거리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했다.

작년 한 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확대하는 과정에서 문제점과 개선 과제가 눈에 띄기도 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 등 사회적 이슈와 연계해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창작지원과 활동 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 공교육 환경변화에 따른 예술교육 지원의 수요 확대, 시민들을 단순 문화향유자가 아닌 적극적인 생활문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보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실감했다.



1

### 2017년 사업의 주요 키워드 세 가지,

#### ‘예술인의 일자리’ ‘시민 생활문화’ 그리고 ‘일상 속 문화예술’

2017년 서울문화재단은 주요 사업을 통한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 시민 생활문화 확산, 일상 속 문화예술의 점점 확대를 목표로 설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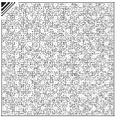
첫 번째, 예술인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예술인 창작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예술가교사를 늘릴 계획이다. 서울 예술인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창작 안전망을 구축해 예술인들의 창작 활성화와 공정한 예술활동 기반을 도모하는 ‘서울 예술인 플랜’ 정책에 근거해 높은 진입 장벽으로 기존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년예술가에게 맞춤형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에 이어 공공지원금 수혜 경력이 없는 예술인에게는 ‘최초예술지원’ 사업을 통해 예술계 진입을 돕고, 진입 후엔 성장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유망예술지원’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청년예술인의 창작발표 공간,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거점 공간을 지원해 향후 예술청 조성을 위한 운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예술가교사를 발굴, 양성해 이들을 어린이·청소년 창의예술교육

에 투입하는 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계속된다. 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초등·중학교 수업 지원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는 ‘서울형 예술교육’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시민 생활문화의 확산 또한 주요 사업의 한 축을 차지한다. 이를 위해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과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이는 시민 개개인이 생활예술 관심자에서 생활예술인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생활문화 활동 및 지원의 거점이 되는 공간을 구축하고 생활문화 참여 욕구를 증대하는 전면적인 캠페인을 진행한다. 자치구,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동아리 간 교류를 통해 생활문화 축제도 개최한다. 9월 ‘생활예술오케스트라’, 10월 ‘커뮤니티 댄스 축제’, 10월 ‘만드는 세상 서울 페어(가칭)’ 등 다양한 생활문화 축제를 계획하고 있다.

생활예술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 매개자와 협력을 촉진하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동아리 활동 유경험자, 문화예술 전공자의 역량 강화 교육과 커뮤니티 예술가, 지역문화 기획자 등의 ‘서울문화PD’ 육성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도 동시에 추진된다. 이렇게 동아리,



예술인, 생활문화 매개자 각 부문을 강화하여 이들을 연결하는 다양한 플랫폼을 구축한다. 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등에 관련된 고가의 장비를 공유하는 '장비은행', 생활문화예술전문가를 활용하는 '생활문화인재은행'을 운영할 계획이다.

세 번째, 일상 속 문화예술 접점을 확대하고자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실천에 옮긴다. '서울문화PD(아무나(아)문화)PD)'와 '문화철도 2017'은 서울문화재단의 야심찬 프로젝트다. '서울문화PD'는 새로운 문화생활 정보와 정책 비평을 제공할 오�피니언 리더로서 서울시 전역에서 펼쳐지는 문화사업과 문화현장을 다양한 미디어콘텐츠로 만들어 확산한다. '문화철도 2017'은 문화공간과 지하철역을 연결해 지하철역을 생활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이다. 지하철역 내 미디어를 활용해 예술지원 작품을 노출하며 시민의 일상과 예술의 접점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거리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거리예술 활성화 사업도 추진된다. 공원, 광장, 시장 등 시민 일상공간에서 100여 회의 공연을 편성하는 '거리예술 시즌제', 컨테이너형으로 전시관을 설계해 거리예술의 역사와 유형을 소개하는 '거리예술 이동형 전시' 등이 실행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서울 대표축제로서 '서울거리예술축제'의 브랜드를 강화한다. 올

해 10월 예정된 축제에서는 광장과 거리, 서울 도심 및 마을에서 수준 높은 거리공연과 기획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다수 개발해 시민 참여형 축제로 정체성을 다지고, 지하철 및 서울역 부근의 '서울로 7017' 등 신규 축제공간을 발굴해 시민의 문화 체감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 예술가에게 자유롭고 공정한 창작의 기회를

서울문화재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술가와 창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간다. 예술창작 지원사업은 청년예술가, 장애인, 민간 창작공간 등 예술지원의 영역에서 소외되어 왔으나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둔다. 예술지원 체계에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창작공간의 예술지원 플랫폼



- 1 서울댄스프로젝트 '춤추는 서울'.
- 2 시민의 생활 속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 3 움직이며 배우는 재미난 수업, '서울창의예술교육'.



시민들의 축제 '서울거리예술축제'.

품 기능을 강화한다. 더불어 예술가와 단체의 자기부담금 의무 폐지, 블라인드 심사 도입, 심의위원 공개 추천제 도입 등으로 예술지원사업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발전 가능성 있는 예술축제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전문 예술축제 공모지원으로 우수 예술축제를 발굴·육성하고 브랜드 구축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축제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축제 관계자 간 교류 프로그램, 간담회, 자문회의 등을 수시로 열 계획이다.

민간창작공간 운영 지원사업도 전개된다. 서울 소재 예술인의 약 62%는 개인 작업실이 없고,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중 65%는 월세 형태로 개인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다. 예술인들은 창작 외에도 작업실 운영, 생활주거 비용 등 이중적 비용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문화재단은 창작공간 임대료를 지원해 자율적 문화예술 창작·교류 플랫폼을 마련하고, 예술가-단체 간 네트워킹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예술가와 장애예술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장르 전반의 창작 작품 제작과 발표를 지원하는 장애인예술창작활성화 사업이 추진되며, 지난해에 이어 서울메세나지원사업이 계속된다. 기업과 예술단체의 매칭

지원 활성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예술제휴 프로젝트 기획, 온라인 기부플랫폼 '아트서울, 기부투게더' 운영을 통한 시민 모금 활성화 등을 지속한다.

### 시민에게 주체적인 문화 향유의 기회

서울문화재단은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서울시민예술대학,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사회적예술치유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문화예술에 대한 창작과 소비 주체로서 시민예술가를 양성하기 위한 서울시민예술대학은 6개의 지역 캠퍼스를 10개로 늘리고, 신규 참가자 발굴, 분기별 학기제 운영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예술적 놀 권리를 구현하는 서서울예술교육센터는 Arts Lab-예술가교사 시스템을 통해 차별화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고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시민의 삶과 사회 치유를 위한 플랫폼인 사회적예술치유 프로그램은 장기적 예술치유가 필요한 사회적 위기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종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을 위한 치유 시스템 구축, Wee클래스, Wee스쿨, 치매지원센터 등과의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거점공간을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시와 공동체 차원의 사업 또한 계속된다. 자치구별 문화 접근성과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는 지역문화 진흥사업, 장르 밖 예술의 청년활동가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서울상상력발전소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펼친다.

또한 서울문화재단은 오는 11월, 세계도시문화포럼(World Cities Culture Forum: WCCF) 2017년 서울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계도시문화포럼은 세계 주요 도시들의 문화정책 정보 공유와 교류를 목적으로 한 정책 네트워크로, 지난해 12월 기준 총 25개 국 32개 도시가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정리 김수빈 사진 제공 서울문화재단

# NAMSAN ARTS CENTER

# SEASON PROGRAM 2017

# 남산예술센터

**3.14-3.24**

서치 라이트 2017  
(Search Wright)

**4.6-4.16**

2017 이반검열

이연주 구성·연출

전화벨이 울린다

**4.21-4.30**

가해자 탐구\_

부록:사과문작성가이드

구자혜 작·연출

여기는 당연히, 극장

**5.13-6.4**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박근형 작·연출

극단 골목길

**6.10-6.18**

국부 國父

공동창작 / 전인철 연출

극단 돌파구

**7.6-7.16**

창조경제\_공공극장편

공동창작 / 전문환 연출

앤드씨어터

**8.18**

제2회 남산 아고라

**8.30-9.3**

천사 (가제)

서현석 구성·연출

아트선재센터

**9.14-10.1**

에어콘 없는 방

고영범 작 / 이성열 연출

극단 백수광부

**10.18-10.22**

십년만 부탁드립니다

이주요, 김현진 구성·연출

큐레토리얼 랩 서울

**11.2-11.12**

파란나라

김수정 작·연출

극단 신세계

**11.23-12.3**

당신이 알지 못하나다

권여선 원작 / 박해성 각색·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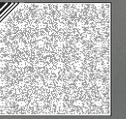
상상만발극장

서울특별시  
문화재단  
남산예술센터  
서울문화재단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017 시즌 프로그램





한국만화가협회 신임 회장  
만화가 윤태호

‘미생’이길  
자칭거야모크

세계상을 판구한다

윤태호 작가는 ‘미생’처럼 살아간다. 바둑에서 죽은 돌과는 달리 완생하지 못했지만 완생할 여지를 남기고 있는 상태 혹은 그 돌을 일컫는 ‘미생’말이다. <이끼> <내부자들> <미생> <인천상륙작전> 등 수많은 작품을 통해 사랑받고 있는 그가 한국만화가협회(이하 만협) 회장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포털의 강력한 유인 동력으로 떠오른 만화, 그에 따라 만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위상이 급변하는 상황인 만큼 만협의 역할이 중요하다. ‘돈 버는 자리가 아니라 일 버는 자리’라는 만협 회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날 무렵, 윤태호 협회장을 동교동의 한 출판사 사무실에서 만났다.

### 만협 회장으로서의 첫 번째 과제, 연속성을 통한 안정화

창작자, 협회장, 어른... 그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많다. 일단 시작은 취임 한 달째 구상을 다듬고 있는 만협 회장으로서의 일이다. 2014년 이충호 전임 회장에서 시작된 만협의 ‘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충호 전임 회장이 회장으로 선출된 당시 원로 만화가들이 명예직으로 여기던 만협의 구성에 일대 변화가 일어났다. 그 전 해 256명의 젊은 작가가 협회에 가입하면서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었고, 만협은 대세로 굳어져가는 웹툰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조직으로 변해갔다. 이전엔 단순한 친목도모의 단체였다면 이젠 “만협이 노조화되어 만화가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길” 바라는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까지 총집결되는 공간이다. 그 변화의 중심에 선 이가 이 전임 회장과 윤태호 작가였다. 전 임기의 만협에서 윤 작가는 부회장을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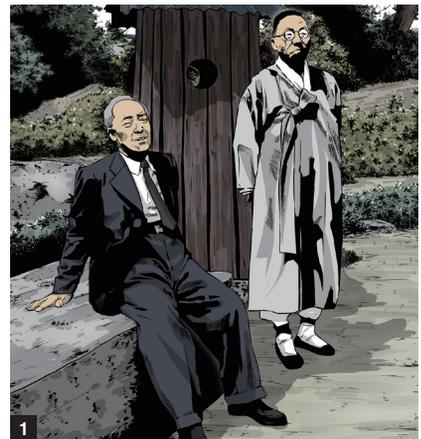
“연령으로 보면 제 나이가 중간에 해당해요. 각 층이 어떤 걸 요구하는지는 알겠으나 운영에서는 이슈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이슈는 선배·선생님의 뜻대로 관용적으로 하는 것도 있을 테지만, 자칫 잘못하면 협회가 무게중심을 잡지 못하고 움직일 수 있어요. 이충호 회장 때부터 중점으로 삼았던 게 세부 규칙, 정관을 만들어서 누가 어떤 사람이 회장이 되건 정관 내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하자는 거였어요. 지금 정관 개정을 한 번 했고 보강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시스템을 잘 정착시키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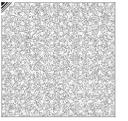
그러기 위해서 사무국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그는 다른 사업을 하나 더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장 한 명, 간사 한 명이 있는데, 간사가 계속 교체돼요. 너무 열악한 환경 때문이죠. 사무국을 직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연속성을 유지하고 싶어요”라는 윤태호 협회장은 “이전 임기 사업의 안정화”를 첫 번째 일로 꼽았다. 만협은 매년 여름 신인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웹툰아카데미’를 열고, 네이버 웹툰에 <한국만화 거장전>을 연재하고 있다.

### 자율규제위원회의 역할, 그리고 원로 작가를 위한 시도

윤태호 협회장의 임기와 함께 시작되는 것이 ‘자율규제위

원회’ 활동이다. 2012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웹툰 규제 강화’에 대한 만화계 대응의 결과물이다. 그는 당시 ‘방심위 심의 반대를 위한 범만화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1인 시위를 조직하고 방심위와 대화를 풀어갔다. 바뀌는 방식은 획기적이다. “이전엔 방심위가 유통업자에게 제재하는 방식이었다면, 자율규제위원회 방식에서는 방심위 민원을 만협이 보고받고 플랫폼 담당자·만화가와 의논하는 형식입니다.” 자율규제위원회 활동과 병행해 심의·규제와 관련한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1인 시위하면서 각 대륙별로 어떤 규제 장치들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모든 국가마다 법은 있는데, 핵심은 법 적용의 범위였죠. 흔히 선진국은 관용도가 높은 대신 학부모 단체의 기준을 위반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더군요. 그때 조사한 것을 업데이트해서, 이번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율규제위원회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 사회의 관용도를 확인하고 높이는 일이다. “우리나라가 역사상 인구 대비 가장 학력이 높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 제일 많은 시기라는 말이죠. 그런데 관용은 이 모양밖에 안 되





나, 그걸 두고 논쟁하려고 합니다. 싫은 게 있으면 합리적 비판을 하려고 해요.” 물론 무조건적인 표현의 자유가 자율의 기본은 아니며, 만화가 대중문화라는 점도 잊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만협 회장으로서의 새로운 사업 구상을 묻자 바로 대답이 튀어나온다. “원로 선생님이 창작자로서의 일대기를 젊은 작가들에게 들려주는 ‘토크콘서트’를 하고 싶어요. 두 평짜리 방에서도 행복했다, 어릴 때 꿈이 많았다, 결혼 못할 줄 알았다 등등 먼저 겪은 일을 선배가 들려주는 거죠. 하지만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말씀이 젊은 만화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 둘째 문제고, 무엇보다 선생님이 말을 하면서 스스로를 발견하셨으면 합니다.” 변화한 시대가 젊은 작가에게 준 ‘혜택’을 선생님들도 누렸으면 하는 생각에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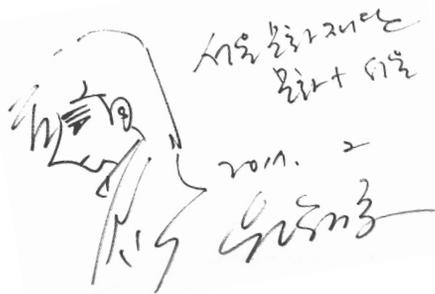
“이야기를 캐묻고 들어가다 보면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인터뷰를 하다 보면 머릿속에 있던 생각을 말로 하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의 말을 끄집어내어 그것을 듣는 것은 다른 메커니즘이죠. 젊은 작가들은 인터뷰를 많이 해서 푹푹해요.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경험을 많이 해서 그렇죠. 원로 선생님들은 책이 나오면 3~4개월 뒤에나 팬레터를 받을 정도로 독자 반응이 매우 늦던 시대에 활동 하셨어요. 원로 선생님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새로운 만화도 구상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화와 인간의 보편성에 관한 탐구**

만화를 담는 ‘새로운 환경’으로 이야기를 옮겼다. 최근 양꼬(최경진) 작가는 세계적 만화 축제 앙굴렘에서 <나쁜 친구>로 ‘새로운 발견상’을 수상했다. 한국인 최초의 일이다. <나쁜 친구>는 양꼬 작가가 신념으로 만든 작품이었지만 작가에게 좌절을 안겨준 작품이기도 했다. 양꼬 작가는 “출판 만화로도 충분히 승부가 된다고 생각했지만 출판 뒤 반응이 너무 없어서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양꼬 작가의 자전적 만화 같은 작품은 이제 만화계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일까. “모든 만화들이 <슬램덩크>나 <드래곤볼> 같은 이유가 없죠. 그런 작품도 있는 거고 다른 작품도 있는 거고. 하모니를 이루면 좋겠습니다. 플랫폼에 계신 분들은, 플랫폼이라는 것이 남이 만든 것을 보여주는 ‘뷰어’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매일 사람들이 어떤 소식을 보는 공간, 즉 ‘저널’로서의 역할도 한다는 생각을 해줬으면 합니다. 다채로움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해요.”



- 1 <인천상륙작전>
- 2 <이끼>
- 3 <미생>
- 4, 5 <파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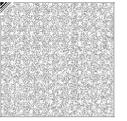
윤태호 협회장은 앙꼬 작가의 수상 소식이 만화계에 던지는 화두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한국에서는 연재처를 못 찾는데, 해외에서는 상을 받아요. 위대한 작가는 어떤 작가인가, 돈이 안 되는 작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가, 단돈 100만 원도 못 쓰는 환경에서 작가 생활은 어떻게 영위될까, 이런 고민을 던집니다. 정책기관, 플랫폼과 만났을 때도 의식 변화에 대해서 제안하려고 해요. 독자들도 그런 만화들과의 경험이 적을 뿐이지 자주 보게 되면 어법과 매력에 분명히 탐닉할 수 있을 겁니다.”

윤태호 협회장은 작품이 어디에 실리느냐, 어떤 플랫폼이냐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자신의 세상이라고 하면 곤란

하다며 젊은 작가들에게 전하고픈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우리나라에서 12년(초등·중·고등학교 교육)간 집단 교육을 받으며 얻은 것들을 좋아하는 것일 뿐이죠. 외국에 가면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작가들은 스스로가 세계인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세계화’가 안 된다면, 인간의 보편성을 탐구하지 않는다면, 도태될 겁니다.”

#### 작품은 성취욕과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완성된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문제의 본질을 포착한 ‘질문’을 많이 던졌다. ‘질문하기’의 맨 처음 대상은 ‘자기 자신’이었다. “남이 원하는 걸 할 수는 없습니다. 허겁지겁 쫓아가는 거니까. 창작자는 자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취동기와 목표가 뚜렷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12년간 공교육을



받으며 ‘집합적으로 가능한 다수의 이익’이 나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생기는데, 그것이 나에게 부합했는가에 대해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죠. 창작자는 무엇보다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추구하는 것을 알기 위해 지극한 노력을 해보면 자신의 그릇, 즉 견적이 나옵니다. 나는 인내심이 이 정도더라, 몇 시간 버티더라, 나는 디테일에 강하더라, 테마에 강하더라 등등. 그러면 일본만화를 따라 디테일이 뛰어난 작품이 유행할 때 취재에 열 올리고 정보 나열하는 만화를 그리는 일은 없겠죠.”

윤태호 협회장은 자신을 ‘욕망 덩어리’라고 칭했다. 그래서 욕망이 멀리 있을 때, 잠잘 때만 행복하단다. 그만큼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는 뜻이다. <미생>을 그릴 적에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지만, 제대로 묘사해서 오히려 그 사회에 속한 이들이 감정이입하게 만들자’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의 힘은 창작물 속 등장인물로 확대된다. “내면의 수십 겹의 생각과 태도의 결, 그리고 삶의 철학에서 어떤 지점을 끄집어내느냐에 따라 인물의 성격이 창조된다.”(<하고 싶은 일 해, 굶지 않아> 중) 그리고 이것은 창작으로 이어진다.

<이강>의 이장 캐릭터가 지닌 입체성도 질문의 힘에서 비롯됐다. “이장의 욕망은 뭘까, 더 큰 부자일까? 이장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주인공 아버지와 싸움을 하나일까, 욕망이 구체적으로 뭘까, 돈을 많이 벌자는 건가, 명성을 얻자는 건가? 그렇게 구체화시키다 보면 욕망이 상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머릿속으로 ‘탐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등장인물 자체를 현실화하는 과정이다.

<내부자들>의 논설위원도 마찬가지였다. “논설위원은 걸은 이해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복무할까, 누군가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가’라고 계속 물었죠. 이 사람이 어떤 토대에 서 있는지를 알게 되면 정체가 분명해지고, 그러면 대사가 달라지고 캐릭터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캐릭터가 구체화된 그림이 나오는 거죠. 꼼꼼하게 그린다는 말이 아니라 인물이 내뿜는 대사와

표정이 입체감을 띤다는 말이에요.” 그의 작품 속 ‘역대급’ 캐릭터들은 모두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했다.

### 새로운 것을 향한 끝없는 시도

“테마인가, 디테일인가.” 작품 스타일을 묻는 질문에 윤태호 협회장은 ‘테마형’이라고 답했다. 테마가 해결이 되면 디테일로 이어지지만, 테마를 못 잡으면 진도가 안 나간단다. <미생>의 경우 테마가 안 정해져서 2년 동안 묵힌 작품이다. 바둑 기사가 인생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기획을 제안받고 고민하다가 ‘프로바둑을 목표로 살아온 청년이 회사에 들어가 겪는 일’이라는 테마로 변경했다. 그리고 나니 디테일을 짜는 일이 따라왔다.

“종합상사, 일반회사, 광고회사 직원 3명을 한 달에 3~4번 만나서 9시간씩 이야기했어요. 그냥 계속 이야기만 한 건 아니고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면서. 대사를 쓸 때 단어가 해결되지 않으면 출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화를 걸어 묻기도 했죠.”

물론 에피소드는 그의 머릿속에서 나왔다. 실질적인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검토를 받았고, ‘무리인 것 같다’는 에피소드도 꼭 쓰고 싶을 때는 조언을 받아 고쳐나갔다. <미생>에서 요르단 중고차 에피소드가 그랬다. 그 에피소드는 극중 장그래가 회사 내 반대를 무릅쓰고 계약을 성사시키는 사건으로 장그래가 적을 만들지만 성과도 얻는, 극중 중요한 부분이었다. “어느 팀의 비리가 적발된 사업을 다른 팀이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더군요. 하지만 장그래로서는 해볼 만한 것으로 느껴졌고, ‘사람이 죄지, 일이 피해를 보면 되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품에 넣었죠.”

윤태호 협회장은 젊은 작가들에게 했던 ‘넓은 시야’ 이야기를 자신에게도 엄격하게 적용한다. 그의 이러한 작가적 포부는 그가 구상하는 새로운 교양만화사업 ‘오리진’에 녹아 있다. 올해 상반기에 4~6권이 먼저 나오는데, 4월에 1차분이 나온다. 책이 나오면서 만화를 연재하는 플랫폼도 함께 선보이게 된다. “제가 지금 해봤자 몇 작품을 더하겠어요. 심지어 이 작품은 7년 프로젝트입니다.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이 일을 위해 요즘 읽는 책들도, 페이스북 포스팅도 과학 일색이다. 철학책, 문학책을 읽던 그가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몰입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작품들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감동까지 가는지, 감동이 있다면 어떤 포인트인지, 잘 받아들일 수 없다면 어떤 포인트인지 등에 대해서 전 지구적 독자를 대상으로 실험해보고 싶어요.”

‘완생’할 수 있는 돌을 일부러 ‘미생’으로 남겨두는 것 같다. 욕망덩어리 윤태호는 끝없는 ‘시도자’이자, ‘노력하는 자’이다.

글 구들래, 한겨레신문 문화부 기자 사진 백종현

광장극장 '블랙텐트'  
극장장 이해성

극장이  
돌아왔다

지난 1월 7일,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광화문광장의 한가운데에 검은색 천막이 들어섰다. 이름하여 광장극장 '블랙텐트'. 블랙리스트 작성과 예술 검열로 빼앗긴 공공의 극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세운,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극장이다. 블랙텐트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극장장이자 극단 고래 대표인 이해성 연출가를 만났다.



“빼앗긴 극장, 여기 다시 세우다”라는 문구가 쓰인 현수막이 인상적이다. 블랙텐트의 의미와 취지에 대해 설명해주었으면 한다.

언제부터인가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극장에서 동시대 공통받는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됐다. 위안부,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해고 노동자 등을 공공극장에서 이야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동시대 공동체의 삶에 대한 사유와 성찰이 불가능한 이런 현실이 바로 극장을 빼앗긴 것과 다름없게 느껴졌다. 블랙텐트에는 문화예술인의 힘으로 시민들과 함께 극장을 세우고, 극장의 공공성을 되찾자는 의미가 담

겨 있다. 정부가 배제했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담은 공연들을 지난 1월부터 매주 한 작품씩 올리고 있다.

광장에 극장을 세우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됐나?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문화예술인들의 캠핑촌에 지난해 12월 입소했다.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인들이 현 시국을 비판하며 자신의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지만, 연극은 장르의 특성상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러던 중 캠핑촌에서 만난 송경동 시인에게 천막 극장이라도 있으면 연극인들도 무언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송경동 시인이 직접 지방에서 검은색의 커다란 천막을 구해 왔다. 다음날 바로 극



장을 세우기 시작했고, 운영위원회를 꾸려 시즌 1 공연에 돌입했다.

블랙텐트의 첫 작품으로 본인이 쓰고 연출한 극단 고래의 <빨간시>를 올렸다. 광장 한복판에서 연극을 직접 연출해 본 느낌이 어땠나?

연극은 기본적으로 컴컴하고 조용한 블랙박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콘텐츠다. 한데 블랙텐트라는 공간은 벽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음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다. 출구도 열려 있고, 빛도 들어온다. 광장 한가운데에서의 공연은 처

음이라 초기에는 이러한 환경이 제약으로만 여겨졌다. 하지만 점차 벽이 없는 공간에서 나오는 묘한 힘을 느낄 수 있었다. 배우들은 환경을 극복하고자 더욱 집중해서 에너지를 쏟아 연기하고, 관객들도 더욱 연극에 몰입하려고 노력한다. 배우와 관객이 만나는 점점이 가까워졌다고 할까. 기존 극장의 온도보다 더욱 뜨거워진 느낌이다.

블랙텐트 무대에 오르는 작품들을 선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10인의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거쳐 프로그래밍한다. 정치적, 사회적 소재로 규정하거나 고집하는 건 아니고 작품의 완성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광장이라는 공간의 의미를 더하게 하는 작품이라면 더할 나위 없고, 공공성이



라는 블랙텐트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공모를 실시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한데 1~2주 안에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작품을 찾다 보니 기존 공연작에서 찾게 되는 한계가 있다. 개관 기념작으로 내 작품을 올린 것도 그런 이유가 컸다.

현재 시즌 2 공연이 진행 중이다. 블랙텐트 무대에 선보인 대표작들을 소개해 달라.

시즌 1 때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성 상납 피해자 연예인을 소재로 한 <빨간시>에 이어 세월호 가족들이 직접 무대에 선 <그와 그녀의 옷장>이 무대에 올랐다. 시민들로부터 위로를 받은 세월호 가족들이 역으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준비한 무대였다. 2월에 시작된 시즌 2의 첫 작품은 이윤택 연출의 <씻김>이었는데, 씻김굿을 중심으로 한 진도 민중들의 개인사를 한국의 근현대사로 수용하면서 남도의 소리로 녹여낸 작품이다.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장소가 진도이다 보니 블랙텐트라는 무대가 더욱 특별했던 것 같다. 본 공연 전에 세월호 분향소를 거치는 길 님이 행사를 하며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공연의 의미를 가미했다.

블랙텐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 아무래도 운영비가 가장 큰 걸림돌일 것 같다. 어떻게 충당하고 있나?

무료로 진행되는 공연이라 입장료 수익은 전혀 없고, 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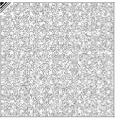


- 1 극단 드림플레이 테제21의 <검열언어의 정치학: 두 개의 국민>(김재업 연출).
- 2 연희단거리패의 <씻김>(이윤택 연출).
- 3 마임이스트들의 <마임> 공연.

들의 자율적인 기부로 운영된다. 공연이 끝난 후 관람객들로부터 모금을 받고, 후원 계좌도 개설되어 있다. 공공극장이라는 취지를 살려 운영 자금도 시민과 함께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많은 시민들이 블랙텐트의 주인이 되어 달라는 우리의 취지를 이해하고 크고 작은 도움을 주고 있다.

정부가 만든 블랙리스트에 대해 많은 연극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연극으로 맞서고 있다. 블랙리스트 이전과 이후, 연극계의 변화가 느껴지는지 궁금하다.

중도 성향의 연극인들을 진보적인 성향으로 만든 것 같다. (웃음) 연극계 내



부에서 검열과 예술의 공공성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과연 공적 지원금을 받을 만한 예술 작품을 생산해내고 있었던 것인가' 하는 고민도 생겼다. 검열과 전체주의 등 사회의 민감한 문제들을 다룬 연극 작품들을 더욱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문화예술은 아무래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문화예술과 정치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의한다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전 세계 문화예술계에서 통용되는 슬로건이다. 딱 이 문장대로만 되면 좋겠다. 문화예술은 상업적 가치를 따지지 않는 장르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는 선진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연극은 특히나 인풋(input)에 비해 아웃풋(output)이 현저히 적다. 때문에 국가적인 지원이 무조건 필요하다. 지원은 하되, 검열을 비롯한 그 어떠한 간섭도 하지 말아야 한다. 예술 행위를 평가하는 주체는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에게는 논쟁을 예단할 자격이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예술을 지원했다면 국민에게 예술을 향유할 자유와 권리를 주는 게 맞다.

연극인으로서 다음 정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정부에게 잘 먹고 잘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실 제작비라도 고민하지 않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좋겠다. 무엇보다 개인의 탐욕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

현 정권이 퇴진할 때까지 블랙텐트에서의 공연은 계속되고 들었다. 3월에 시작될 시즌 3는 어떻게 계획되고 있나?

현재로서는 시즌 3는 생각하고 있지도,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웃음) 탄핵이 결정되어 블랙텐트가 문을 닫을 경우

공연을 준비한 단체에게 너무 미안할 것 같다. 분명한 것은 블랙텐트에서의 공연은 대통령 퇴진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그 점만은 확실하다.

현 정권의 퇴진 이후 블랙텐트가 문을 닫더라도, 블랙텐트와 같은 움직임이 문화예술계에서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나?

요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내부에서는 원래 계획대로 블랙텐트를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광화문광장에서 사라지더라도 어딘가에서 다시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블랙텐트의 미래를 위해, 그러한 담론을 활성화해 사회적인 목소리를 들어볼 생각이다. 블랙텐트의 정신은 연극계를 넘어 우리 문화예술계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본다. 때문에 현재의 모습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블랙텐트의 정신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블랙텐트에서의 공연을 보러 오는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마디 부탁한다.

블랙텐트의 공연을 통해 사회가 예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봤으면 한다. 광장에 극장이 들어선 이유를 생각해보고, 연극인들이 주장하는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검열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얼마나 큰 범죄인지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공연 자체를 재미있게 관람하고 가는 것만으로도 극장장으로서 충분히 만족스럽다.

블랙텐트 이후, 극단 고래의 대표로서 선보일 작품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줬으면 한다.

광화문광장 캠핑촌에서 두 달 넘게 생활하면서, 이 사회에 가해지는 고통을 더욱 깊이 사유하게 됐다. 그로 인한 소재도 알게 모르게 얻게 됐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어떤 모습으로든 앞으로의 작품에 드러날 것 같다. 극단 고래는 1년에 두 편의 정기공연을 올리고 있는데 올해의 첫 번째 작품은 <불량청년>이라는 재공연 작품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작품은 우리 사회에서 제도적인 장치로 인해 일어나는 폭력에 관한 신작이 될 것 같다. 추운 날씨에 광화문 광장에서 생활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묘한 만족감까지 느끼고 있다. 그동안 일관되게 작업해왔던 것처럼 소외된 상처와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장지영

주요 공공극장의 시즌 프로그램

## 극장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담은 시즌제

공연장이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전체 프로그램을 미리 공개하는 시즌제는 극장과 관객 모두에게 유용하다. 극장의 입장에서는 사전 예매를 통해 안정적 관객 확보가 가능하며, 관객으로서는 폭넓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고 합리적인 예술 소비가 가능하다. 이미 시즌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주요 공공극장들은 저마다의 실정과 정체성을 반영한 시즌제를 만들어가고 있다. 서로 다른 개성을 지닌 공공극장의 시즌제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 장지영, 국민일보 문화부 차장  
토론 이양희, 국립극장 공연기획팀장  
오정화, 세종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장  
우연, 남산예술센터 극장장  
일시 2017년 2월 10일 오후 4:30~6:30  
장소 서울연극센터 2층 아카데미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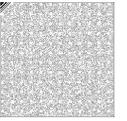
우연



이양희



오정화



최근 남산예술센터를 마지막으로 서울에 있는 주요 공공극장들이 모두 시즌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작년 말과 올해 초 탄핵정국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술가들이 광화문에 임시 공공극장 '블랙텐트'까지 친 상황에서, 과연 공공극장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국립극장은 외국처럼 2016-2017시즌이고, 세종문화회관은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이고, 남산예술센터는 3월부터 연말까지로 기간이 조금씩 다른데요. 각각 시즌의 특징과 그동안 시즌을 해오면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 것 같아요. 국립극장은 예전에 잠깐 시도했다가 최근 가장 활발하게 시즌제를 부활시켰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양희** 국립극장의 시즌제는 2012년 안호상 극장장님이 부임하면서 국립극장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 조건을 바탕으로 극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관객들을 찾아오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국립극장은 전통공연예술을 하는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 3개 전속단체가 있고,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해오름, 달오름, KB하늘, 별오름이라는 대·중·소 4개의 극장이 있습니다. 다른 극장과 달리 자체적으로 무대장치제작이 가능한 인력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제작극장으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8월 말에 시작해서 다음해 7월 초까지 약 10개월간 이어지는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즌 프로그램은 3개 전속단체 작품들을 중심으로 국립극장 마당놀이, NT Live와 같은 국립극장 기획·제작공연들, 그리고 국립예술단체(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극단 등)들의 우수공연들로 구성합니다.

2012년 9월 첫 시즌을 시작해서 현재 다섯 번째 시즌인 2016-2017 시즌을 진행 중인데, 시즌이 거듭될수록 국립극장 전속단체의 작품들이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레퍼토리 시즌제를 통해 국립극장의 부활이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극장의 브랜드 가치와 정체성이 재정립됐고, 내용적으로도 전속단체의 제작 역량이나 극장의 기획 역량, 운영 노하우 등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시즌 관객 수나 유료 점유율 등 양적 상승은 물론 충성 관객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향연> 같은 경우, 전통춤으로 4회를 매진시키면서 제일 핫한 극장이 된 것 같아요. 세종문화회관도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었다가 공연계를 잘 아는 이승엽 사장님이 오고 나서 외부의 기대가 큼니다. 작년 시즌제를 시작으로 관객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오정화** 공연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콘텐츠이기 때문에,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2016년에 시즌제를 도입한 것은 공연장의 연간 프로그램을 미리 보여줄 수 있는 안정적인 제작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였거든요. 특히 저희는 전속예술단체가 9개로 많다 보니 예술단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사전에 준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어요. 패키지를 만들어서 고객들이 미리 구매할 수 있게끔 마케팅을 했고요.

올해는 전체적인 프레임은 어느 정도 안정되었으니 마케팅을 좀 더 하고 우수 콘텐츠를 보여주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패키지 종류가 22종으로 많았는데, 올해는 13종으로 줄여서 한정 판매하고 가격도 내렸어요. 창작 작품도 제작진을 미리 섭외해 기획의도를 담을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우연 극장장님은 남산예술센터에 오셔서 방향성을 잡은 부분과 지난 1년간의 성과, 시즌 프로그램을 짜는 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연** 남산예술센터는 단관극장이고 전속단체나 상주단체가 없기 때문에 제작극장이라는 정체성을 띠고 있지만, 현장에 있는 연극단체와 공동 제작하는 시스템입니다. 자체제작을 할 때는 극장에 선택권이 있지만 남산예술센터의 경우 현장 연극인들과 공동의 선택을 하는 구조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다른 공공극장과는 다른 중요한 특성인데요. 저는 작품에 대한 권리적 측면이나 미학적 선택에 있어서 합의나 공동의 생각을 담을 수 있다는 걸 긍정적인 점으로 봤어요. 즉 10개 프로그램이면 10개 단체와 협업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전속단체와 일하는 것과 다르게 현장 체감도가 훨씬 큰 극장인 셈이죠. 작년에 현장 연극인들이 갖고 있던 문제의식이나 결핍이 남산예술센터로 가장 많이 풀렸던 이유는, 바로 이런 공동제작 시스템 때문이에요.

저희는 시즌제를 거창하게 내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1년 동안 제작되는 작품들을 연초에 발표해서 한 극장이 지닌 시즌 프로그램의

“레퍼토리 시즌제를 통해 국립극장의 부활이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극장의 브랜드 가치와 정체성이 재정립됐습니다.”

이양희 국립극장 공연기획팀장

큰 방향성을 보여주고자 하고 있고요. 현장 민간극단들과의 공동제작시스템을 잘 수용하는 것이 이 극장의 미션 같아요. 그것이 2016년, 2017년 시즌 프로그램에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극장의 정체성, 공공극장의 미션에 대한 생각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국립극장은 전통을 기반으로 한 컨템퍼러리 극장인데요. 특히 무용 같은 경우는 무용계와의 갈등 내지 서로 동의하지 않는 지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이양희** 국립극장의 가장 큰 미션은 전통에 기반을 둔 동시대적 예술을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국립극장 산하에 있던 전속단체들 중 상대적으로 자생력이 있는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등 5개 예술단체들은 순차적으로 재단법인으로 독립을 했고, 현재는 공적인 지원이 필요한 전통공연예술을 하는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만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국립극장은 이 전통이 박제된 것이 아니라 지금의 관객들과 만나면서 동시대의 공연예술로 생명력을 가지고 발전해나가고자 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즌제를 도입하면서 각 단체별로 제작방향을 설정했는데요. 국립창극단은 다양한 장르의 국내외 연출자들과의 작업을 통해 판소리 다섯 바탕과 유실된 판소리 일곱 바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서양고전, 영화 등을 창극화하면서 창극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무용단은 전통무용을 기반으로 동시대 한국무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작업을 지속해오고 있고, 국립국악관현악단은 우수 국악창작곡 개발을 통한 다양한 연주 레퍼토리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속단체별 제작방향을 지금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실 국립극장의 방향성에 대해 모두로부터 동의를 얻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극장과 공연의 가장 큰 힘은 결국 관객이라고 생각해요. 공연을 가장 정확하게 냉정하게 보는 분들이거든요. 전통의 동시대화에 대한 찬반양론이 있겠지만 결국 극장의 기본은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드는 것이고, 이를 지금 사회와 관객들이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그 폭발력이 달라지겠죠.

세종문화회관은 산하단체가 많은데 공연 횟수는 국립극장에 비해 많지 않거든요. 최근에는 생활예술 쪽에 강하고 전속단체의 홈그라운드 역할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정화** 세종문화회관은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존재 이유로

시작했고요. 공연 쪽 전문 CEO가 오시면서 시민이 자랑할 수 있는 예술명소로 만드는 것을 극장의 정체성으로 보고 있어요. 다양한 장르가 있기 때문에 공연장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요. 저희는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이다보니 ‘관객’보다는 ‘시민’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전에는 생활예술을 많이 부각했다면, 작년에 시즌제를 도입하면서 예술의 전문성으로 강조점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프로듀서 세종’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자체 공연의 비중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이양희** 저희도 시즌제를 도입하기 전에는 대관이 중심이었고, 전속단체 작품은 1년에 2~3편 정도였어요. 지금은 극장이 전속단체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공연 편수와 횟수가 모두 늘어났습니다. 시즌제를 도입하고 제작극장으로 변모하면서 시스템을 바꾼 거죠. 시즌제에 맞는 제작시스템을 만들고 작품 편수를 늘리기까지는 극장과 전속단체가 서로를 설득하고 동의를 거치는 힘들고 지난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정화** 시즌제를 도입해서 전속단체들이 거기에 따라올 수 있게끔 만들어갔어요. 예술단체와의 공생과 진화의 과정으로 시즌제를 도입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연** 해외의 극장은 상주하거나 전속해 있는 단체와 한 몸으로 운영되는 구조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몸으로 극단과 단체를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은 따로 움직이는 듯한 독특한 역사였죠. 지금처럼 점점 융화되어 인적 인프라와 하드웨어가 같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된 것은 긍정적인 변화예요.

**장지영** 우리나라는 공공극장부터 생긴 게 아니라 공공단체부터 생겼어요. 국립극단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 국립극장이 생겼지만 그 공간도 국립극단 혼자 쓰는 게 아니었어요. 서양은 처음부터 극장 중심의 시스템이 발전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민간, 극단 위주로 하다 보니 아직 극장 시스템이 자리 잡지 못한 부분이 있죠.

**이양희** 저희는 전통기반이라는 것을 빼면 성격이 완전히 다른 3개 단체의 제작공연을 중심으로 시즌을 운영하는 것이니, 해외에서 봤을 때도 독특한 시스템일 거예요.

**장지영** 한국은 공공예술단체 단원들이 공무원처럼 계약되어 있잖아요. 예술 장르마다 예술가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나이가 따로 있거든요. 파리 오페라 발레(Opéra national de Paris)는 정년이 42세예요. 이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한국은 공공극장이라는 안정된 직장을 잃어버린 이후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니 공공예술



단체가 화석화된 부분이 있지요.

**이양희** 단원 분들도 새로 기관장이 오실 때마다 다양한 과정을 겪으면서 상처를 많이 받아왔고, 때문에 기본적인 불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도 시즌제 도입 이후 작품 일정이나 제작방식 등을 두고 계속 부딪쳐왔는데, 지금은 단원들과 극장 간에 신뢰감이 생긴 것 자체가 큰 성과 중 하나예요. 시즌제 도입 초반만 해도 다양한 불만을 제기하셨고 작품수가 많다고 힘들어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 시즌에 메인 공연만 6~7개 작품이 되는데도, 괜찮다고 더해도 된다고 하실 정도로 많이 변화가 되었어요.

남산예술센터는 전속단체가 없긴 하지만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작업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연** 남산은 연극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극장이잖아요. 1962년부터 계속 있던 극장(드라마센터)이고, 2009년 개관 당시 젊은 현장 연극인들이 제작할 수 있는 극장으로서 미션을 띠는 것이 중요했어요. 저희는 동시대 창작 연극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 '창작 초연 중심의 제작극장'이 제일 중요한 모토인데요. 제작시스템의 경우 초연은 위험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공공극장에서도 위험률이 높은 것은 안 하고 싶은 경우가 많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공공성이라고 생각해요. 위험을 같이 감수하려고 할 때 반드시 상업적 수익, 환원되는 부가가치만을 계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극단 중에 중요한 동시대 주제를 발굴하는 극단들과 공동으로 협

력해서 제작한다는 것은 초연의 위험을 극장이 함께 감수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전속단체를 갖고 운영시스템을 만드는 것과 민간단체와의 협업으로 제작극장을 운영하는 것 사이에는 극장이라는 공공 자산을 어떻게 공유하고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극장 하드웨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국립극장은 해오름극장 리모델링 기간 동안의 계획을 이야기해주시면 좋겠고요. 세종은 올해 말 소극장 블랙박스 오픈을 기대하고 있어요. 남산예술센터의 경우 지금 의미 있는 극장이긴 한데 관객 입장에서 편의시설도 그렇고 아쉬움이 많은 상황이에요.

**이양희** 해오름극장 리모델링은 올해 12월부터 들어가는데요. 내부 철거작업이 진행되는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달오름극장도 사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즌제가 잘 안착된 상황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크게 3가지로 방향을 잡고 있어요. 우선은 새로운 관객을 만날 수 있는 극장으로 적극 진출해서 각 단체별 대표 레퍼토리 공연을 선보이려고 합니다. 신작의 경우 지역 거점 극장들과 제작·마케팅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공동제작 형태를 시도해보려고 하고요, 지방과 해외투어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인 극장을 2년 정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시즌 프로그램 구성이나 공연 일정을 정하는 데 제약이 많아져서 2017-2018 시즌과 2018-2019 시즌을

동시에 구성하고 있어요. 현재 서울은 2018년에 전속단체별로 한 작품씩 공연하는 것으로, 예술의전당만 대관을 확정한 상황이고 나머지는 이야기 중입니다.

**오정화** 블랙박스는 12월 오픈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시즌제를 준비하면서 TF를 구성했던 것처럼 블랙박스도 개관 전 공연과 같은 단계를 거쳐 리뷰를 하고 정체성을 만들어가려고 해요. 대극장은 규모가 커서 장르적 제한이 있고 M씨어터도 관객과 밀착할 수 있는 공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블랙박스는 300석 규모니 좀 더 동시대적인 작품들과 연극, 무용 등을 선보일 수 있는 실험극장 형태로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세종에 소속된 예술단도 작은 규모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게 되었고 소규모의 민간 예술단도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공연을 하면서 더 많은 관객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될 겁니다.

**우연** 남산예술센터는 서울시와 서울예대 동랑예술원과 맺은 임대계약이 계속 연장되다 보니 극장 자체에 정체성과 운영 논리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민간 부동산이라서 5년, 10년 계속 갈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극장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연극이나 관객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단지 계약자간의 문제만 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제작극장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연극계 의견도 있고요. 저희는 위탁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 주체인 서울시와 동랑예술원에서 남산예술센터의 변화나 공공재로서 확대된 역할을 같이 인지해주면서 긍정적인 협의를 해주길 바라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지난 시즌 극장의 성과와 함께 올 시즌의 특징과 내세울 점도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희** 시즌제는 결국 극장이 공연을 관객에게 선보이는 방식의 하나인데, 관객과 아주 긴 약속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관객은 연출자, 출연자, 안무자, 작품 내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이에 대한 기대와 신뢰로 하나의 공연을 선택하는데요, 시즌제는 그것을 넘어서 극장 자체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10개월간의 공연 프로그램을 미리 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공연콘텐츠는 물론이고, 기획제작, 홍보, 무대, 하우스 운영, 티켓 등 극장의 모든 부분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사실 시즌제 도입 초반엔 우려곡절이 많았습니다. 이미 티켓

“이전에는 생활예술을 많이 부각했다면, 작년에 시즌제를 도입하면서 예술의 전문성으로 강조점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체 공연의 비중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오정화** 세종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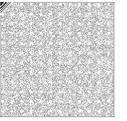
오픈을 하고 예매가 한창 진행 중인데 예상치 못한 변수로 예매 관객들에게 좌석변경 요청을 한다든가 하는... 극장 전체적으로 노후가 쌓이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국립극장 레퍼토리 시즌이 이제는 관객들과의 긴 약속을 지키고, 또 기대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레퍼토리 시즌을 통해 선보였던 국립창극단과 국립무용단의 작품들이 해외 주요 극장과 축제에 본격적인 진출을 시작한 것도 지난 시즌의 성과입니다.

**장지영** 시즌제를 한다는 것은 패키지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거잖아요. 프랑스 같은 해외의 경우 패키지 티켓이 80%까지 나가니까 신규 관객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한 작품의 공연기간을 늘리고 패키지 비율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요즘 잘 나가는 극장들의 목표더라고요.

**이양희** 예전에 독일 어느 극장의 대표가 어떤 상황에도 무조건 매진시킬 수 있는 레퍼토리를 10개만 보유하면 시즌제를 연중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어요. 국립극장 객석 규모를 고려하면 이런 레퍼토리를 30개 정도 보유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런 안정적인 레퍼토리는 관객 입장에서 다시 보고 싶은 정도의 신작이 일단 나오고 재공연을 거치면서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레퍼토리 작품들 간의 다양성과 차별화도 필요하고요.

2016-2017시즌 하반기 공연 중에서 기대하는 작품은 무엇인가요.

**이양희** 가장 기대하는 신작은 고선웅 연출의 창극 <홍보씨>예요. 놀보와 홍보의 출생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홍부전>의 허를 찌르는 작품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변강쇠 점 찍고 옹녀>를 넘어서는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정치와 예술을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고, 현대 사회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사회에 민감한 축수를 갖고 있는 극장이 있어야만 예술이 시대를 움직이는 동력이 될 수 있어요.”  
우연 남산예술센터 극장장

오정화 저희가 기대하는 작품은 헨릭 입센의 <왕위주장자들> 한국 초연입니다. 김광보 연출, 고연옥 각색으로 연습 중인데 3월 말부터 공연을 시작합니다. 이미 시작된 대선 정국과 겹쳐서 사회적인 이슈와도 맞물릴 것 같아 화제가 되리라 예상합니다.

저희는 아직 시즌제의 걸음마 단계고요. 작년에는 48개의 공연을 선보였고 22종의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가장 많은 작품과 다양한 장르를 소개했습니다. 사전 프로그래밍을 했기 때문에 우수 콘텐츠와 제작진을 선점할 수 있었어요. 시즌제 단원으로 레퍼토리에 맞는 단원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게 작년 시즌의 성과라 생각하고요. 2016년은 세종문화회관 시즌의 틀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면, 2017년은 그 틀에 좀 더 좋은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2017년 3월부터 57개 공연을 선보이는 것으로 정리했어요. 폭넓은 스펙트럼은 자랑이자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대극장이 3,022석이기 때문에 패키지로 채우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작년 판매 매수 대비, 올해 300% 정도 판매율이 올라갔습니다.

남산예술센터 같은 경우 홍보마케팅은 크게 신경 안 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연 2016년에는 엄청나게 긴장했어요. 지금은 예술 검열이 표면화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알 수 없는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는 와중에 우리 프로그램에는 세월호, 청문회도 있고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도 있었어요. 이런 작업을 한다는 것이 의미 있다고 믿으면서도 이 프로그램들을 보여줄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 걱정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사랑을 많이 받았죠. 특별한 홍보마케팅 노력은 없었는데, 관객이 많았어요. 일단 화제가 되었고 논쟁적인 이슈들이었기 때문에 문화예술계의 관심이 컸고 관객들도 극장에 많이들 찾아오게 된 거죠. 게다가 연말에 와서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세상이 바뀌었던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극장

식구들과 협업 극단들이 갖는 감동은 엄청난 거예요. 저도 공연계에서 일을 많이 해온 사람이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를 경험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 많은 것을 배웠어요. ‘용감하게 무언가를 해야 할 때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같이했던 극단과도 대단히 많이 각별해진 거죠. 협업의 차원과 다르게 정서적으로도 극단과 난국을 같이 이겨가면서 잘해보자는 분위기가 되었거든요. 결국 제작환경이 위태롭거나 위함을 감수하려고 하면 할수록 작품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작년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도 너무 중요했어요. 극장 스태프들의 성장에 있어서도 중요했고, 같이했던 극단들과도 지금 만나면 이상하게 감동적이에요. 어떤 난국을 함께 헤쳐 나온 사이라는 각별한 느낌이 있는 거죠. ‘연극을 이래서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다들 경험하게 됐어요. 사실 2017년에도 이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 극장의 색깔 형성에 중요하고 그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연령층이 더 낮아졌고 조금 걱정되긴 하죠. 올해도 성소수자, 세월호, 예술 검열, 국가란 무엇인가, 심지어 박정희까지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는 작품들이 많은데요. 정치와 예술을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고, 현대사회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사회에 민감한 축수를 갖고 있는 극장이 있어야만 예술이 시대를 움직이는 동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역할을 하는 극장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도 시끄럽겠죠. 또 다른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극장이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각오하고 프로그래밍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양희 사실 3개 극장의 하드웨어적인 조건이 매우 달라요. 남산예술센터는 객석 규모와 극장의 구조에 특화된 시즌제를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고요. 국립극장은 한 시즌에만 운영하는 객석이 16만~17만 석 정도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시즌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극장마다 기본적인 조건에 차이가 있어서, 각 극장의 특성에 맞춰 시즌이 운영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극장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시즌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리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사진 최영진

1 서울시오페라단,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서울시극단, 서울시무용단,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서울시청소년국악단,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단, 서울시합창단, 서울시뮤지컬단

수중사진작가 와이진

# 깊고 푸른 미지의 세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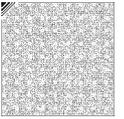
수중촬영은 작품이 주는 이미지처럼 마냥 신비롭고 아름답지만은 않다. 한국 여성 최초로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이버 자격증을 보유한 사진작가 와이진은 오늘도 차가운 물속 어딘가에서 카메라와 함께 눈부시게 아름다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1 &lt;WISH&gt;.

2 &lt;Lost way Princess&gt;.





‘대한민국 최초’라는 수식어와 함께 프로페셔널 수중사진작가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10년이 됐다. 이름 앞에 붙는 ‘유일한’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좀 외롭기도 하다. 수중사진작가란 사진 기술 습득 외에도 특수한 훈련과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직업이기에 그 길이 녹록지 않다.

나는 원래 상업사진작가였다. 디자인을 전공하고 패션계와 방송계에서 일했으며, 그때의 귀한 인연으로 사진작가의 길에 들어섰다. 드라마 포스터, 영화 포스터, 앨범 재킷, 화보 등의 작업을 이어가다 한순간의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수중사진에 뛰어 들었다.

### 사진 찍으며 지구 반 바퀴

1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는 수중사진이라는 분야가 전혀 발달하지 않은 상태였다. 배우고 체험하기 위해 해외 수중사진작가들을 직접 찾아다니야 했다. 그렇게 쉽 없이 지구 반 바퀴를 돌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다. 열정과 노력으로 실력을 쌓아가며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사진작가들의 제자로 실력을 인정받았고, 나아가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이후 한국에서는 2010년 드라마 <산부인과>의 포스터를 시작으로 프로페셔널 수중사진가 활동을 시작했다.

수중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먼저 물속에서 내 몸이 지상에서만만큼 안정적이고 자유로워야 한다. 때문에 꽤 오랜 시간 수중사진 기술을 연습했고, 그 이상의 노력으로 스쿠버다이빙 기술을 연마했다. 그렇게 물에 대해 알아가고 바다와 강의 생태계, 자연을 공부하면서 우주인처럼 무중력 상태에서 중심을 잡고 안정적인 촬영을 할 수 있게 됐다.

스쿠버다이빙 기술과 안전을 교육받던 중 지인의 소개로 2008년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이브 과정에 참가할 수 있었다. 이 과정을 수료한 후 오랜 사진 심사와 서류 심사를 거쳐 2010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코리아와 단독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그렇게 나는 미지의 수중사진 분야에서 모험과 탐험을 하며 상업사진과 다큐멘터리를 오가는 수중사진작가가 되었다.

### 5개의 수중촬영 프로젝트

수중촬영은 많은 스태프가 함께하는 작업이다. 수중촬영 시 가장 중요한 점은 물속에서 함께하는 모델과 스태프의 안전이다. 그래서 나는 좀 더 탄탄하고 안전한 팀을 구성하기 위해 스쿠버다이빙 훈련을

계을리하지 않았다. 어느덧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길러 미국 스쿠버전문단체인 SDI TDI 소속의 다이빙 강사가 되었다. 현재 내셔널 지오그래픽 수중사진작가로서 경험하고 모험한 것을 전 세계를 돌며 강연하고, 각종 한국 드라마·영화의 수중촬영 기술을 도우며 수중사진작가와 전문 수중모델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지금 우리 수중 촬영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모두 5개이다.

첫째는 5년 전부터 시작한 ‘해피해너’라는 프로젝트로 한국의 해너를 촬영하고 있다. 그 어떤 기관의 도움 없이 긴 시간 홀로 사비를 털어 진행해온 프로젝트다. 대한민국의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작가로서 지금 기록해두지 않으면 너무 늦을 것 같다는 생각에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 제주 해너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록되면서 한국에서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해피해너’ 프로젝트는 오는 4월 초 사진집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에 출간될 예정이다.

둘째는 수중촬영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 ‘Wonder Land’ 시리즈 프로젝트로, 올해로 8년째 매년 조금씩 촬영하고 있는 수중 파인아트다. 동화 속 이야기를 나름대로 재해석해 수중에서 표현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에 있어 나의 스승이자 오랜 친구가, 최근 한국에서도 전시를 마친 제나 할러웨이다.

셋째는 끊임없는 궁금증과 호기심으로 시작한 ‘I.D’, ‘CAVE’ 프로젝트로, 테크니컬 다이빙(technical diving)을 훈련받으며 심해를 탐험하고 수중동굴에서 촬영하기도 하는 위험한 특수 수중촬영이다. 수중동굴에서의 촬영을 위해 2년간 해외에서 수중동굴 탐사 훈련을 받고 이 과정에 대한 라이선스를 따기도 했다.

다른 2개의 프로젝트는 아직 미공개 상태이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나는 매달 각 프로젝트에 맞는 바다 환경과 기후를 갖춘 지역을 돌며 팀원들과 함께 촬영을 이어가고 있다. 요즘은 국내에서도 수중사진가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늘고 있으며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 앞으로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보다 나은 교육을 통해 의미 있는 수중사진계 아티스트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글: 사진 와인 내셔널 지오그래픽 수중사진작가 [www.yzinkim.com](http://www.yzinkim.com)

피가 되는 밥을 먹으리라  
떨떨 살아 튀는 밥을 먹으리라  
먹은 대로 개끗이 뭍을 위해 쓰이고  
먹은 대로 개끗이 힘이 되는 밥  
쓰일 데로 쓰인 힘은 다시 밥이 되리라  
살아 있는 노동의 밥이

백무산 시인의 <노동의 밥> 중에서





<더러운 잠> 전시 논란

## 우리 사회의 미성숙한 논쟁에 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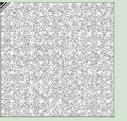
지난 1월 20일, 표창원 의원의 주최로 국회의 원회관에서 열린 <곰, BYE! 展>의 전시 작품 중 한 작품이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다. 바로 이구영 작가의 <더러운 잠>이다. 작가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해당 작품은 전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켰고, 작품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미성숙한 논쟁들이 한동안 계속됐다.

전시 이후 <더러운 잠>의 이구영 작가는 “여성 혐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격 모독”이라며 지탄을 받았고, 심지어 “국회와 국민과 여성을 모욕하고 성희롱한 작품”이라는 거센 비난과 함께 작품을 훼손하는 이도 있었다. 또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시를 도왔다는 이유로 표창원 의원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표적이 되어 곤란을 겪었다.

현 세태를 꼬집는 풍자화로 분류될 수 있는 <더러운 잠>이, 여성 혐오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논쟁거리가 되는 것도 모자라 작품이 파손되고 애꿎은 표창원 의원 가족을 등장시키는 각종 패러디물이 만들어지는 등의 극단적 대응으로 이어지는 지금의 현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 <더러운 잠> 속에 담긴 풍자 읽기

에두아르 마네(Edouard Manet)의 <올랭피아(Olympia)>(1863)에서 전체적인 구도를 차용하고, 박근혜의 목 아래 신체 부분은 조르조네(Giorgione)의 <잠자는 비너스(Sleeping Venus)>(1510)에 등장하는 여체 부분을 결합시킨 이구영 작가의 <더러운 잠>은 오브제들을 통해 작가의 의도를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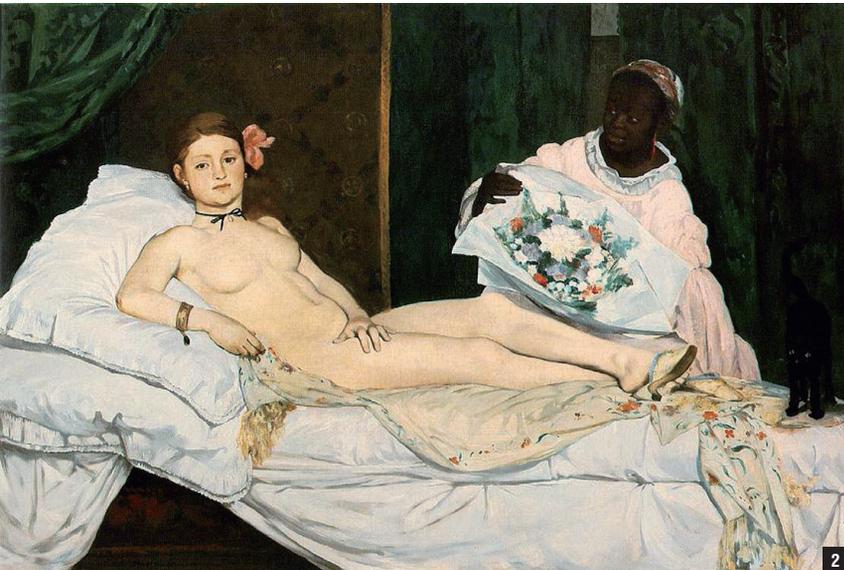
적으로 표현해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해당 작품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무기력하게 잠들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과 다소 거만한 듯하면서 공격적인 태도를 숨기지 않고 있는 최순실의 표정이다. 이 두 가지만 봐도 두 사람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데, 지배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림 속 '시녀'처럼 묘사된 최순실에 의해 꼭두각시처럼 조종당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 또한 작품 속 태극기에는 최순실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최순실이라는 한 개인에 의해 국가의 주요 사안들이 좌우될 수 있었음을 시사하며, 배경처럼 담긴 세월호 침몰 모습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침몰의 진실 또한 두 사람의 행적에 가려져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순실이 들고 있는 주사다발은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프로포폴 주사를 맞은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마취된 상태로 살아왔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더러운 잠>은 그 자체로 현 세태를 꼬집는 풍자화라 할 수 있다. 흑자의 주장처럼 '여성 비하'나 '모욕'을 조장하는 그림이라 보기는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체로 등장한 여체 부분이 실제 당사자의 누드도 아닐뿐더러, 공인에 대한 비판과 풍자는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회 의원회관'이라는 전시 장소를 문제 삼기도 하는데,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정치와 연관되는 것은 문제라는 것

- 1 이구영 작가의 <더러운 잠>.
- 2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
- 3 조르조네의 <잠자는 비너스>.



이다. 하지만 현 정치 세태를 풍자하는 작품들을 한데 모아 전시를 하는 데 있어, 장소가 또 하나의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일까.

### 다름을 인정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켜주는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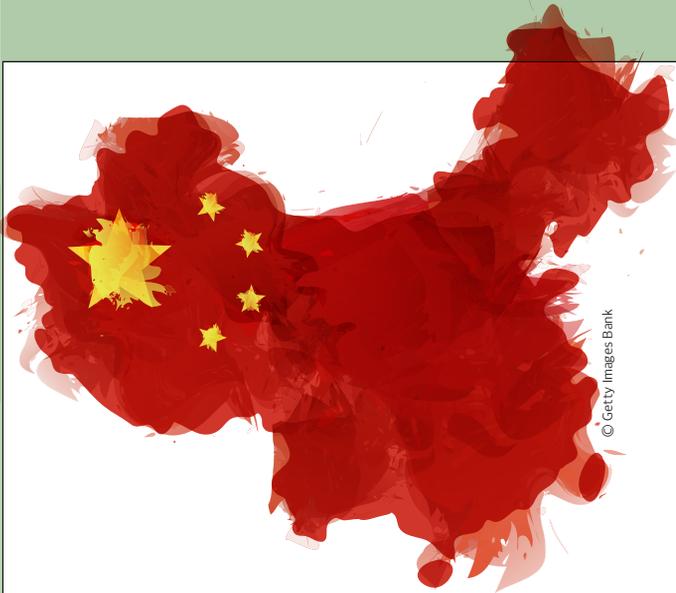
지난 2006년, 힐러리 클린턴의 누드 흉상이 뉴욕 섹스박물관에 전시됐다. 해당 흉상을 제작한 조각가 대니얼 에드워즈는 "힐러리의 나이와 여자다움을 포착하려 했다"며 작품 배경을 설명했고, 그는 힐러리를 성적 매력을 가진 여성으로 표현하고자 힐러리의 가슴을 내비친 모습 위에 꽃무늬를 새겨 놓기도 했다. 에드워즈의 작품이야말로 힐러리를 직접적으로 성적 대상화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이 경우 작품이 전시된 공간이 '섹스박물관'이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물론 이 작품 또한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잠시 논란이 되기는 했지만, 힐러리 측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고 해당 작품을 파손하는 이도 없었을 뿐 아니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지도 않았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특히 정치적인 이슈가 결합되면 작품을 작품 자체로 보지 않고 변질된 해석을 더해 본질에서 멀어진 논쟁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열린 태도가 아닌, 다양성을 수용하지 않는 태도와 예술가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때문이다.

흑자는 "한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기대하지 말라"고 했지만, 발전적 논의가 계속되고 국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면 차츰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그리 된다면 한국에서도 힐러리의 흉상처럼 여성 정치인을 직접적으로 성적 대상화한 작품도 하나의 예술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의 논란은 피할 수 없겠지만 말이다.

글 헬레나 유, 칼럼니스트, 번역가 사진 제공 한겨레





© Getty Images Bank

순수예술까지 확산된 '한한령'

## 국가 간 갈등에서 비롯된 한류의 위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에 대한 보복으로 불거진 중국 내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의 그림자가 대중문화에 이어 순수예술까지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최근 소프라노 조수미, 피아니스트 백건우 등 중국 현지에서의 클래식 식음악 공연이 취소되고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김지영의 현지 데뷔가 무산되자, 양국의 문화교류가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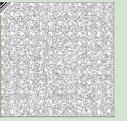


© 빈세로

1

### '차세대 한류'로 통하던 뮤지컬 진출 중단

대중적인 복합예술로 통하는 뮤지컬은 방송, K팝과 순수예술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중국 진출에 적극 나섰다. 한류스타를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내수시장 한계로 시름을 앓던 뮤지컬 분야에 있어 '차세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도 통했다. 뮤지컬의 중국 진출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연계의 큰손 CJ E&M이 중국과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현지 진출을 꾀했다. 이 회사가 상하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군소 뮤지컬 배급사가 지방을 돌면서 기대감이 부풀었다. 2015년 2월에는 안중근 의사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창작뮤지컬 <영웅>이 안 의사의 의거 현장인 하얼빈에서 공연을 성료하며 창작뮤지컬의 중국 진출에 새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이후 각종 통로로 뮤지컬 진출이 활발해졌다. 사드 관련 이상 징후가 감지된 건 지난해 8월, 한국 소극장 창작뮤지컬의 대표 격인 <빨래>가 중국 투어 진행 도중 막을 내리면서다. <빨래>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중국 클리어씨 홀딩스는 현지에서 홍보·마케팅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전해왔다. <투란도트>로 중국 진출에 앞장선 유희성 연출(현 한국뮤지컬협회 이사장)은 중국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 3개가 3주 만에 엎어지는 타격을 받기도 했다. 중국 진출을 타진하던 유명 미술사의 공연 역시 무산됐다. 어렵게 쌓아온 중국 내 뮤지컬 터전이 한순간에 허물어진 셈이다. 그러나 국립극단의 연극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이 지난해 10월 원작자 기군상의 나라인 중국에서 성료되는 등 순수예술에서는 이상 기류가 감지되지 않아 그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다.



### 순수예술에 영향을 미치는 한한령과 대안적 움직임

순수예술에 한한령 여파가 본격적으로 불어닥친 건 올해 1월 19일, 클래식 평론가 노먼 레브레히트가 운영하는 클래식음악 뉴스 사이트 ‘슬립드 디스크(Slipped Disc)’를 통해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다. 백건우는 오는 3월 18일 중국 구이저우성 구이양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할 예정이었다. 레브레히트는 파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백건우의 이번 비자 발급 거부 사건을 중요한 사안으로 봤다. 그는 “백건우는 2000년 9월 중국에서 공연을 위해 초청받은 첫 한국인 아티스트였다”며 “(이번 공연 취소는 사드에 따른) 지역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썼다.

이어 소프라노 조수미의 2월 중국 투어가 일방적인 취소 통보와 함께 무산되는가 하면 그녀의 공연 포디엄에 오를 예정이던 지휘자이자 마에스트로 정명훈의 아들인 정민 역시 중국인으로 교체되면서 순수예술에 한한령의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김지영 또한 오는 4월 중국 상하이발레단의 전막 발레 <백조의 호수> 출연에 대해 협의 중이었으나 이마저 불발되었다.

대중문화에 이어 순수예술까지 한한령의 영향을 받는 건 올해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은 양국의 관계가 심각하다는 걸 증명한다. 순수예술은 클래식으로 통한다. 클래식은 고전이다. 중국은 고전의 나라다. 고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인데, 이마저 통제하고 있는 셈이다. 조수미는 자신의 SNS에 “국가 간의 갈등이 순수문화예술 분야까지 개입되는 상황이라 안타까움이

크다”고 적었다.

문화는 갈등이 첨예한 나라 사이에서도 인간의 힘을 빌려 첨병 역할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현재 한국과 중국의 관계라면 요원하다. 한류가 문화교류를 이루어내기는커녕 역류가 돼 문화적 갈등까지 빚어내고 있다. 과연 대책은 없을까?

한국 콘텐츠의 중국 진출이 팍 막힌 상황에서도 국내에서 신드롬을 일으킨 드라마 <도깨비> 등 한국 방송의 불법 해적판이 중국에서 나돌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 한류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는 증거다.

뮤지컬에서는 라이선스가 돌파구다. <빨래>는 올해 하반기 중국 라이선스 공연이 예정되어 있으며, 한국과 브로드웨이 합작 프로덕션인 <지킬 앤 하이드>는 올해 여름 중국에서 중국어로 선보이기 위해 준비 중이다. 본 공연이 아닌 쇼케이스로 현지 진출을 타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지난해 중국에서 호응을 얻은 쇼케이스 <K뮤지컬 로드쇼>를 올해도 열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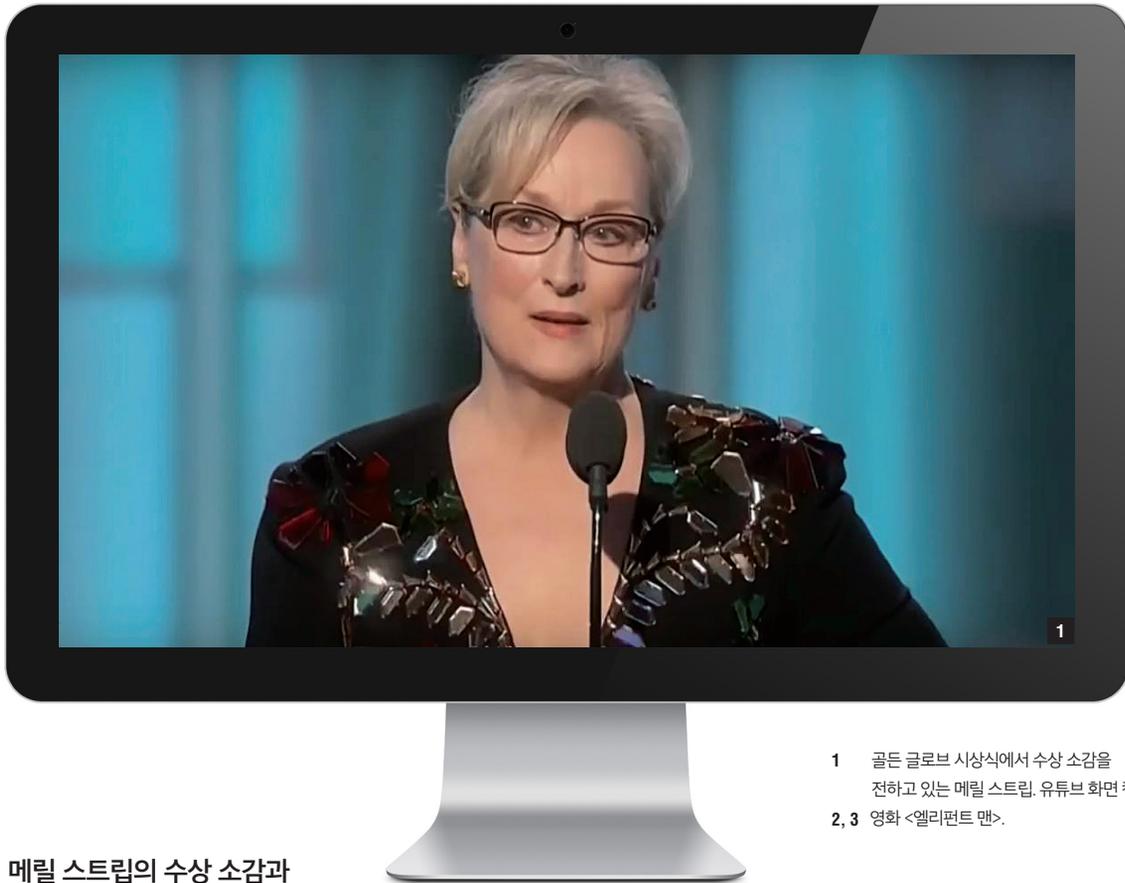
클래식 음악 역시 같은 노선을 고민 중이다. 한동안 뜸하던 일본 진출을 다시 꾀하는 등 한류를 다각화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인 것과 별개로 문화교류를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국이 이를 막는 건 오히려 자국문화를 후퇴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미국을 향해 제국주의적 대외정책을 비난하면서 한한령을 시행하는 건 중국이 사용한 용어를 빌려 쓰자면, ‘문화 패권주의’와 다를 바 없다.

글 이재훈. 뉴시스 문화부 기자



©국립발레단

- 1 피아니스트 백건우.
- 2 소프라노 조수미.
- 3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김지영.



메릴 스트립의 수상 소감과  
이 시대 문화예술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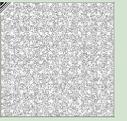
## 슬픔과 아픔이 예술로 승화될 때

미국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배우 메릴 스트립이 남긴 '소신 발언' 수상 소감이 화제다. 남성우월주의와 인종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매서운 일침은 많은 이의 마음을 움직였다. 다양성이 공격받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대착오적 상황에서 예술과 예술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근원적 질문을 던져야 할 때이다.

### 영화를 통해 얻은 용기와 위안

영국에서 좀 늦은 나이에 공부할 때 무척 외로웠다. 영화가 즐거움이자 위안이었다. 런던 도심에 있는 BFI 사우스뱅크를 주말마다 찾았다. BFI 사우스뱅크는 시네마테크다. 세계의 여러 고전영화나 최신 예술영화를 상영한다. 이곳에 들렀다 하면 두세 편의 영화를 내리 봤다. 조그만 TV 화면으로는 긴가민가하며 봤던 <시민 케인>(1941)의 딥 포커스 효과를 스크린으로 체험할 때, <아라비아의 로렌스>(1962)가 품은 장쾌한 스펙터를 큰 화면으로 확인할 때, 젊은 안성기가 심산의 암자를 태우는 장면이 담긴 <만다라>(1981)의 진가와 마주할 때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평생 영화관에서 느낄 수 있는 희열의 8할을 BFI 사우스뱅크에서 느꼈다.

- 1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전하고 있는 메릴 스트립. 유튜브 화면 캡처.
- 2, 3 영화 <엘리펀트 맨>.



다니던 대학이 있던 도시 브라이튼에도 주중 밤에 자주 찾는 예술영화 전용관이 있었다.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이라 낡았으나 고풍스러웠다. 매 점을 겸하는 작은 매표소 앞은 밤마다 붐볐다. 영화가 탄생한 지 얼마 안 돼 문을 연 극장에서 스크린을 응시하다 보면 시간을 초월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런던에서든 브라이튼에서든 극장을 다녀오면 고독의 농도가 열어졌다. 하지만 정작 극장 안에서는 외로웠다. 예술영화를 찾는 아시아인은 나 혼자였다. 노란 머리, 빨간 머리, 갈색 머리들 사이에 섞여 눈만 반짝였다. 영화는 위로를 안기는 동시에 내가 겪고 있는 고독을 확인시켜준 셈이다. 어느 일요일 낮,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영화 <엘리펀트 맨>(1980)을 보기 위해 극장을 찾았다. 객석은 언제나 그렇듯 백인들로 꽉 차 있었다. 평소처럼 조용히 자리에 앉아 영화 상영을 기다리는데, 옆에 앉은 30대 여인이 말을 걸었다. “<엘리펀트 맨>을 처음 보냐”고 내게 물었다. 자기는 예전에 TV로

본 적이 있는데 큰 스크린으로 보고 싶어 극장에 왔다고 했다. 설렘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크게 웃는 입 사이로 비어 있는 이 두어 개가 보였다. 그녀의 고단하고 빈곤한 삶이 엿보였다.

<엘리펀트 맨>은 코끼리를 닮은 외모로 평생을 고통스레 살아야 했던 한 남자를 이야기 중심에 두고 있다. 서커스단에서 짐승 취급을 받던 ‘코끼리 남자’는 한 의사와 독지가 여인을 만나면서 인간의 정을 깨닫고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코끼리 남자’는 런던 시내를 돌아다니다 호기심 어린 사람들에게 둘러싸이자 “나는 인간이에요”라고 처절하게 외친다. 이 영화의 주제를 뚜렷이 드러내는 말이다. 생김새가 달라도, 취향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이념이 달라도 인간은 인간이라는, 인간을 인간으로 받아들여 달라는 외침이다. 아마 앞의 30대 여인은 ‘코끼리 남자’의 불우와 자존을 보며 가난한 삶을 견뎌낼 용기를 얻었을 것이다. 영국인들 사이에서 투명인간 처럼 지내던 나는 다음날을 맞을 힘을 얻었다. 보편적인 인간애를 보여주는 <엘리펀트 맨>을 관람하며 영국의 한 여인과 극동에서 온 이방인은 잠시나마 얽은 연대감을 형성했으리라.

### 메릴 스트립의 수상 소감과 할리우드의 다양성

지난달 미국의 명배우 메릴 스트립이 미국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평생공로상인 세실 B. 드밀상을 받으며 남긴 수상 소감은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예술의 역할을 새삼 생각하게 한다.

메릴 스트립은 소감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당시는 취임 전이었다.)을 몰아붙였다. 외국인과 여성, 유색인을 향한 혐오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세계 최고 권력자를 향한 매서운 일침이었다. 그는 “할리우드에는 아웃사이더와 외국인들이 넘쳐난다”며 “그들을 다 쫓아낸다면, 미식축구와 종합격투기 말고는 볼 게 없을 것이다. 그건 예술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다양성을 근간으로 할 수밖에 없는 예술의 속성이 트럼프의 인종 차별적 인식 때문에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이기도 했다.

할리우드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이질적인 요소의 결합에 따른 진화의 역사였다. 할리우드는 곧잘 이민자의 수혈을 받거나 해외 영화인을 스카우트하며 문화상품으로서의 영화의 질을 높여왔다. 무성영화 시대 흑백의 은막을 수놓았던 그레타 가르보는 스웨덴에서 활동하다 할리우드의 러브콜을 받아 못 남성의 연인이 됐고,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루돌프 발렌티노는 20세기 초반 많은 여성의 마음을 울린 할리우드의 별이 됐다. 1930년대 스크린 여신 마를레네 디트리히는 독일 출신이다. 배우뿐 아니다. 스릴러의 대가 알프레드 히치콕은 영국에서 나고 자라 감독이 돼 재능을 발휘했고, 할리우드 장르영화의 수준을 몇 단계 끌어올렸다. 독일 나치 정권의 박해를



©한겨레

피해 미국으로 건너온 게오르그 빌헬름 파프스트, 프리츠 랑 감독은 할리우드 영화에 품격을 더해주었다.

사회적 불이익에 굴하지 않는 성적 소수자가 많은 것도 할리우드의 특징이다. 커밍아웃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던 시절 자신의 성 정체성을 감추고 할리우드에서 활동했던 배우들이 적지 않다. 1985년 에이즈로 숨지기 직전 자신의 성적체성을 밝힌 록 허드슨이 대표적이다. 1950년대 스크린에서 남성미를 과시했던 그가 나중에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밝혔다 해도 그의 영화적 업적은 변하지 않는다. 메릴 스트립이 말했던 아웃사이더엔 성적 소수자가 포함돼 있을 것이다. 소수자로 살며 얻은 마음의 상처에 그들의 감수성은 예민해졌을 것이고 창의력의 발현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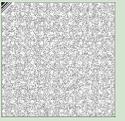
#### 획일화의 광풍 속에서 살아남은 문화예술

할리우드에선 한때 이념의 획일화 바람이 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도래한 동서대립은 할리우드 스튜디오 수장들에게 눈에 거슬리던 '불순분자들'을 몰아낼 맞춤 도구가 됐다. 스튜디오의 수장들은 1940년대 후

반 파업 사태를 겪으며 문제 영화인들을 정리할 명분을 찾고 있었다.

강대국 소련의 부상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한국전쟁의 발발은 매카시즘 광풍을 일으켰고 스튜디오의 눈엣가시였던 영화인들은 할리우드 밖으로 밀려났다. 스튜디오가 밀고한 영화인들은 '하원비미활동위원회(House Un-American Activities Committee: HUAC)'에 불려가 사상 검증을 받았다. 그들은 사상의 자유를 위해, 또는 동료가 누명 쓰는 것을 원치 않아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위원회 활동에 반감을 드러냈다가 불이익을 당했다. 미국 서민의 정서를 대변하던 배우 존 가필드는 HUAC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뒤 사람들의 비난에 시달리다 39세에 심장병으로 숨졌다. 할리우드의 채용 기피 인물로 낙인찍힌 영화인 다수는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에서 불안정한 삶을 살아야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망명 영화인들은 유럽 영화계에서 활동하면서 전후 유럽 영화의 부흥에 작지 않은 역할을 했다. 미국에 남은 기피 영화인들은 가명으로 또는 익명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스튜디오는 마음에 들지 않던 영화인들에게 본대를 보여줬지만 그들의 재능 없이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영화인들을 은근슬쩍 채용해 영화를 만들고 돈을 벌었다. 11개의 가명을 활용해 시나리오를 쓰고, 남의 이름으로 미국 아카데미 영화상을 두 차례나 수상한 시나리오 작가 달톤 트럼보(지난해 개봉한 영화 <트럼보> 참조)의 기괴한 신화가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 아픔은 미래를 위한 자양분이다

20세기 중반 할리우드에서 벌어진 수난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더욱 악랄한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다. 지난 세기 할리우드에선 업계가 채용 기피 인물에 대한 리스트를 몰래 만들었다면, 21세기 한국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불이익을 받아야 할 대상의 목록 작성을 주도했다. 이념이나 지역이나 성별에 따라 국민을 차별해서는 안 될 정부가 국가 지원 배제 명단을 만들어 예술을 길들이려 했으니 더 악성인 블랙리스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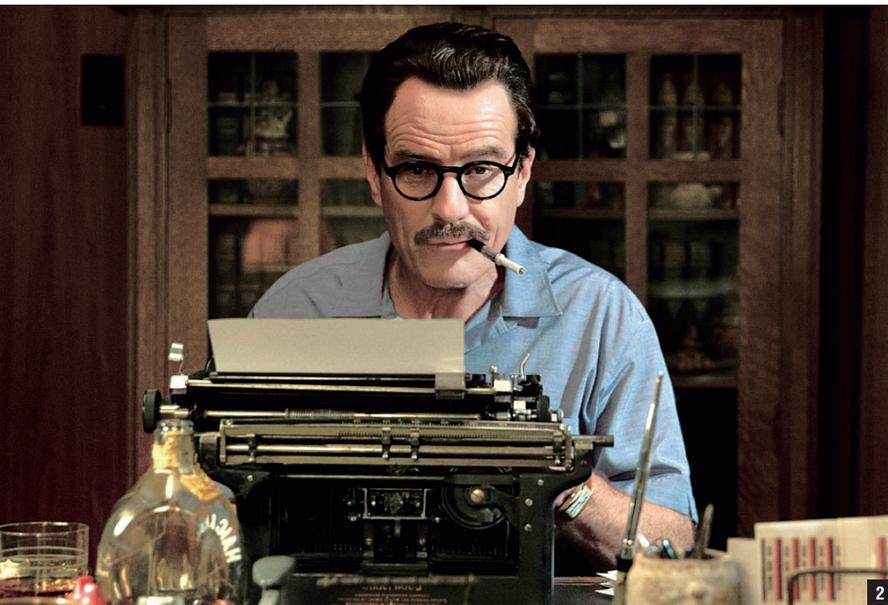
5년 전 권위주의 국가 베트남과 미얀마를 잇달아 방문한 적이 있다. 그곳에서 특강이 예정된 한국 영화인들과 함께한 출장이었다. 베트남과 미얀마의 영화인들은 아시아의 영화 선진국 한국으로부터 앞선 영화 기술과 축적된 영화 제작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어 했다. 특강에 나선 이준익 감독은 짧고 명확하게 말했다. “어떤 첨단기술이나 대자본도 필요 없다. 검열

을 없애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그러면 영화산업은 발전한다. 한국은 1996년 위헌결정으로 사전심의가 사라졌다. 그 뒤 영화가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 감독의 발언을 들으면서 자리에 있던 한국 영화인들은 뿌듯하면서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행사를 공동주최한 베트남과 미얀마 정부기관 관계자들의 심기를 건드릴지 모른다는 우려에서였다. 기우였다. 관계자들은 특강 참석자들과 더불어 박수를 치며 이 감독의 주장에 동의했다. 여러 이유로 검열을 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었다. 민주화를 바탕으로 사전심의제도를 폐지시킨 한국의 과거가 자랑스러웠고, 저항으로 얻은 표현의 자유가 흔들릴 거라고 그때는 의심하지 않았다. 요즘 블랙리스트 보도를 잇달아 접하다 보면 오랫동안 많은 희생으로 얻은 자유가 신기루로 느껴진다.

메릴 스트립은 골든 글로브 시상식 수상 소감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다. “최근 세상을 떠난 내 소중한 친구 레아 공주(캐리 피셔)는 내게 ‘너의 아픈 마음을 예술로 만들어라’라는 말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과 블랙리스트 파문은 미래 예술을 위한 자양분이다. 그래야 하고 그래야 한다고 믿고 싶다.

글 라제기, 한국일보 문화부장



2

- 1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이 함께한 '블랙리스트 버스' 참가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문화적인 표현과 방식을 통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 2 정치적 이유로 11개의 가짜 이름으로 활동해야 했던 할리우드 천재 작가 달톤 트럼보의 실화를 그린 영화 <트럼보>.
- 3 마이클 무어 감독은 지난해 10월 미국 뉴욕의 IFC 센터에서 트럼프를 풍자한 다큐멘터리 <트럼프랜드의 마이클 무어>를 공개했다.



©IFC 센터 홈페이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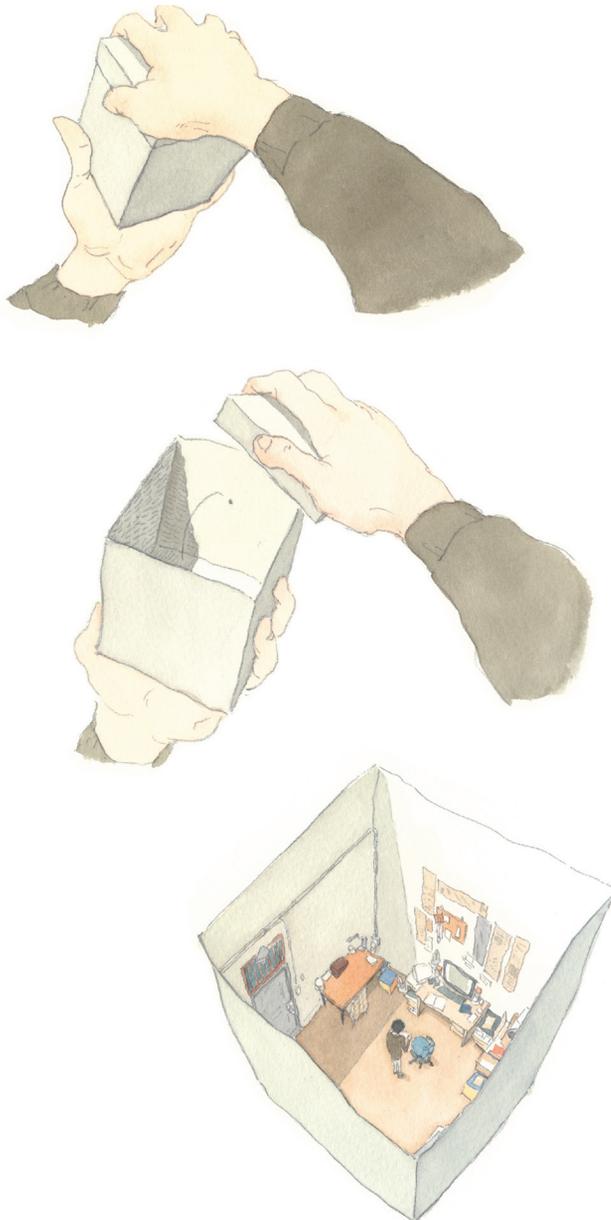


## 전시장을 나온 미술, 예술이 넘치는 거리

작가에게는 세상에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시민에게는 생활 속 예술 감상의 기회를 주는 아트 캠페인 '바람난 미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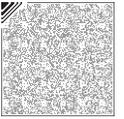
이번 호에는 우편으로 연재되는 만화 작업을 하고 있는 최진요 작가의 <벼룩상자\_프롤로그>와,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주제로 구조적인 작업을 시도하는 미디어 아트 그룹 팀보이드의 <Lightwave>를 소개한다.



최진요  
<벼룩상자\_프롤로그>

피그먼트 프린트  
29.7×42cm  
2016  
3만원



팀보이드  
<Lightwave>

조명, 키네틱 설치  
가변  
2014  
100만 원(1ea) \*개별 문의

 그동안 '바람난 미술'을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부터 서울 시내 곳곳을 찾아다니며 신진예술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지난해 '카카오'와 함께한 창작 지원 펀딩 프로젝트까지 성황리에 마친  
아트 캠페인 '바람난 미술'이 2017년 3월에 종료됩니다.

2016 '바람난 미술' x 다음(Daum) 카카오 스토리펀딩 지난 프로젝트 보러 가기:  
[storyfunding.daum.net/partner/sfac](http://storyfunding.daum.net/partner/sfac)

2013~2015 참여작가 전체 작품 보러 가기: [www.sfac.or.kr/artsgallery](http://www.sfac.or.kr/artsgallery)



## 남산예술센터 2017 시즌 프로그램 공개

# 시대정신과 실험정신이 살아 숨쉬는 공간

주변의 우려와 걱정 속에서도 '동시대성'이라는 화두를 지키며 작년 한 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남산예술센터가 지난 2월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7 시즌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올해 선보일 작품의 연출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걸출, 블랙리스트, 예술계 성폭력, 사회적 소수자, 전체주의 등 한국 사회의 날 선 화두를 정면으로 다루는 10편의 작품이 소개됐다.

### '동시대성'에 집중한 작품들

3월부터 12월까지 드라마센터 무대에 오르는 남산예술센터의 2017 시즌 프로그램은 작년과 변함없이 민감한 동시대 주제를 발

굴하는 작가들과 손을 잡았다. 창작 초연과 동시대성이라는 방향을 유지하며,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상황을 각자의 색깔로 담아낼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먼저, 지난해 선보인 초연작 2편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와 <파란 나라>가 레퍼토리화해 재공연된다. 우연 남산예술센터 극장장은 "이 두 작품이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재공연의 이유를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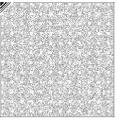
각기 다른 시공간에서 벌어지는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는 월간 <한국연극> 2016 연극 베스트 7,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올해의 연극 베스트 3, 제53회 동아연극상 작품상과 시청각디자인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실제 고등학생이 참여해 현대사회의 강요된 질서와 집단주의의 모순에 돌직구를 날린 <파란 나라>는 한국 교육현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 개인의 자유와 존엄으로까지 주제를 확장시킬 예정이다.

개관 이후 창작 초연 중심의 제작극장으로서 정체성을 지켜온 남산예술센터는 3편의 창작 초연 작품 또한 주제와 형식면에서 동시대성에 집중했다. 동시대의 키워드에 천착해온 구자혜 연출이 예술계 성폭력 문제를 무대 위에 소환하는 <가해자 탐구\_부록: 사과문작성

## 남산예술센터 2017 시즌 프로그램

연기기간	작품명	연출
3.14-3.24	서치 라이트 2017 (Search Wright)	이연주
4.6-4.16	2017 이반jack 이연주 구성 연출	이연주
4.21-4.30	가해자 탐구_부록: 사과문작성기대 구자혜 연출	구자혜
5.13-6.4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박근형 연출	박근형
6.10-6.18	국부 똥발 공동창작 / 전인실 연출	전인실
7.6-7.16	황조경계 공공극장편 공동창작 / 전은환 연출	전은환
8.10	제2회 발아교과	이연주
8.30-9.3	타이거	이연주
9.10-9.22	심문 부부만들기	이연주
9.30-10.1	파란 나라	이연주
10.10-10.22	블랙리스트	이연주
10.30-11.1	예술계 성폭력	이연주
11.10-11.18	사회적 소수자	이연주
11.27-12.5	전체주의	이연주

SEASON PROGRAM 2017



가이드>, 여전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남북의 정치적 지도자를 다룬 <국부 國父>, 제6회 벽산희곡상 수상작으로 질곡의 한국 현대사 속에서 난파된 디아스포라 인생을 다루는 <에어콘 없는 방>이 무대에 오른다.

### 새로운 시도는 늘 반갑다

남산예술센터는 현장 연극인들과의 협업과 연대 강화를 위해 기존의 소극장 프로그램 중 중극장으로 확대 가능성이 있는 작품을 옮겨와 재창작하고 주제의식의 확장을 시도한다. 올 시즌 프로그램의 문을 여는 <2017 이반검열>은 지난해 '권리장전2016\_검열각하'에서 선보인 <이반검열>을 확대한 작품이다. 초연 이후 1년 사이 급변한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여 새롭게 쓴 이 작품은 검열이라는 주제를 일상에서의 민주주의로 확장시켰다.

<창조경제\_공공극장편>은 2015년 혜화동1번지 6기 동인 가을페스티벌 '상업극'에서 주목받았던 서바이벌 리얼리티쇼 형식의 작품을 확대한 버전이다.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청년예술가들의 생존과 작품 활동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한편 기존의 서사 내러티브를 벗어나 형식적 실험을 시도한 신작들도 만날 수 있다. <천사(가제)>는 단 한 명의 관객을 위한 일대일 공연으로 드라마 없는 극장 안에서 관객들의 감각 그 자체가 드라마가 되는, 기존의 극장 매커니즘을 뒤집는 새로운 형식의 작품이다. 배우가 한 명도 출연하지 않는 이례적인 '오브제 시어터' 공연인 <십년만 부탁드립니다>도 눈여겨볼 만하다. 10년 동안 유랑생활을 하던 사물들이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주인공이자 배우가 되어 자신만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이밖에 <당신이 알지 못하나다>를 통해 한국 소설을 무대 위에 극화하는 새로운 작업도 시도한다. 권여선 작가가 지난해 <창작과 비평> 여름호에 발표한 동명의 중편소설을 무대화한 것으로 죽음에 대한 성찰을 이야기한다.

### 참여를 확대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남산예술센터는 제작극장으로서의 역할을 고민하며 논쟁과 참여를 확대하는 두 개의 공모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올해 새롭게 시도하는 프로그램 '서치 라이트 2017(Search Wright)'은 제작 전 단계에 있는 미완의 콘텐츠를 사전 공유하는 무대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은 제작비를 지원받으며 3월 극장, 관객, 기획자, 예술가

### 남산예술센터 2017 시즌 프로그램

일정	공연명	작가 및 연출	협력극단
3. 14~24	서치 라이트 2017 (Search Wright)		*공모를 통해 선정
4. 6~16	2017 이반검열	구성·연출 이연주	전화벨이 울린다
4. 21~30	가해자 탐구 부록: 사과문작성가이드	작·연출 구지혜	여기는 당연히, 극장
5. 13~6. 4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작·연출 박근형	극단 골목길
6. 10~18	국부 國父	공동창작·연출 전인철	극단 돌파구
7. 6~16	창조경제_공공극장편	공동창작·연출 전윤환	앤드씨어터
8. 18	제2회 남산 아고라		*공모를 통해 선정
8. 30~9. 3	천사(가제)	구성·연출 서현석	시각예술가, 아트선재센터 공동제작
9. 14~10. 1	에어콘 없는 방	작 고영범/ 연출 이성열	극단 백수광부
10. 18~22	십년만 부탁드립니다	구성·연출 이주요, 김현진	시각예술가/큐레이터, 큐레토리얼 랩 서울 (Curatorial Lab Seoul) 공동제작
11. 2~12	파란나라	작·연출 김수정	극단 신세계
11. 23~12. 3	당신이 알지 못하나다	원작 권여선 각색·연출 박해성	상상만발극장

앞에서의 낭독공연, 공개토론, 키퍼런스, 피칭 등 형식의 제한 없이 작품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또한 젊은 창작 예술가들의 등용문 역할을 하고자 지난해 처음 선보인 특별 공모 '남산 아고라'도 오는 8월에 다시 개최된다.

남산예술센터는 올해도 제작과 유통을 연계한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확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는 성남문화재단 '시리즈-연극만원만'에 공식 초청되어 오는 6월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무대에 오르며, '2017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공연 프로그램에 선정돼 지역 순회공연을 준비 중이다. 뿐만 아니라 벽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고영범 작가의 <에어콘 없는 방>(원제: 유신포털 503호)을 극단 백수광부와 공동제작하며, 서현석 작가의 신작 <천사(가제)>는 '제1회 국제건축비엔날레'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아트선재센터와 공동제작에 들어간다. 지난해 10월 서울아트마켓(PAMS) 램프링크(PAMS Link) 쇼케이스로 선보인 해외 공동제작 작품 <십년만 부탁드립니다>는 문래예술공장에서 프리-프리덕션 단계를 거쳐 올해의 프로그램으로 참여하고, <파란나라>는 동기간에 개최되는 '세계문화도시포럼(WCCF)'에서 공연과 함께 청소년과 시민이 참여한 작품의 제작과정을 소개할 예정이다.

글 윤선희 사진 제공 서울문화재단



선배들의 선물 같은 공간

## 고려대 앞 서점 ‘지식을 담다’

학교 앞에 서점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고려대 90학번 동기 15명의 마음을 움직였다. 교재를 팔던 서점마저 문을 닫은 지 7년 만에 새로 생긴 서점,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 열어준 고려대 앞의 ‘지식을 담다’ 이야기다.



### 학교 앞 서점의 부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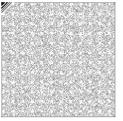
작년 12월 23일 문을 연 ‘지식을 담다’는 요즘 트렌드인 동네책방, 독립서점과는 결이 다르다. “독립서점들이 소규모 출판물, 한 분야의 책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데 비해 저희는 인문사회과학 전체를 다루려고 해요. 대학 앞에 있던 인문사회과학 서점을 부활시키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어요. 쫓을 때 인문사회과학 서적을 읽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라고 김준수 공동대표는 말한다.

대학 동기 15명이 모여서 만들었지만 운영은 공동대표 두 명(김준수, 이동주)이 전담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김준수 대표가 평상시 서점을 돌본다. 서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은 금방 하나로 모였으나 초기 자금을 모으기는 쉽지 않았다. 계를 하자, 월회비를 내서 중

짓돈을 만들자는 얘기도 나오다가 흐지부지될 뻔했으나, 딸을 모교에 보낸 이동주 대표가 발 벗고 나섰다. 15명 각자 형편에 맞게 내놓은 것이라 누가 얼마를 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 말랑말랑한 책은 잘 안 나가요

복층 구조의 서가는 서점 이름처럼 책을 담고 있는 모양이다. 개점 당시 1,700원에서 지금은 2,300원 정도로 늘어났다. 책은 계속 들어오니 처음부터 서가를 꽉 채워놓지 말라는 조언을 반영했다. 직접 선정한 책이 1,000권, 나머지 700권은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을 받았다. 베스트셀러는 마르크스 관련 책, 4차 산업혁명, 페미니즘 책이다. 인기 드라마 포토 에세이도 들여놓았지만 단 한 권도 팔리지 않았다고 한다. 어느 서점에서나 파는 책을 굳이 이곳에서 찾지



1, 2 고려대 90학번 동기 15명이 모여서 만든 서점 '지식을  
담다'는 다양한 인문사회과학 서적을 판매한다.  
3 서점 내에 있는 북 카페.  
4 (왼쪽부터) '지식을 담다' 김준수, 이동주 공동대표.

않기 때문. 원하는 책이 없으면 수기로 주문도 받는다. 원칙은 자기 계발서, 수험서, 영어책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 신간들 사이에서 누렇게 바랜 표지가 눈에 띄는 책장은 '선배가 추천하는 옛날 책' 코너다. 선배들이 기증한 헌 책을 정가의 1/4에 판매한다. 얼마 전 84학번 선배가 한길사의 <오늘의 사상신서>를 1권에서 100권까지 통째로 기증했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십여 권이 빠져나갔단다. "80년대에 나온 귀한 책 100권을 모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도 놀라운데, 학생들이 책을 골라가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서점을 열기 전 교수로 일하는 친구를 찾아갔더니 "망한다, 요즘 애들 그런 책 안 본다"며 말렸단다. 우려와 달리 개점 이후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마치 이런 서점이 문 열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학생은 물론 동문들, 일반 시민들도 찾아온다. '설마 이 책

을 알겠어? 이걸 누가 읽겠어?' 반신반의하면서 책을 꽂아놓으면 귀신같이 알아보고 사가는 친구들이 있다.

**스스로 책을 읽고 토론하는 학생들**

'지식을 담다'는 서점 외에도 북 카페, 세미나실 등의 공간을 갖추고 있다. 12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세미나실은 한 사람당 음료 하나만 주문하면 편하게 빌려 쓸 수 있어 인기가.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할 공간이 그만큼 없다는 거겠죠. 우리가 이곳을 연 이유가 있으니 영어공부나 취업 스터디는 하지 말았으면 했어요. 걱정과는 달리 여기서 자본론, 조선후기 정치사회, 젠더 트러블을 공부하더라고요. 기성세대는 젊은 학생들이 취업준비와 고시준비로 시간을 보낼 거고 삶이 암울하고 불쌍하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들이 알아서 책을 보고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서점을 운영하는 이들은 공간 활용을 위해 독서토론 모임을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는 굳이 나서서 모임을 만들지 않아도 잘 돌아갈 거 같단다.

"기성세대가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어주지 못해서 그렇지, 20대는 책도 많이 읽고 토론하면서 인생에 대해 고민할 시기잖아요. 공간을 열고 보니 젊은 친구들은 다 그렇다고 예단할 게 아니었더라고요. 앞으로는 '어떨 것이다'라고 예측하지 않으려고 해요."

**선배가 열고 후배가 채운다**

서점을 할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인지라 방학인 1월과 2월은 위빙업 기간으로 삼았다. 3월 개장을 하면 책 팔고 공부하는 것을 뛰어넘는 행사를 많이 하려고 한다. 날이 따뜻해지면 뒤편 야외공간까지 개방할 예정이다. "학생들을 위해 작지만 좋은 강연을 유치하고 싶어요. 학교 출신 유명인들이 많으니 좋은 취지에 동참해달라고 부탁을 해보려고요." 개장을 앞두고는 서점에 포스트잇을 비치해 두고 SNS와 연계해 새내기를 위한 도서 추천을 받는다. 추천 도서 목록이 완성되면 학생들 대상으로 비평대회도 개최하려고 한다. 책을 통해 졸업생과 재학생이 소통하는 공간, 지역 주민에게는 열려 있는 문화공간으로 차츰 채워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오래갔으면 좋겠어요. 서점은 적자구조일 수밖에 없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해요. 마지막으로 공간은 선배들이 열었지만, 젊은 후배들이 채워주면 좋겠어요. 고민이자 앞으로의 바람입니다."

글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사진 제공 지식을 담다

뮤지컬 <미스터 마우스>와 연극 <메디아>

## 기억 속에 남아 있는 반가운 이야기

미국의 스테디셀러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 <미스터 마우스>와 고대 그리스 비극을 각색한 연극 <메디아>, 두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 인연. 태초에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야기에 끌려 사람이 모였다. 그 사람들을 보러 우리는 극장을 찾는다. 인연이 이어지는 것이다.

### 인연, 10년 만에 돌아온

<미스터 마우스> 3. 9~5. 14,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10년이라는 시간은 알맞은 단위다. 누군가에게 10년 전 오늘은 진즉에 잊힌 과거지만, 10년 전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또 다른 누군가의 오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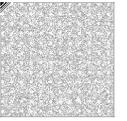
뮤지컬 <미스터 마우스>가 10년 만에 무대에 오른다. 2006년 초연과 이듬해 재연 당시 “한국적인 감성을 담아낸 웰메이드 뮤지컬”이라는 평을 들었던 작품이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면 2006년 방영됐던 KBS 드라마 <안녕하세요 하느님>은 어떨지 모르겠다. 사기꾼인 여자주인공이 IQ 65의 지적장애인 남자주인공에게 사랑을 핑계 삼아 접근했다가 욕 좀 먹었던 드라마다.

장르가 다른 두 작품을 나란히 놓은 이유가 있다. 두 작품 모두 지능 낮은 남자가 뇌수술을 받은 뒤 천재로 거듭나고 우여곡절 끝에 사랑을 깨닫는다. 뮤지컬과 드라마 모두 미국 작가 대니얼 키스(Daniel Keyes)의 스테디셀러 <앨저넌에게 꽃을(Flowers for Algernon)>을 원작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대니얼 키스의 소설은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영화·연극·드라마·뮤지컬 등 여러 장르로 꾸준히 재생되고 있는 단골 레퍼토리다.

<미스터 마우스>에서는 두 명의 배우를 지켜봐야 한다. 우선 주인공 ‘인후’ 역의 대세 배우 홍광호다. 2014년 한국 배우 최초로 영국 웨스트엔드에 진출한 홍광호는 <노트르담 드 파리> <지킬 앤 하이드> <오페라의 유령> <맨 오브 라만차> 등 출연하는 작품마다 주인공을 맡으며 흥행을 이끌었다. 대형 뮤지컬 남자주인공 섭외 1순위라는 홍광호가 대학로 뮤지컬을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미스터 마우스>는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그러나 가장 눈여겨봐야 할 인물은 악역 ‘강 박사’를 연기하는 서범석일지 모른다. 서범석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10년 전 무대를 기억하는 당신을 위해서다. 10년 전 서범석은 ‘인후’ 역으로 <미스터 마우스> 무대에 올랐다. 그리고 10년이 흐른 지금 그는 기꺼이 악역을 감당했다. <미스터 마우스>에 관한 한, 10년 전 오늘에 머물러 있어도 좋을 듯하다.





## 버림받은 여자의 참혹한 복수극

### <메디아> 2. 24~4. 2, 명동예술극장

국립극단의 2017년 시즌 개막작이다. 올 시즌을 2,400년 전 그리스 비극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국립극단을 책임지고 있을 때 꼭 한 번은 무대에 올리고 싶었다”는 국립극단 김윤철 예술감독의 바람 때문이다. 김 감독은 2월로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었고, 다행히 연임이 결정됐다.

<메디아>는 국립극단 예술감독이 ‘꼭’이라는 부사를 동원하며 욕심낼 만한 작품이다. 고대 그리스 3대 비극 시인 중 한 명인 에우리피데스(BC 484?~BC 406?)의 대표작으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해석되는 그리스 희곡 중 하나다. 소포클레스에게 ‘오이디푸스 왕’이 있고 아이스킬로스에게 ‘청년 오레스테스’가 있다면 에우리피데스에게는 비련의 여인 ‘메디아’가 있다.

에우리피데스는 그리스 비극 시인 중에서 가장 현대적인 작품을 생산한 작가로 통한다. 여기에서 ‘현대적인’이라는 것은 서사가 인물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뜻이다. 캐릭터가 전형적이지 않고 인물 묘사가 설득력을 얻을 때 우리는 흔히 ‘현대적’이라고 표현한다.

<메디아>는 남자로부터 버림받은 한 여자의 참혹한 복수극을 그린다. 끔찍한 결말을 여기에서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작품이 미성년자 관람불가 등급이라는 사실은 밝힐 수 있다. ‘패륜’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야 할 만큼 이야기는 파탄에 이르러서야 끝을 맺는다.

감정의 극단까지 표현해야 하는 ‘메디아’ 역은 중년배우 이해영이 맡았다. 무대를 보지 않았어도 어울리는 캐스팅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니나 다를까. 무대에서 특유의 카리스마를 내뿜는 이해영을 보고 김윤철 예술감독이 “가장 메디아다운 메디아”라는 찬사를 보냈다.

연출은 헝가리 국립극장 최연소 예술감독 출신 로버트 알폴디(Robert Alföldi)가 맡았다. 2016년 1월 국립극단 연극 <겨울이야기>를 작업했던 인연이 이어졌다. 헝가리에서 혁신적인 연출로 주목을 받았던 만큼 <메디아>에서도 파격적인 무대가 기대된다.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더 있다. 국내 패션계의 거장 진태욱 선생이 디자이너 경력 52년 만에 처음으로 연극 의상에 도전했다. ‘메디아’의 감정 변화에 따라 의상 소재와 컬러가 달라진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글 손민호 중앙일보 기자 사진 제공 쇼노트, 국립극단

- 1 뮤지컬 <미스터 마우스>에서 ‘인후’ 역을 맡은 홍광호.
- 2, 3 국립극단 2017년 시즌 개막작 <메디아>. 이해영의 열연이 기대되는 작품이다.



전시 <닉 나이트 사진전-거침없이, 아름답게>와  
<아이작 줄리언: 플레이타임>

## 질서에 도전하다

근대 이후 자본주의 사회 형성 과정에서 굳어져온 가치와 질서에 도전하는 전시들이 눈에 띈다. 패션산업의 고정된 미적 관념에 저항하는 <닉 나이트 사진전-거침없이, 아름답게>와 탈식민주의, 인종이나 성적 소수자의 정체성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아이작 줄리언: 플레이타임> 전을 통해 세상의 통념을 깨뜨리는 통쾌함을 느껴보자.



©닉 나이트

1



©닉 나이트

2

### 관념과 형식의 파괴

<닉 나이트 사진전-거침없이, 아름답게>

2016. 10. 6~2017. 3. 26, 대림미술관

“패션은 제가 선택한 가장 중요한 예술 형태입니다. 때로는 성적 기호나 정치 성향까지 나타낼 수 있는 자기표현 수단이니깐요. 그래서 패션이야말로 매우 민주적이고 기본적인 예술입니다.” 지난해 전시회 개막을 앞두고 한국을 찾았던 영국 출신 사진작가 닉 나이트는 자신이 ‘패션’ 사진 작업에 매달리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했다. 아름다움에 대한 전형적 가치관에 도전하는 작품을 선보여 주목받고 있는 작가 닉 나이트의 사진전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의 대림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패션화보부터 실험적인 패션필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닉 나이트의 작품은 인종·동물보호 등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깊이 반영한다.

특히 그는 패션 사진의 경우에도 여성을 상품화의 대상으로 보는 당대 패션계에 대해 오로지 의상 자체의 표현에 집중한다. 닉 나이트는 “대체적으로 ‘백인, 나이 18세, 적당한 키와 몸’이라는 패션 사진 속 여성의 전형적인 이미지에 얽매이지 않고 동일한 신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아름답다는 생각으로 촬영한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과감한 음영과 독특한 색감의 사진들은 관객들의 미적 감각을 자극한다.

닉 나이트는 1990년대 초 당시만 해도 드물었던 디지털 기술을 사진에 접목해 메시지를 극대화했다. 특히 최근의 패션 필름에는 애니메이션, 3D 촬영, 비디오 콜라주 등을 접목한 사진도 많이 보인다. 전시에서는 나이트의 대표작 100여 점을 만날 수 있는데, 그중에는 작가가 잡지 <아이디(i-D)>와 협업한 비요크, 레이디 가가, 케이트 모스 등 명사들의 초상 사진도 있다.

- 1 Pink Powder, Lily  
Donaldson wearing John  
Galliano, 2008.
- 2 Whaam! Lindsey Wixson  
wearing Comme De  
Garçon, GIF애니메이션,  
2012.
- 3 EMERALD CITY /  
CAPITAL (Playtime),  
Endura Ultra  
Photograph,  
160×240cm, 2013.

©아이작 줄리언, 빅토리아 미로 갤러리(런던)



## 21세기적 마르크시즘

### <아이작 줄리언: 플레이타임>

#### 2. 22~4. 30,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서울 강남구 언주로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전관에서는 영국을 대표하는 필름 아티스트, 아이작 줄리언의 개인전 <아이작 줄리언: 플레이타임(ISSAC JULIEN: PLAY TIME)>이 4월 30일까지 계속된다. 이 전시 역시 ‘마르크시즘의 21세기 버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 사회에 강렬한 비판적 메시지를 던진다.

아이작 줄리언은 2015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낭독 공연 <자본론 오라토리오(KAPITAL Oratorio)>로 글로벌 경제가 직면한 위기의 현실을 예고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2004년 부산비엔날레와 2008년 광주비엔날레, 그리고 2011년 아틀리에 에르메스 전시를 통해 멀티스크린 영상설치 작업을 선보이는 등 영화와 현대미술 사이를 오가며 독보적인 위상을 구축해왔다. 탈식민주의, 글로벌 자본주의, 이산과 이주, 그리고 인종 및 성적 소수자의 정체성 등을 소재로 삼았던 아이작 줄리언의 작업은 트럼프 집권 이후 도래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와 대비해 그 시의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아이작 줄리언은 미국의 더그 에이트킨, 중국의 양푸동과 더불어 독특한 다채널 필름 설치 방식을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몰입의 시학(immersive poetics)을 창출하는 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 선형적 내러티브 구조의 해체를 시도하는 복합적 스크린 배치 방식

은 이미지를 지각하고 내러티브를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객들에게 영화 관람과는 완전히 다른 체험을 선사한다. 아이작 줄리언의 본격적인 국내 최초 개인전인 이번 전시는, 표제를 이루는 핵심 작품이자 7채널 영상설치 작업 <플레이타임(Playtime)> (2014)을 비롯해, <자본론(KAPITAL)>(2013), <레오파드(The Leopard)>(2007) 세 작품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전시의 핵심을 관통하는 <플레이타임>은 러닝타임 67분의 영상 작품으로, 작품 제목을 프랑스의 영화감독 자크 타티의 <플레이타임>(1967)에서 차용했다. 자크 타티의 영화가 초현대적 파리의 도시적 삶을 묘사하며 자본주의의 미래를 예언했다면, 아이작 줄리언의 작업은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대한 21세기 심미적 번역판이다. 이 작업에서 아이작 줄리언은 자본주의의 과잉과 실패, 그리고 이러한 본질적 모순을 반영한 미술계를 해부하며 정보와 노동, 돈의 비물질적 흐름에 대해 가시적 형태를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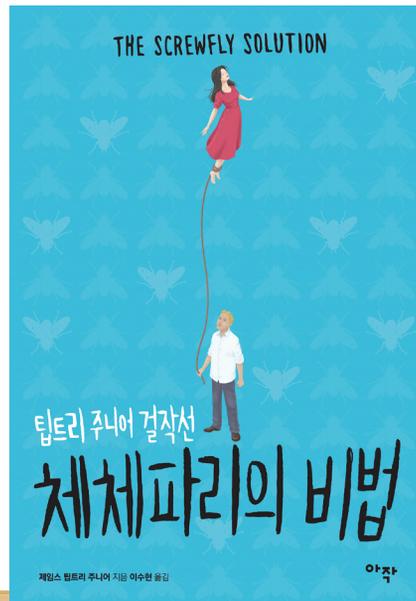
아트센터 관계자는 “플랫폼-엘의 지하 2층 라이브홀에 7개의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설치될 이 작품은 본 공간만의 건축 음향 시설과 높은 층고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다른 어떤 미술관에서도 기대할 수 없는 장소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시는 ‘2017~18 한·영 상호교류의 해’ 첫 번째 전시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글 이경택 문화일보 기자

책 <체체파리의 비법>과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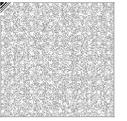
## 어느 한쪽의 유토피아

전장, 왕궁, 일터 등 근현대를 상징하는 공간들은 대부분 남성들의 것으로 여겨져왔다. 현실의 공간은 물론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장소를 상상할 때도 여성들은 줄곧 배제되었다. 이런 남성 중심의 장소와 사고 속에서 여성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제임스 팀트리 주니어의 <체체파리의 비법>과 스베틀라나 알렉세예비치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를 소개한다.



우리는 지금 이 사회가 아닌, 다른 여러 사회를 지칭할 이름들을 알고 있다. 유토피아(utopia)는 사회의 이상향이다. 토머스 모어의 원작에선 사유재산이 없어진 공산주의 사회를 칭하지만, 우리는 그저 살기 좋은 사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쓰고 받아들인다. 디스토피아(dystopia)는 이상향의 반대, 헬조선처럼 악몽 같은 사회를 부르는 이름이다. 미셸 푸코가 살고 있는 사회에 이의 제기를 하는 상이한 장소다. 이를테면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분향소나 텐트촌을 떠올릴 수 있다. 이곳들은 헬조선의 현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실제의 장소인 동시에 주장들이 줄곧 무시되고 내쳐진다는 점에서 사회 바깥에 존재하는 장소라 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의 매력을 지칭하는 별명이었다는 아토포스(atopos)도 있다. 장소를 나타내는 'topos'에 부정을 의미하는 'a'가 붙어 한 장소에 고정되지 않는,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장소를 말한다. 롤랑 바르트는 이를 탈(脫)장소, 아토피아(atopia)라고 부른다. 탈장소는 등록되지 않고 표류하는 장소다.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헤테로토피아, 아토피아. 서로 다른 네 이름에 동일하게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 'topos'가 들어간다. 존재란 지극히 장소적이어서, 개체든 사회든 자신을 놓을 곳 없이는 존재 자체가 성립하지 못한다. 장소는 존재의 환경으로, 공간으로 나타나 존재에게서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장소가 없다면 유명조차 없다.

## 남성들의 장소를 버리고 떠난 여성들

### <체체파리의 비법>

#### 제임스 톱트리 주니어 지음, 이수현 옮김, 아작

현실의 장소를 비롯해 이 장소들 중 어느 것도 여성에게 마음에서 들지 않을 수 있다. 그 모두가 불행히도 남성들이 차지해버린 장소일 수 있다. 어쩌서 사랑의 별명인 아토포스는 하필 남성인 소크라테스에게 붙었을까. 어쩌서 토머스 모어의 재산을 누가 얼마큼 갖느냐의 문제만을 다뤘을까. 재산을 가진 남성의 가정을 돌봤을 여성에게도 그 유토피아는 여전히 유토피아일까. 헤테로토피아의 농성장에는 남성들만 나와 있을 수 있고, 디스토피아의 빅 브라더는 언제나 남성인 것이다.

제임스 톱트리 주니어는 여성이면서 남성 이름으로 소설가의 이력을 시작한 독특한 작가이다. 그녀가 소설가가 된 1960년대 후반은 여성의 가정에서의 역할이 당연시되고, 예술가로서의 입지도 매우 좁았다. 지난 세기의 세계 명작소설이라고 해서 살펴보면, 여성 소설가의 이름이 손으로 꼽을 정도인 것도 이 때문이다.

단편 <보이지 않는 여자들>에서 모녀는 단호히, 이 남성들의 장소를 버리는 선택을 한다. 유카탄 반도에 불시착한 비행기에서 살아나온 파슨스 모녀는 우연히 외계인들과 조우하고, 지구를 버리고 아예 외계로 떠나버린다. 재미있는 점은 외계인과 만난 사실을 남성들에게 절대로 비밀로 한다는 것이다. 이 설정은 어찌 보면 남성 일반에 대한 복수일 수 있고, 또 어찌 보면 외계인보다도 더 말이 통하지 않는 남성들에 대한, 말해봤자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는 깊은 체념일 수도 있다.

## 전장은 여성의 장소가 아니다

###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지음, 박은정 옮김, 문학동네

제2차 세계대전은 남성들만의 장소가 아니었다. 여성들도 총을 들고 싸웠으며 저격병 같은 전투보직도 맡아 훌륭히 수행했다. 하지만 참전 여성들의 이름은 지워지고 전쟁의 승리는 온전히 국가와 남성들의 전리품이 되었다. 여성들의 참전 기록은 분노와 슬픔과 한이 뒤섞인 개인의 사연이 되어 묻혀 있다가 아주 오랜 세월이 흘러서야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 기록이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이다. 스베틀라나는 수십 년에 걸쳐 여성 참전용사들을 만나고 인터뷰하며 그 내용을 정리해 책으로 묶어냈다. 이는 공식적인 기록의 장소에서 배제된 역사다. 왜냐하면 전쟁 역사의 성별 자체가 남성의 것이고, 승리자와 패배자의 이야기만을 다루기 때문이다. 승리든 패배든 어떤 경우에도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민중들, 특히나 참전 여성들의 이야기는 전쟁의 장소와 기록의 장소에서 일찌감치 물러나야 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조차 남편들이 그때 이야기는 입에 올리지 말라며 입을 다물게 했다.

이 책에서 여성들은 전쟁의 승리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승리는 남성의 것이거나 남성들로 이뤄진 국가의 것이다. 여성들의 전쟁 이야기는 자신의 고유한 경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또 다른 생명으로서의 경험, 그리고 전장에서조차 남녀가 차별되는 끔찍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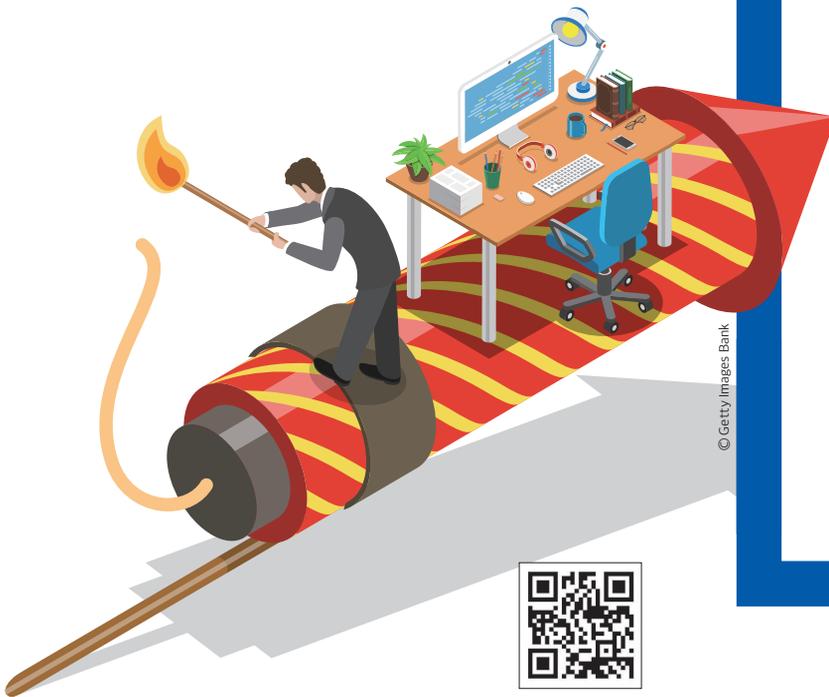
글 백민석. 저서로 단편집 <16민거나말거나박물지> <장원의 심부름꾼 소년> <허끝의 남자>, 장편소설 <헤이, 우리 소풍 간다> <공포의 세기>, 미술 에세이 <리플릿>이 있다.

사진 제공 아작, 문학동네

8

## 별자리 운세도 신통치 않을 때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뚝뚝... 여기가 ‘예술적 상담소’ 맞나요?”  
여러분의 어떤 고민도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리는 ‘예술적 상담소’. 온라인으로 별도 공간을 마련해 고민 상담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려주신 고민에 대한 예술적 대책을 찾아 답변을 달어드립니다. 서울 문화재단 홈페이지(sfac.or.kr) - 열린광장 혹은 페이스북 탭에서 예술적 상담소를 찾아주세요! 다른 사람의 고민에 댓글을 달 수도 있습니다. 채택된 질문은 [문화+서울]에 게재되며,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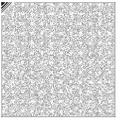


© Getty Images Bank


<http://bit.ly/ltAX44>


경쟁입찰 시스템 속에서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는데,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계속해야 하는 걸까요?

디자인 에이전시에 다니고 있습니다. 매년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과정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죠. 네, 그게 제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인격모독 수준의 평가위원들을 겪으며 자존감이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공공기관 경쟁입찰에 참여했을 때는 자리에 주저앉아 울 뻔했을 정도로 독한 수모를 겪었습니다. 작업물 자체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자신만의 난해한 기준으로 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비난하는 등 개인 밸런트를 혹독하게 평가하는 오디션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팝스타>에 나온 줄 알았습니다.) 공개 오디션은 조언이라도 해주지, 이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모욕감만 남았을 뿐입니다. 무한 경쟁입찰 시스템과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 만든 이런 해괴한 사회 풍토 속에서 자존감을 무너뜨려가며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네요. 자괴감마저 드는 요즘입니다.



### 디자인을 한다는 것, 디자이너로 살아간다는 것

단순히 디자인만의 문제라면 방법을 모색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적어도 이론상으로 디자이너는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상담 요청하신 고민은 어쩌면 제도적 문제, 즉 디자인을 경쟁입찰로 평가하는 방식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러한 무한 경쟁 속에서 계속 디자인을 하는 것이 관찮은지에 관한 인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디자인을 한다는 것, 그리고 디자이너로 살아간다는 것에 관한 가장 근본적 문제 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시에 직업과 가치관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저 역시 디자이너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쉽게 해결되지 않은 현재진행형의 고민들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제 앞에 닥친 하나의 ‘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벽에 서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논어(論語)>에 나오는 ‘절문이근사(切問而近思)’를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절실하게 묻고, 가까이서 생각하다 보면 그 벽의 의미와 벽을 극복하는 방법을 종종 깨닫게 됩니다. 그 벽을 반드시 부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벽을 뛰어넘는 시도를 하기도 하고, 벽에 문을 내기도 합니다.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하고, 그것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지요.

### 현재진행형인 문제들과 현재진행형의 절망들

잘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에서 발주되는 프로젝트는 ‘기회의 평등’, 즉 공정성을 중요시합니다. 경쟁입찰로 수행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여전히 공공기관에서 선호하는 방식이고 제도적으로 크게 개선될 전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디자인 에이전시에 근무하면서 경쟁입찰을 피해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듯 보입니다. 때로는 공공기관에서 평가에 참여하는 위원들에게 ‘인격모독성’ 발언은 자제해달라는 사전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위의 사례는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같은 일이 반복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먼저 지극히 현실적이고 평범한 방법을 제안하자면 근무환경, 즉 디자인 에이전시를 바꿔보는 것입니다.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범위의 업무를 하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모욕감을 느끼고 자존심을 무너뜨려가며 현재의 회사를 고집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가능한 대안일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상황을 조절하기 어렵다면, 상황 자체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디자인 일을 계속해야 하는가?’라는 현실적 고민에 맞닿아 있습니다. 저는 종종 디자이너들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디자인만 하는 것이 제일 쉬운 일”이라고요. 디자인은 디자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전개 과정과 상황 전체,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커뮤니케이션을 아우르는 것입니다.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 다른 여러 부차적인 문제들을 견딜 수 없다면, 자신의 적성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때론 디자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압박이 스트레스의 임계치를 넘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다른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면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다른 영역을 찾는 것도 관찮을 듯 보입니다. 그래요. 말씀드렸듯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민하지 않는다면 다음에 또다시 같은 문제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가능한 대안은 제기된 문제에 관한 해결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같은 업(業)을 하는 사람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한 디자인 관련 제도와 정책에 관한 문제들은 많은 디자이너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디자이너들이 모여 공동으로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고 함께 고민한다면 창의적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디자이너란 직업은 이런 고민을 하기에는 너무 바쁜 게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당장 바쁘다는 핑계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지금의 무한 경쟁입찰 방식과 최저가 낙찰 방식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 현문우담으로 대신하다

고민에 대한 적절한 상담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고민과 혼동을 드린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제기하신 문제는 디자인 에이전시 근무하고 있는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고민거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문현답(愚問賢答)이 아닌 현문우담(賢問愚答)으로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야근과 박봉, 디자인에 대한 몰이해,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있는 디자이너의 인권 문제를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임현우. 디자인학 박사. 디자인회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거쳐 현재 계명대학교 사각디자인전공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 <상상력에 연진을 달아라> 등이 있다.



<사진 1> 서울 시민회관

시간의 흐름을 간직한 광화문 거리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시민의 공간

도시의 모습은 시간이 흐르며 변해갑니다.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 앞 거리 모습도 50여 년 동안 많이 바뀌었습니다. 서울 종로구 세종로는 조선시대 때 '육조(六曹)거리'로 불렸습니다. 광화문 앞에 주요 관아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에는 광화문을 등지고 바라보면 중앙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었고, 양쪽으로 낮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운데 넓은 광장이 펼쳐져 있고, 양쪽으로 높은 건물들이 즐비합니다.



### 세종문화회관 이전의 시민회관

세종문화회관은 1978년 4월에 개관했습니다. 그전에는 그 자리에 서울 시민회관이 있었습니다. 1961년 완공된 시민회관은 1972년 12월 2일 문화방송 개국기념 '10대 가수 청백전'이 열리던 도중 무대 조명장치 누전으로 불이 나 소실됐습니다. 이 사고로 53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후 1974년 세종문화회관을 짓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시민회관에서는 가수들의 공연이 주로 열렸습니다. 미8군 무대에서 주로 활동하던 가수들이 시민회관 개관 후 이곳에서 다양한 공연을 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민문화 향상은 등한시하고, 흥행에만 치중한다는 비판도 일었습니다.

개관 1년 후인 1962년 한 신문에 시민회관 관계자가 쓴 칼럼이 눈에 띕니다. 이 칼럼에는 “시민회관을 염려해주고, 시민문화 향상을 위해 걱정하는 총정에 대해서는 감사해 하지않는다. 그러나 시민회관은 그들이 걱정하듯이 시민회관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고 '쇼'만을 위해 개관해왔던가. 개관 이래 오늘까지 시민회관은 시민을 위한 행사와 시민문화 향상을 위한 공연을 '보이콧'하고 '쇼'만을 위해 제공한 일은 없다. 국가의 큰 행사나 다름없었던 '국제음악제'를 비롯해 '아시아영화제', 미국 '알빙무용단', '스트로스 사중주', '슈트라우스의 비

엔나 음악의 향연', '마리아 앤더스 독창회' 등이 허다히 시민회관에서 베풀어졌다. 심지어 화폐개혁 직후에는 시민들이 돈이 없을 것을 생각하며 여러 날 무료 영화 상영을 하기도 했다"는 해명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진 1>은 1964년 시민회관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광화문 앞에서 바라보면 높은 건물들 사이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이 잘 눈에 띄지 않지만, 주변에 2층 건물들만 오밀조밀 붙어 있던 당시에는 시민회관이 웅장하게 느껴집니다. 당시 학생들이 '굴욕적인 한일회담'에 반대하며 벌인 6·3항쟁 직후라 계엄군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 혁명의 목소리와 함께 잠든 반공회관

KT 광화문 사옥 자리에는 반공회관이 있었습니다. 반공회관은 1958년 2월 서울 종로구 세종로 여자경찰서 건물을 개수해 개관했습니다. 건물 앞에 맥아더 장군 동상 모형이 전시된 이곳에서는 공산주의에 대한 연구와 반공 출판물 등이 간행됐습니다. 또 회관 내 전시실에는 각종 반공 사진과 군에서 제공한 전리품 등이 전시됐습니다. 1960년 4·19혁명 당시 경무대(현 청와대) 앞 경찰의 발포로 흥분한 시위대는 자유당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한 반공청년단의 본거지인 반공회관에 불을 질렀습니다. 건물은 모두 불에 탔지만 맥아더 장군 동상은 전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맥아더 장군 목에 '공산 침략의 격퇴자'라는 작은 현수막과 함께 화환도 걸렸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 상황을 전달받고, 4·19 혁명이 반미 데모가 아니었음을 판단했다고 합니다.

맥아더 장군 동상은 인천상륙작전 7주년에 맞춰 1957년 9월 인천 만국공원(현 자유공원)에 처음 세워졌습니다. 당시 이 동상 제막을 위해 1,000여 평의 광장이 만들어졌고, 인천역부터 광장까지 3km 구간의 도로가 포장됐습니다. 1958년에는 경복궁 안에도 같은 모양의 맥아더 장군 동상이 세워졌고, 이어 반공회관 앞에도 비슷한 모양의 동상이 설치됐습니다.

<사진 2>는 불타기 전 반공회관의 모습입니다. 건물 외벽에 내건 현수막에 쓰인 '반공없는 통일없고, 통일없는 평화없다'라는 표어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사진 김천길 전 AP통신 기자. 1950년부터 38년 동안 서울지국 사진기자로 일하며 격동기 한국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기록했다.

글 김구철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대중문화팀장으로 영화를 담당하고 있다.



<사진 2> 반공회관.

음악평론가 송헌민의 석관동 캠퍼스의 추억

## 정치 공작의 중심에 들어선 예술학교

과거 중앙정보부가 사용했던 건물에 들어선 한국예술종합학교.  
그곳에서 대학 시절을 보내며 청춘의 꿈을 키웠던 필자는 누추한  
골목과 소박한 술집이 존재했던 그 시절의 석관동을 떠올린다.  
이제는 의릉에 묻혀 기억 속에만 남아 있는 캠퍼스의 흥미로운  
뒷이야기를 오랜만에 꺼내들었다.

1998년 겨울,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신이문역에 내린 나는 택시에  
올라탔다.

“아저씨. 옛 중앙정보부 자리로 가주세요.”

“아니! 학생이 거긴 왜?”

“예술학교가 거기에 있다는데요.”

내가 말한 곳은 한국예술종합학교였다. 학교는 조선의 경종(1688~  
1724)과 그의 계비(임금이 다시 장가를 가서 맞은 아내) 선의왕후 어  
씨(1705~1730)가 묻혀 있다는 의릉 바로 옆에 있었다. 택시기사는  
가는 동안 놀란 표정으로 두리번거리며 “예전엔 여기 무서운 곳이었  
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초대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은 중앙정보부 후보지를 놓고 고심 끝에



석관동에 위치한 의릉을 낙점했다고 한다. 5·16 쿠데타 직후 구황실 재산사무총국으로부터 의릉 능력 전체를 접수했으며, 1962년 1월부터 무상으로 임대해 사용했다. 왕릉 중에서 중앙정보부 청사 자리를 고르라고 조언한 이가 박정희라는 설도 있으나, 사실 여부는 알 수 없다. 둘 중 누구 아이디어였든 간에, 수십 년 동안 나라를 쥐락펴락 할 정치 공작의 중심지로 왕릉을 선택한 것은 '비밀을 무덤까지 가지 고 간다'는 정보장교 출신들다운 절묘한 발상이었다.

### 캠퍼스에 얽힌 무성한 소문들

어느덧 이 학교 학생이 된 나는 학교를, 아니 과거 중앙정보부 건물을 드나들었다. 입학과 함께 연일 이어지는 술자리에선 학교 터에 관한 소문이 늘 안쫓거리었다. 신입생들이 "건물은 작는데 강의실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 "한 번 길을 잃으면 계속 헤매게 된다"고 말하면 선배는 "중앙정보부 건물이었기 때문에 옆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게끔 설계되었다"고 했다. 실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강의실로 가는 지도를 나눠주기도 했다.

별의별 이야기가 다 들었다. 영상원의 편집실은 지하에 위치했는데, 지하는 원래 십 몇 층으로 되어 있었으며 4층도 안 되는 지상 건물은 이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 이 건물에서 죽은 원혼들이 간혹 밤마다 찾아온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따뜻한 봄이 와도 건물 내부는 추웠는데, 음기가 많이 서려 있기 때문이라는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국악을 주종목으로 가르치는 전통예술원에는 연희과가 있었다. 농악, 풍물, 굿을 전공으로 하는 과였다. 전통예술원을 원래 음악원과 무용원이 있는 서초동 캠퍼스에 설립하려고 했는데, 영혼들을 달래고, 잡귀를 누르고자 석관동 캠퍼스에 설치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학교 옆의 의릉도 이런 소문에 일조를 하곤 했다. 학교 정문으로 가기 위해선 의릉을 둘러싼 철망 옆으로 난 길을 걸어야 했다. 그 철망 너머로 보이는 의릉은 늘 단아한 잔디로 덮여 있었고, 인근 유치원생들의 소풍 장소로 즐겨 사용됐다.

어느 날 연희과에서 만신, 즉 큰무당을 초빙하여 특강을 하기로 했다. 학교를 찾은 만신이 자신을 안내하던 학생에게 "여기 귀신들은 좀 독특하게 생겼네. 학생이 근처에 뭐가 있나?"라는 질문을 던졌고,

학생이 "의릉이 있는…데…요"라고 답하자 "아! 그래서 귀신들이 좀 독특하구나"라고 했다. 이야기를 듣던 우리는 술잔을 손에 든 채 부들부들 떨었다.

###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공간

학교 인근은 정말 한적했다. 낮고 낮은 지붕의 주택들이 뽀뽀이 형성되어 골목을 만들었고, 그 사이로 학생들이 지나다녔다. '서울 같지 않은 서울'이었다. 학생들의 라이프스타일 또한 어느새 이러한 석관동의 풍경과 시간에 맞춰지곤 했다. 낮에는 강의실에서 전 세계 예술의 흐름과 트렌드에 대해 배우고 논했으며, 저녁에는 석관동 골목마다 들어선 누추하고 작은 술집에서 술잔을 기울였다.

중앙정보부 시절, 외부로부터의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심은 높다란 나무가 있는 정문 근처는 주민들을 위한 공원이 되었고, 야간작업과 실기에 지친 학생들의 옷차림도 주민들의 운동복 차림을 닮아가기 일쑤였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오래된 가정집을 개조하여 조출한 한정식을 선보이는 음식점도 있었는데, 한쪽 방에는 중앙정보부에 시찰 차 들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긴 작은 서에도 걸려 있었다. 그곳은 학생식당을 벗어나 '외식'을 할 때 가는 곳이었다. 가격은 불과 몇 천 원 차이였지만.

중앙정보부는 1995년 국가정보원이 내곡동 신청사로 이전하기까지 30여 년 동안 의릉 경역을 유린하고 훼손했다고 한다. 2006년 바로 옆에 번듯한 교사가 들어서자 학교는 그곳으로 이전했고, 의릉을 관리하던 문화재청은 중앙정보부 건물을 헐고 그 터를 의릉 부지로 복원시켰다. 다만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중앙정보부 강당은 2004년 등록문화재 제92호로 지정되어 그 주위에 남아 있다. 한 때 청춘을 보낸 캠퍼스는 기억과 소문으로만 존재하고, 그 터는 의릉에 묻혀버렸다.

음기가 센 곳에서 예술이 꽃핀다고 했던가. 악명 높은 감옥이 있던 터에 들어선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극장처럼, 중앙정보부 건물에서 동문수학했던 이들이 모이면 간혹 "우리도 한때 음기 먹으며 예술 했던 학번 아닌가"라며 서로들 웃곤 한다.

글 송현민. 음악 듣고 글 쓰며 부지런히 객석과 책상을 오가는 음악평론가. 급변하는 음악 생태계에 관한 충실한 '기록'이 곧 미래를 '기획'하는 자료가 된다는 믿음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림 신나래

앙꼬의 <나쁜 친구>와 세계 각국의 자전적 만화들

정말로 나쁜 친구가  
누구였는지  
말해주게  
싶어

글과 그림은 자기표현의 유용한 수단이다. 그중에서도 만화는 마음 속 이야기를 털어놓기에 가장 적합한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자칫 자족적이고 우울한 자기 고백에 그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한 이야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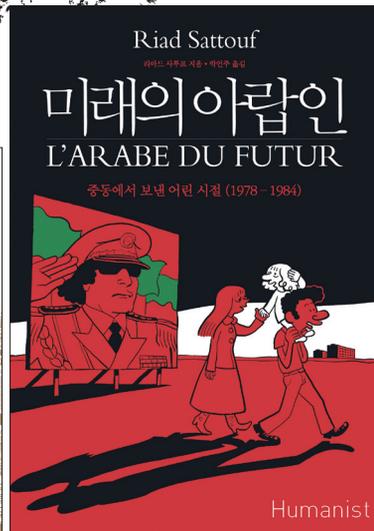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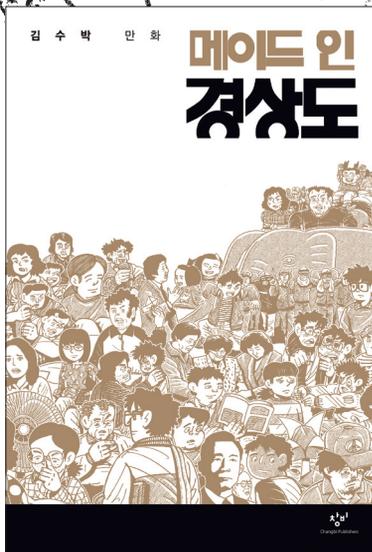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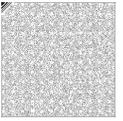
앙꼬의 <나쁜 친구> 본문 중에서.

세상에는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가 있다. 시간이 지나 되돌아보면 분명해지지만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특히나 이런 경우엔 큰 후회가 된다. 그 나쁜 친구가 바로 나왔을 때다. 이런 이야기를 어디에서 누구에게 할까? 앙꼬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쁜 친구>라는 만화로 그렸다. 출판 시장에서의 반응이 뜨겁지는 않았다. 그저 '또 좋은 만화책을 한 권 냈구나' 하는 정도였다. 그 책은 몇 해 뒤 프랑스에서 출판되었고 앙굴렘 국제 만화 페스티벌은 앙꼬에게 '새로운 발견상'을 안겨주었다. 한국 만화가로서는 앙굴렘에서의 첫 수상이었다. 앙꼬의 솔직한 이야기는 지구 반대쪽의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이었던 듯하다.

왜 유럽인들은 저 먼 아시아에 살고 있는 만화가의 사적인 이야기, 청소년기의 작은 일탈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하나는, 그들은 이런 종류의 만화에 익숙하다는 것이다. 작가의 자전적 경험을 솔직하게 그려낸 만화가 매우 중요한 장르를 형성하며, 서가 한쪽을 빼곡히 채우고 있다. 물론 유럽에서도 초능력과 마법이 난무하는 화려한 상상의 만화가 더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그래픽 노벨의 세계에서는 이에 못지않게 작가주의 만화, 특히 자전적 만화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상상이 아니라 진짜 체험을 만나고 싶은 것이다.

#### 세계 각지의 자전적 만화들과 한국의 사례

마르잔 사트라피의 <페르세폴리스>는 이란에서 태어난 뒤 오스트리아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다시 이란에 돌아갔다가 프랑스에 정



착한 만화가의 삶을 그리고 있다. 개방적이었던 이란 사회가 급속히 반동화되는 과정에서 특히 여성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부조리를 과감히 고발한다. <미래의 아랍인>을 그린 리아드 사투프는 시리아인 아버지와 프랑스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린 시절 카다피 치하의 리비아와 보수적인 친척들로 가득한 시리아를 체험했던 이야기를 꼼꼼히 펼쳐낸다. 사투프는 극악한 테러의 희생양이 된 만화잡지 <샤를리 에브도>의 주요 필진이었기 때문에, 절반은 시리아 사람인 그의 경험이 더욱 궁금해진다. 한국에서 태어나 벨기에에 입양되어 판타지 만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웅 헤넨(한국명 전정식)은 <피부색갈=꿀색>을 통해 자신과 주변 입양아들의 아픈 현실을 고백한다.

미국을 살펴봐도 언더그라운드 혹은 대안 만화의 상당수는 자전적 인 작품들이다. 아트 슈피겔만의 <쥐>는 2차 대전 당시 아우슈비츠에 수용되었던 아버지와 현재의 작가 자신을 오가며 어두운 역사의 그림자가 수십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더프 백더프가 그린 <내 친구 다머>의 주인공은 실존하는 연쇄 살인범이다. 작가가 다머와 함께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직접 본 다머의 모습에 여러 취재를 더해 연쇄 살인범의 성장기를 그리고 있다.

꼭 살인, 전쟁, 테러와 연관된 과격한 경험만을 담는 것은 아니다. 줄리아 워츠는 <방귀 파티> <뉴욕에서 살아남기> 등을 통해 독립 만화를 그리며 살아가는 여성 만화가의 삶을 냉소적으로 고백하고 있다. “나는 얼간이고 한심한 인생이라고.” 이런 정서는 한국 사회의 젊

은 예술가들과도 아주 잘 통한다. 국내에서도 김수박의 <아날로그 맨> <메이드인 경상도> 마영신의 <뭐 없나?> 김성희의 <몸살 년> 등의 자전적 만화가 독립 만화계의 중요한 축을 만들어오고 있다. 유독 만화가들이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을 작품 속에 솔직히 털어놓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럴까? 만화는 창작 작업의 대부분이 1인에 집중돼 있고 저예산 작업이라 남의 눈치를 덜 보아도 되며, 만화체의 그림은 항상 적당한 유머를 가미할 수 있어서 작가의 쓰라린 체험이나 숨 막히는 고통의 모습도 덜 부담스럽게 표현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만화가의 스타일에 따라 자전 만화의 스펙트럼은 넓게 펼쳐진다. 가벼운 그림일기부터 오랜 가족사를 파헤치는 연대기적 작품, 사회적 논란이 되는 현장을 직접 체험한 르포 만화 등도 가능하다.

### 솔직함은 보편적인 공감을 얻는다

물론 이들에 대한 비판적 시선도 없지 않다. 사실 자전적 만화의 상당수는 자족적이고 듣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 우울한 자기 고백에 그치기도 한다. 이들 만화의 내용은 흥미로운 모험담도 있지만, 자신의 실수, 치부, 상처와 연관된 경우가 많다. 비겁한 도둑질, 어린 시절의 성폭행, 연인과의 다툼 같은 것들이다. 그런데 이 사건들은 어떤 시선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달라지기도 한다. 당연하게도 만화가는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합리화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그 사건에 개입되었던 주변인들의 사생활까지 공개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의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그만큼 가치가 있다.

양고의 <나쁜 친구>는 백 퍼센트 자신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자신의 체험에 크게 기대고 있지만, 다른 비행 청소년의 삶을 함께 담기 위해 성실하게 취재했다. 그리고 자신만을 위한 만화가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만화였기에 살을 발라내고 뼈를 깎아내는 과정을 더했음에 분명하다. 자전 만화는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로 가장 보편적인 공감을 얻어낸다. 직업적 만화가가 아니더라도 좋다. 누구나 펜과 종이만 있다면, 한 번쯤 도전해보아도 좋으리라.

글 이명석\_문화비평가 겸 저술가로 활동하고 있다. 여행의 즐거움과 인문학적 호기심을 결합한 <여행자의 로망백서> <지도는 지구보다 크다> <도시수집가> 등의 저서가 있고, KBS 라디오 <신성원의 문화공간>, SBS 라디오 <책하고 놀자>에 고정 출연 중이다. 사진 제공 장비, 휴머니스트



© Getty Images Bank

언어가 없는 음악의 내면 들여다보기

## 기악음악 감상법

형식미로 다져진 음악은 시, 즉 언어의 매개 없이도 청(취)자를 사로잡는다. 성악음악이 가사와 이야기의 힘을 한 축으로 삼는다면, 기악음악은 음악 본연의 질서와 조화로만 빛난다. 기악음악의 역사와 의미를 찬찬히 되짚어보면 가사 하나 없는 음악에도 마음이 움직이는 이유를 알 수 있다.

### 언어로 이루어진 음악의 익숙함

평소 팝과 가요를 즐겨 듣는 한 친구가 “가사가 없는 음악을 들을 때엔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특히 가사는 물론 제목도 없고 따라 부르기도 난감한 오케스트라의 심포니 연주에서 ‘무엇을 듣는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학창 시절 음악시간의 ‘감상 숙제’가 주는 의무감 같은 걸까. 어떤 청취자들은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무언가 느낀 점을 말해야 할 것 같은 부담”을 호소하기도 한다. 오늘날 여러 형태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가 기획되는 배경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대부분의 음악을, 언어로 이뤄진 ‘이야기’를 통해 접한다. 가사와 대본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오페라는 음악 이야기의 단골 메뉴가 된다. 이처럼 ‘음악에 관한 이야기’는 음악을 잘 알지 못해도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칫 ‘음악’ 자체의 존재감이 희미해지기도 한다. 가사가 없는 기악음악의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

실제로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 걸친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서양음악사는 대체로 성악음악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17세기를 전후한 시기까지도 기악음악 작품이나 연주에 관한 기록은 매우 단편적으로만 남아 있어 체계적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당시 귀족들이 소장하고 있던 악보의 호화로운 필사본도 대개는 가사 있는 음악이 주류를 이뤘다. 오랜 세월 기악음악은 궁정이나 귀족 가문에 고용된 낮은 계



급의 연주자들이 관여하는 이른바 '기계적' 영역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 기보법의 발전과 기악음악의 정립

가사 없이도 음악이 완결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필요한 전제는 바로 정교한 기보법이다. 기보는 곧 음악에서 형식 구축의 바탕이 되었고, 이는 별도의 언어나 텍스트 없이 선율과 리듬만으로도 '서론-본론-결론' 또는 '기-승-전-결'과 같은 구조를 갖출 수 있음을 뜻한다. 9세기경 가톨릭 전례에서 사용되던 <그레고리오 성가>가 악보 형태의 기록으로 남겨진 이래, 12세기 말 노트르담 악파의 리듬 기보 연구를 통해 대략 오늘날의 악보와 유사한 모양새가 잡히기 시작했다.

'수(數, number)'의 어원이 된 라틴어 'numerus'에 '리듬'이란 의미가 포함되어 있듯, 중세의 자유학예(artes liberales)를 구성하는 일곱 과목 중에서도 음악은 언어의 범주(문법, 수사, 논리)와 구분되는 수학의 영역(산술, 천문, 기하, 음악)에 속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음악은 완성된 작품이라기보다는 음악을 구성하는 원리의 탐구라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수학으로서의 음악이 언어와 전혀 무관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노트르담 악파가 남긴 리듬 기보 체계의 상당 부분은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354~430)가 집필한 <음악론>을 인용하고 있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설명한 음악 리듬의 규

칙은 대부분 고대 시(詩)를 구성하는 언어의 억양과 운율 연구, 즉 수사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기악음악은 이후 이탈리아의 작곡가 프레스코발디(Girolamo Frescobaldi, 1583~1643)의 연주곡 목록이 작성된 것을 계기로, 비로소 독립된 예술작품으로 인정받게 된다. 하이든-모차르트-베토벤의 계보와 함께 소나타 형식과 오케스트라가 모습을 갖춰가는 과정에서 극대화된 기악음악은, 심포니에 이르러 정점에 자리매김한다. 독일의 초기 낭만주의자들 사이에서는 구체적인 제목이나 이야기가 엮이지 않은 음악을 지칭하는 '절대음악(absolute music)' 개념이 논의됐다. 나아가 독일인 음악학자 한슬리크(E. Hanslick, 1825~1904)로 대표되는 절대음악주의자들은, 음악에서는 모든 외부의 요소를 배제하고 오직 소리와 구조가 만들어내는 조화만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음악 본연의 질서와 조화에 집중

뉴욕 컬럼비아대학 철학과의 리디아 괴어(Lydia Goehr) 교수는 '음악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에세이에서, "기악음악의 의미를 해독하는 데엔 항상 어려움이 따른다"고 썼다. 그래서인지 기악음악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음악에 언어를 더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자 했다. 애초에 절대음악으로 창작된 작품이라도, 후대 사람들에게 의해 작곡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표제가 붙거나 이야기가 덧붙여진 사례도 적지 않다. 똑같은 곡이라도 '심포니 5번', '소나타 작품번호 57'이라고 할 때보다, '운명 심포니', '열정 소나타' 같은 제목을 더할 때 비로소 친근한 작품으로 여기게 되는 정서도 한몫한다. 이러한 점에서 절대음악은 특정한 정서나 장면을 묘사하는 표제음악(programme music)과 대립 구도를 이뤘고, 이는 우열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기악음악이 아무런 의미를 띠지 않는다는 정의가 단순히 문자 그대로의 무의미함을 뜻하는 것만은 아니다. 기악음악의 내면은 '언어 이상의 언어'로 이루어진 무한한 의미들로 채워져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흔한 일상 언어로 나열되는 느낌과 감상에 연연하기보다는, 언어를 넘어선 음악 본연의 질서와 조화에 귀를 기울이려는 시도가 기악음악에는 더 어울리는 접근일 수도 있겠다.

글 장운선. 대학과 대학원에서 음악사를 전공하고 <근대 일본의 서양음악 수용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강의>(교육서가, 2016)를 우리말로 옮겼다. 현재 라디오 PD로 일하고 있다.



### 서촌의 아름답기 사육

초심을 잃고  
소비되는  
노릇꾼크리트 표면

최근 서울의 도시재생 지형은 '복지'보다는 '관광'을 코드로 이루어지고 있다. 어느 곳이든 다 하면 난데없이 새로운 카페와 작은 미술관 등이 입점한다. 작은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이 새로운 투자 대상지를 향해 번져가고 있다. 외국의 도시적 외관과 달리 서울은 지역의 특성에 걸맞은 건물의 높이와 규모를 지녔지만 급속한 현대화로 우후죽순 건물이 생긴 지 오래다.

전 세계적으로 뮤지엄화에 따라 명품건축이 등장하는 현상이 있다면, 우리는 이에 더해 미술관의 입점에 따라 동네 분위기가 파괴되는 현상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서촌과 북촌이다. 이 지역은 경복궁의 동서쪽 담에 면하여 나름 큰 미술관들이 들어서서 독점적인 풍경을 이루고 있다. 건축 허가 범위 내 규모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딱히 반발할 수도 없지만, 최근 그 이면에서 휴먼스케일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구감소 후 특화 아이템을 추구하는 세태가 씩씩하면서도 과연 도피처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 기예의 전통을 지닌 서촌의 변화

뮤지엄화에 따라 조직화되는 예술후원과 그에 따른 글로벌한 홍보에 있어 도시촉매(urban catalyst)가 되는 명품건축이 필요하다면, 과연 그러한 건축의 규모가 서촌과 북촌에 어울리는가. 서촌과 북촌의 도시적 아이덴티티는 현재 어떠한가? 서촌의 DNA는 어디에 있을까? 조선시대부터 서촌은 중인들이 살던 곳으로 화가와 문인 등의 기예를 지닌 이들이 많이 거주했다. 인왕산 바위와 수성동 계곡은 오후부터 서촌에 그림자를 드리우며 예술과 글을 논하기에 충분하였으리라. 또한 기술자와 같은 중인들은 뚝뚝뚝뚝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만



- 1 갤러리 '온그라운드'는 지붕에 새는 빛의 효과를 살려 적산가옥을 건축전시 갤러리로 탈바꿈시켰다.
- 2 아름답기 사옥은 한옥과 노출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다.
- 3 예부터 기예를 지닌 이들이 많이 거주했던 서촌의 전경.

드는 일을 하였다. 예술적인 무드와 장인정신이 서촌을 지배해왔다. 그러나 90년대 경제 활황기에 작은 스케일의 서촌에 합필을 통하여 큰 갤러리들이 지어졌으며 지금도 개발이 진행 중이다. 서촌의 예와 기의 전통을 잇는 것은 본래 서촌의 콘텍스트에 맞는 작은 갤러리들과 창의적 공간이다. 높은 건물이 들어와서 인왕산으로의 조망과 경복궁으로의 조망을 막는 것은 법이 해결할 수 없는 암묵적 합의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 전통과 새로운 형식의 조화를 도모하지 않는 건물

서촌을 한옥의 콘텍스트에 맞추자는 것이 아니다. 한옥이 만들어낸 서촌의 골목길과 휴먼스케일을 유지하며 전통을 새로운 형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논하는 것이다. 갤러리 '온그라운드'는 적산가옥 지붕을 수리하던 중에 발견한, 지붕에 새는 빛의 효과를 살려서 적산가옥을 건축전시 갤러리로 탈바꿈시켰다. 보안여관을 광복 이전 서정주를 비롯한 문인들이 '시인부락'을 만든 역사가 있으며, 현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마음 편치 않은 역사를 지닌 건물도 있다. 현재의 아름답기 사옥은 그 위치를 두고 말이 많았다. 이곳은 조선 왕족의 집터가 있던 곳으로 건축주 홍석현에 의해 국가의 대지와 교환되었다. 공사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되면 공사 중단과 더불어 문화재청의 심의가 진행되는데, 이곳은 문화재청에서 보존할 가치 57%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복궁을 내려다보는 지상 4층 높이의 아름답기 사옥은 왜 하필 서촌의 시작점을 점지했을까?

이 건물의 재료인 노출콘크리트는 양식화되어 장식이 없는 본래 특징을 상실해 외려 장식된 느낌으로 노출되어 있고, 2층에는 한옥이 올려져 마치 아방가르드의 하우스에서 복고문화를 소비하는 듯하다.

현재 가장 인정받는 재료이자 우리의 것인 한옥이 조선시대의 유구인 돌무더기들을 북쪽으로 치우고 서 있다. 안도 다다오의 노출콘크리트부터 시작된 굳어진 미학은 1990년대에는 포스트모더니즘에 반기를 든 명증한 미학이었다면, 최근에는 패션으로 소비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요즘 시대의 노출콘크리트는 표정을 가지지 않음으로써 선입견이 생긴 건축 재료일 수 있다. 그러나 침묵하는 표정의 대상은 더 이상 90년대의 난립하는 근생 시설이 아니며, 오히려 그 자체의 옷깃 여밈과 같아 더러운 길거리에 나올 것 같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다. 사치일 수도 있지만, 취사선택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는 이의 최소한의 마지노선일 수도 있으며, 말할 상대가 없는 이의 침묵일 수도 있다.

누구를 위한 침묵인지, 서로의 대화인지 쉽게 분별이 되지 않는다. 도시에 반감을 가지는지, 도시를 포용하는지, 도시가 반응하길 기다리는지 분명하지 않다. 익숙한 익명적 제스처도 아닌, 실험적이지도 않은 새로 지은 한옥과의 시간 중첩 시물레이션이 드러난다. 서촌이라는 물리적 지형에서 이 집의 역사에 대한 태도는 유구, 신 한옥, 노출콘크리트 매스, 적삼목 면의 물질로 조합돼 있다. 역사보존(preservation)이 방부제 같은 원형 보존 방법에서 건축가의 상상력이 동원되는 방법으로 진화하는 것의 전조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한편 씩씩한 기분이 드는 이유는 조합 그 자체와 그것을 받쳐주는 2층의 조합된 레벨링에서 비롯된다. 현대건축의 콘크리트면, 전통건축의 한옥, 조경공간이 마치 박람회장의 세팅처럼 보인다.

###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뮤지엄화가 필요한 때

뮤지엄화의 건축적 이면은 어찌 보면 맹목적으로 명품건축을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철퇴라 할 수 있다. 뮤지엄화는 뮤지엄이 드러내는 건축적 개념, 그리고 주변 콘텍스트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건축적 해결로 이루어져야 한다. 근대주의의 화이트큐브로부터 건축의 표면과 주변의 영향까지 고려한 변화는 사회의 뮤지엄화 문화를 인정하고 뮤지엄이 주는 파급 효과를 최대한 고려한 것이다. 기존 도시의 콘텍스트를 이미지적인 충격으로 이끌어가기보다는 콘텍스트의 영향 아래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여운이 길게 남는 뮤지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글·사진 제공 송하엽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미국건축사. 저서로 <랜드마크: 도시를 경쟁하다> <파빌리온, 도시에 감정을 채우다> <표면으로 읽는 건축>이 있으며, 서울건축문화제에서 '담박소쇄노들: 여름건축학교' '한강감정: 강건축상상전'을 기획했다.

## 클라이맥스

김지은 작

등장인물: 노배우, 젊은 배우

눈부시게 밝은 조명이 켜지면 노배우가 무대 가운데에 서 있다. 흐뭇한 표정의 노배우는 관객을 향해 천천히 허리를 숙여 인사한다. 곧이어 누군가를 소개하겠다는 듯 잠시 박수를 친 후, 뒤의 무대 장막을 가리킨다. 하지만 장막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 노배우는 당황한 것을 숨기려는 듯 애써 태연한 기색으로 한번 더 무대 뒤를 가리킨다. 여전히 아무도 나오지 않는 무대. 노배우는 관객들의 눈치를 보며 무대 뒤 장막으로 슬금슬금 다가간다.

노배우 (속삭이듯) 뭐하고 있는 거야.

아무도 대답이 없다. 노배우는 잠시 고개를 두리번거리다가 장막을 두드려보려 한다. 그때 장막이 조금 흔들린다.

노배우 거기 있네. 빨리 나오라고!

묵묵부답.

노배우 지금 나와야 되는 거 몰라?

볼러도 대답이 없자, 노배우는 포기하고 다시 무대 중앙으로 온다. 노배우는 혼자서 무슨 행동을 해보려다가 이내 멈추는 것을 몇 번 반복한다. 노배우가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장막 뒤에서 젊은 배우가 등장해 노배우 옆에 선다. 젊은 배우는 노배우와 똑같은 옷차림을 한, 무척이나 닮은 모습이다.

젊은 배우 (노배우를 바라보며) 죄송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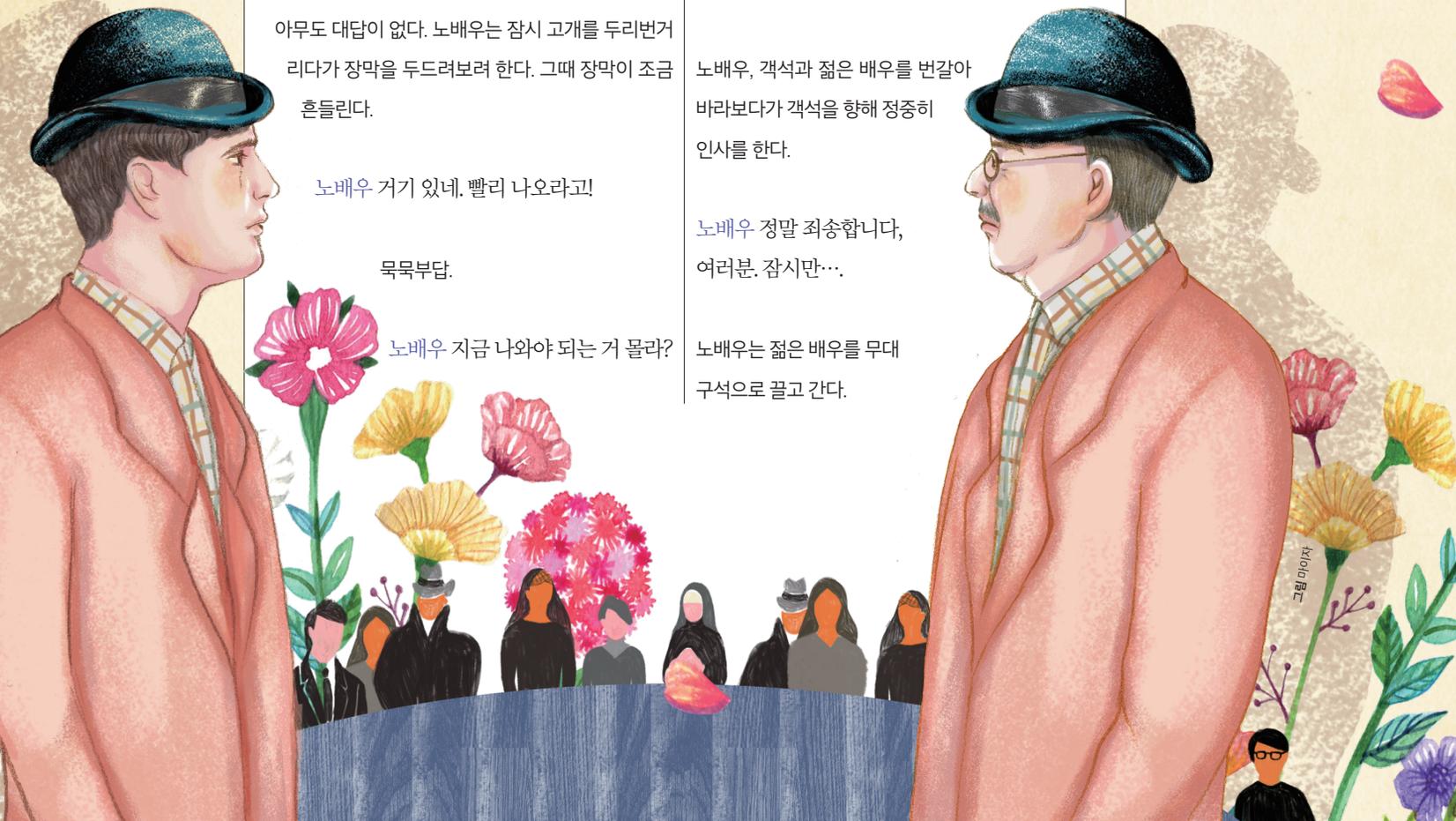
노배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젊은 배우를 바라본다.

젊은 배우 나오시죠.

노배우, 객석과 젊은 배우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객석을 향해 정중히 인사를 한다.

노배우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시만...

노배우는 젊은 배우를 무대 구석으로 끌고 간다.





노배우 (작은 소리로) 왜 그러는 거야? 미쳤어?  
 젊은 배우 (분명한 목소리로) 아뇨,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다했을 뿐입니다.  
 노배우 다음 장면을 이어가야 할 거 아냐. 이제 제일 중요한 장면이잖아.  
 젊은 배우 아뇨, 이 공연은 다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조명이 조금 어두워진다.

젊은 배우 나가셔야 합니다.  
 노배우 (답답하다는 듯) 그게 무슨 헛소리야.  
 젊은 배우 따라오셔야 해요.  
 노배우 나 원 참. 이거 미치겠구먼.

순간 객석 몇몇 자리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린다. 전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아까보다 조금 더 어두워지는 조명. 노배우는 이상하다는 듯 객석의 울음소리가 나는 쪽을 한 번 쳐다보고는 다시 젊은 배우를 바라본다.

노배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을 좀 해줘.  
 젊은 배우 정말 모르시겠어요?  
 (사이)  
 젊은 배우 당신만 퇴장하면 이 연극은 끝나요.

노배우, 멍하다가 점점 무언가를 깨달아가는 표정이다. 노배우가 객석을 향해 고개를 천천히 든다. 그와 동시에 조명은 점점 더 어두워진다. 어느새 암흑 같은 무대, 젊은 배우와 노배우를 비추는 핀조명만이 남는다.

젊은 배우 가지죠.  
 노배우 안 돼. 이다음 장면 하고 가야지.  
 젊은 배우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나가야 해요.  
 노배우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젊은 배우 아뇨, 늦었어요. 나도 그리고 싶었던

건 아닌데.  
 노배우 (울분을 토하며) 이제 여기가 클라이맥스잖아. 이 사람이!  
 (사이)  
 젊은 배우 미안해요. 당신이 원하던 장면은 이게 아니죠?  
 노배우 이제 정말 멋진 장면이 시작되는데. 잘할 수 있단 말이야.

노배우, 퇴장하기 싫다는 듯 무대 이쪽저쪽을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그 모습이 안스럽다는 듯 객석에서 한번 더 울음소리가 들린다. 켜져 있던 핀조명마저 희미해지고, 무대는 두 사람의 움직임이 희미하게만 보일 정도로 어두워져 있다. 노배우, 무대가 어두워진 것을 확인하고는 털썩 주저앉는다.

노배우 할 수 있는데.  
 (사이)  
 노배우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젊은 배우, 노배우에게 천천히 다가와 앉아 있는 노배우를 안아준다.

젊은 배우 그리고 싶었던 건 아니야.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나 이해하죠?

노배우, 젊은 배우를 빤히 바라보다가 이번엔 본인이 먼저 젊은 배우를 안아준다. 젊은 배우를 따라 천천히 일어나는 노배우.

노배우 한 많고 미련 많은 공연이었어...

노배우와 젊은 배우가 천천히 퇴장하며 무대도 서서히 암전. 그와 동시에 객석의 울음소리가 커져간다. 중간중간 곡소리도 들린다.

3월호를 마지막으로 <10분 희곡 릴레이> 연재를 마칩니다.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7 CALENDAR

## 3



### 남산예술센터 2017 시즌 프로그램

남산예술센터는 2017 시즌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이반 검열> 등 검열과 예술계 내 성폭력, 소수자, 전체주의와 같은 한국 사회의 날 선 화두를 다루는 동시대 연극 10편을 선보인다.

장소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관람료 개별 문의  
문의 02-758-2150

- 시민청·시청
- 서울무용센터
- 서울연극센터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 서교예술실험센터
- 문래예술공장
- 서울예술치유허브
- 금천예술공장
- 연희문화창작촌
- 잠실창작스튜디오
- 신당창작아카데미
- 남산예술센터
- 창작지원팀 제휴협력실 문화자원기증센터
- 공공예술센터 축제팀 문화나눔팀
- 예술교육팀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기타 문화행사 추천

## MON

## TUE

## WED

1

- 창작채움공방 상설체험 <BIG 3>(~3.31)
- <쉐어 프로젝트: 실험실>(~4.1)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TA Art Lab 예술가교사 워크숍(~3월초/예정)
- 제15회 서울코랄페스티벌
- 연극 <산울림 고전극장\_아이,아이,아이>(~3.12)
- 2017 정동극장\_전통시리즈\_창작ing <적벽>(~3.26)

6

7

8

- 2017 <서커스 넥스트>(~3.31)
- 금호아트홀 <이주현, 이주미 바이올린 듀오 연주회>
- 세종교양강좌 <예술의 공간, 문화의 시간>(~12.4)

- LG아트센터 <파우스트, 멜니코프 & 케라스>
- 클래식 <라임오페라양상블 정기연주회>
- 클래식 <프리모 깐뎬떼 창단 20주년 기념음악회>

- 멘델스존 서거 170주년 기념 음악회
- 금호아트홀 <이혜경 플루트 독주회>
- 클래식 <파체 더 비기닝>
- 서울문화재단 <프리&프리-두들쟁이 타래 여행유발콘서트 '여행의 시작'>

13

14

15

- 금호아트홀 <김선민 피아노 독주회>
- 충무아트센터 <월요일N콘서트-두 번째 달 '춘향가'>

- <서치 라이트 2017 (Search Wright)>(~3.17)
- 유키 구라모토 화이트데이 콘서트
- SeMA Green <날개. 파티>(~5.14)
- 뮤지컬 <머더 포 투>(~5.28)

- 서울문화재단 창립기념일**
-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 전시 <일러스트 펜화전>(~3.21)
  - 연극 <산울림 고전극장\_헤카베>(~3.26)
  - 국립국악원 <수요출전>(~11.29)

20

21

22

- 두 댄스 씨어터 레퍼토리 워크숍 <동풍이 불어올 때>(~3.25)
- 전시 <제20회 신사임당, 이울곡 서예대전>(~3.29)

- 전시 <TOO MUCH department store>(~4.10)
- <서치 라이트 2017 (Search Wright)>(~3.24)
- 창작가무극 <윤동주, 달을 쏘다>(~4.2)
- 서울모테트합창단 제105회 정기연주회
- 연극 <2017 프라이드>(~7.2)

- 트리오 제이드 제4회 정기연주회
- 연극 <셜록홀즈>
- 마포아트센터 <발레갈라 더 마스터피스>
- 서울시오페라단 <사랑의 묘약> 앙코르(~3.25)
- 국립발레단 <잠자는 숲속의 미녀>(~3.26)
- 전시 <서양화가 박삼영의詩가 있는 그림>(~3.28)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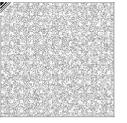
28

29

- 2017년도 상반기 예비부부교육 신청자 모집(~4.7)

- 전시 <얼굴 그려주는 남자>(~4.4)
- 전시 <윤동주 100주년 기념 전시>(~4.18)





## THU

2

- 2017년 With맘 모집공고(~3.15)
- 전시 <너에게 닿기 위한 쓸모없는 말> (~3.20)
- 서울형 예술가교사(TA) 역량 강화 아카데미(~3.23)
- 국립국악원 <목요풍류-국립국악원의 풍류>(~5.25)

9

- 클래식 <티에리 피셔 사이클 I: 트롤스 뮌크와 쇼스타코비치①>
- 전시 <2017 제9회 예술의전당 작가스튜디오展>(~3.22)
- 뮤지컬 <미스터 마우스>(~5.14)
- 뮤지컬 <밀바닥에서>(~5.21)

16

- 국립합창단 제167회 정기연주회
- 전통음악 상설공연 <깊은숨 사랑> (~12.21)

23

- 하피스트 Anneleen Lenaerts 초청 스타콘서트
-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신춘음악회'

30

- 국립무용단 <회오리>(~4.1)
- 전시 <제18회 세종한글서예대전> (~4.5)

## FRI

3

- 2017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사업설명회
- 공연 <누자베스 오마주>
- 서울돈화문국악당 <프리&프리-919-23 'One More Tune'>(~3.4)
- 연극 <보이첵>(~3.12)
- 두산아트센터 <심청>(~3.19)
- 스튜디오76 <음악극 [무박삼일]>(~4.30)

10

- 클래식 <티에리 피셔 사이클 I: 트롤스 뮌크와 쇼스타코비치②>
- 발레 <유니버설발레단 초청공연 -Giselle>(~3.11)
-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월드투어> (~5.21)

17

- 클래식 <sonic illusion 2017>
- 클래식 <바그너의 반지: 관현악 모험①>
- 클래식 제너레이션 Part.1
- 생활예술오케스트라 <광진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3.31)

24

- 국립국악관현악단 <2017 리컴포즈> (~3.25)
- 국립현대무용단 <혼합(immixture)> (~3.26)
- 문화 TALK 콘서트 -도시의 유혹에 빠지다(~3.26)
- 피나 바우쉬 부퍼탈 탄츠테아터 <스위트 맘보>(~3.27)

31

- 생활예술오케스트라 <성미산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 서울시극단 창단 20주년 기념공연 헨리크 입센의 <왕위 주장자들> (~4.23)

## SAT

4

- <우리도 작가\_봄학자>
- 성악 <전설의 테너, 호세 카레라스 마지막 월드 투어>
- 연극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1부)> (~3.18)
- 연극 <유도소년>(~5.14)
- 국립국악원 <토요국악동화>(~5.27)

11

- <우리도 작가\_봄학자>
- <한마음살림장>(~3.12)
- 사무엘 윤의 오페라 콘체르탄테 <사랑의 묘약>
- 클래식 <아르츠 콘서트 런던 VS 뉴욕>
- 성균소극장 <한국 남성춤 3인전> (~4.2)

18

- <우리도 작가\_봄학자>
- <바스락콘서트>(~3.19)
- 클래식 <바그너의 반지: 관현악 모험②>
- 전시 <마츠모토 레이지 은하철도999 展 발표 40주년 기념>(~5.1)

25

- <한마음살림장>(~3.26)
- <토요일은 청이좋아 -청춘에감콘서트>
- 정다슬 <당신이 그것에 대해 알고 싶었던 모든 것>
- 국립창극단 완창판소리 <민은경의 심청가\_강산제>

## SUN

5

-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창단 20주년 기념음악회
- 냉정과 열정 사이 '요시마타료' 내한공연
- 박이슬 가야금 독주회
- 연극 <나쁜 자석>(~5.28)

12

- 발렌티나 리시차 피아노 리사이틀
- 서울아르스플루트앙상블 정기연주회
- 조이오브스트링스 정기연주회

19

- 무용 <2017 김명숙 늘휘무용단-젊은 작가들의 봄.나.들.이>
- 창단 30주년 서울신포니에타 제154회 정기연주회

26

- 필하모니안즈서울 오케스트라 <클래식&락심포니>
- 서울솔리스트 첼로앙상블 제21회 정기연주회

WED\_01

**<쉐어 프로젝트: 실험실>**

센터 공간을 여러 개의 '실험실'로 구획하여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프로젝트의 발표, 시연, 창작 공간으로 제공한다. 다양한 장르의 전시, 공연 쇼케이스, 워크숍, 오픈 스튜디오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일시 2월 18일(토)~4월 1일(토)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및 지하

관람료 무료

문의 02-333-7219

THU\_02

**전시 <너에게 닿기 위한 쓸모없는 말>**

<너에게 닿기 위한 쓸모없는 말>은 일종의 자기고백이며 이 전시를 통해 진심을 담은 쓸모없는 말들을 작품으로 표현하여 보여준다. 작품은 각각의 서사성을 지니고 액자를 가로지르며 완성된다.

일시 3월 2일(목)~20일(월)

장소 서울예술치유허브센터 허브 갤러리.맷음

관람료 무료

문의 02-943-9300

FRI\_03

**서울돈화문국악당 <프리&프리>**

서울돈화문국악당이 아동, 청소년, 일반, 시니어,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국악공연을 마련했다. 919-23, 두들쟁이 타래, Project 봄, 음악그룹 시로 등 우리 음악의 기대주들이 26가지의 개성 있는 공연을 꾸린다. 그 시작은, 아동 관객을 타깃으로 한 919-23의 'One More Tune'이다.

일시 3월 3일(금)~5월 27일(토)

장소 서울돈화문국악당

관람료 전석 5천 원

문의 sejongpac.or.kr / 02-3210-7001~2

SAT\_04

**시민청 <우리도 작가.봄학기>**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순수조형예술 교육프로그램.

일시 3월 4일(토)~11일(토)·18일(토)

오후 2시~5시

장소 시민청 지하 2층 워크숍룸

참가비 무료

문의 seoulcitizenshall.kr / 02-739-5817

**국립국악원 <토요국악동화>**

가면과 인형을 통해 다채로운 방식으로 들려주는 한·중·일 전통 설화. 붓·빛자루·주전자 등 일상의 사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이야기 등 아동 관객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국악 공연이 펼쳐진다.

일시 3월 4일(토)~5월 27일(토)

장소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gugak.go.kr / 02-580-3300

MON\_06

**세종교양강좌 <예술의 공간, 문화의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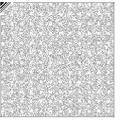
인문, 음악, 무용, 민속, 예술경영 등 문화예술 분야의 경계를 넘나들며 동시대적 관점으로 예술을 느끼고, 문화사적 흐름과 오늘날의 문화 현상을 바라본다. 첫 강의를 3월 6일 윤시향 원광대학교 명예교수가 진행하며 '예술과 문화 속의 파우스트: 연극, 오페라, 미술, 영화와 대중예술'을 주제로 한다.

일시 3월 6일(월)~12월 4일(월)

장소 세종문화회관 세종예술아카데미

수강료 무료

문의 sejongpac.or.kr / 02-399-1604



TUE\_07



## LG아트센터

## &lt;파우스트, 멜니코프 &amp; 케라스&gt;

2012년 내한해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협연을 선보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자벨 파우스트와 피아니스트 알렉산더 멜니코프, 그리고 이전 내한공연에서 바흐부터 쿠르탁에 이르기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줬던 첼리스트 장-기엔 케라스가 트리오로는 처음으로 국내 무대에 선다. 슈만 피아노 트리오 전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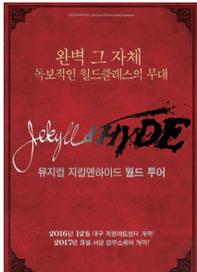
일시 3월 7일(화) 오후 8시

장소 LG아트센터

관람료 R석 8만 원, S석 6만 원, A석 4만 원

문의 lgart.com / 02-2005-0114

FRI\_10



## 뮤지컬 &lt;지킬앤하이드 월드투어&gt;

인간의 이중성을 섬세하게 표현해낸 수작, 뮤지컬 <지킬앤하이드>를 브로드웨이 배우들의 공연으로 만나보자. <위키드> <에비타> <헤어스프레이> 등 브로드웨이 대표 뮤지컬들의 출연진과 프랭크 와일드혼의 주옥같은 넘버들이 함께한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자.

일시 3월 10일(금)~5월 21일(일)

장소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관람료 VIP 15만 원, R석 13만 원, S석 9만 원,

A석 7만 원, B석 5만 원

문의 stagetalk.co.kr / 1588-5212

SAT\_11

## 시민청 &lt;한마음살림장&gt;

시민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을 비롯한 각종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시민참여형 소통장터. 매월 둘째 주와 마지막 주 주말에 열리며 시민이 만든 공예품을 사고팔 수 있다.

일시 3월 11일(토)~12일(일), 25일(토)~26일(일)

오전 11시~오후 6시

장소 시민청 지하 1층 시민플라자

관람료 무료

문의 seoulcitizenshall.kr / 02-739-7331

## 성균소극장 &lt;한국 남성춤 3인전&gt;

다채로운 색깔의 한국 남성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40대의 이철진은 양복 살풀이와 한영숙류 태평무를, 50대의 박덕상은 이매방류 승무와 소고춤을, 60대의 임관규는 원숙한 맨손살풀이와 한량무를 선보인다. 한국무용계를 대표하는 이들의 움직임에 주목하자.

일시 3월 11일(토)~4월 2일(일)

장소 성균소극장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02-747-5035

SUN\_12

## 연극 &lt;산울림 고전극장

## \_아이, 아이, 아이①&gt;

'그리스고전, 연극으로 만나다'를 주제로 한 산울림 고전극장 연극 시리즈의 세 번째 공연. 극단 맨씨어터의 작품이다.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 아이아스는 어느 날 돌연 자살을 선택한다. 뛰어난 전쟁 영웅이자 여신 아테나의 마음을 산 인간, 아이아스는 왜 죽음을 택했나.

일시 3월 1일(수)~3월 12일(일)

장소 산울림 소극장

관람료 전석 2만 5천 원

문의 02-334-5915

MON\_13

## 충무아트센터

## &lt;월요일N콘서트-두번째 달 '춘향가'&gt;

충무아트센터의 대표 공연 브랜드 '월요일N콘서트'와 월드뮤직 밴드 두번째 달이 만났다. 두번째 달은 이번 공연에서 19세기부터 지금까지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춘향가>의 논대목들을 음악극 형태로 연주한다. 한층 풍성해진 전통 판소리의 내러티브를 즐겨보자.

일시 3월 13일(월) 오후 8시

장소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

관람료 전석 3천 원

문의 caci.or.kr / 02-2230-6601



TUE\_14

### 남산예술센터 <서치 라이트 2017(Search Wright)>

남산예술센터가 올해부터 새롭게 시도하는 프로그램. 모든 창작 전 단계, 제작 과정에 있는 미완의 콘텐츠들을 미리 공유하는 '아직. 미정. 미확정의 무대'.

일시 3월 14일(화)~17일(금), 21(화)~24일(금)

장소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관람료 무료

문의 nsartscenter.or.kr / 02-758-2105

### SeMA Green <날개. 파티>

시각디자이너 안상수와 파주타이포그래피학교(PaTI)를 초대해 한 사회와 문화의 기본이 되는 문자의 근본 속성과 디자인 교육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다. 전시 첫 부분인 '날개'에선 시각디자이너 안상수의 작품을 차례로 경험하고 디지털 영상화된 문자도 파일을 관람하며 오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멀티미디어 문자를 선보인다. '파티' 전시는 2012년 예비학교를 거쳐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하기까지 PaTI가 거처온 성과와 기록을 한눈에 조망하도록 꾸려진다.

일시 3월 14일(화)~5월 14일(일)

장소 서울 시립 미술관 서소문본관 1층

관람료 무료

문의 sema.seoul.go.kr / 02-2124-8939

WED\_15

### '예술로 더 새롭게, 문화로 다 즐겁게'

서울문화재단 13주년 창립기념일

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THU\_16

### 전통음악 상설공연 <깊은숨廓사랑>

3월부터 12월까지 신예 국악인들의 다채로운 국악 공연을 즐겨보자. 3월 김보연의 '카랑카랑한 그대'를 시작으로 12월 민요와 수다 떠는 사람들의 '장기자랑'까지, 매달 서춘공간 서로에서 즐길 수 있다.

일시 3월 16일(목)~12월 21일(목)

장소 서춘공간 서로

관람료 일반석 3만 원

문의 02-730-2502



FRI\_17

### 클래식 제너레이션 Part.1

새로운 세대의 클래식을 만난다.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클래식 연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시작은 3월 17일 더블베이스리스트 성민제를 필두로 한 공연, '베이스 인스피레이션'.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테너 박지민, 피아니스트 임동혁 등이 겨울까지 공연을 이어간다. 더욱 강력해진 클래식 세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일시 3월 17일(금), 7월 28일(금), 10월 13일(금), 12월 8일(금)

장소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관람료 R석 7만 원, S석 5만 원

문의 sejongpac.or.kr / 02-399-1000



### 생활예술오케스트라

#### <광진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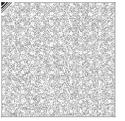
광진청소년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에서 연주와 더불어 저소득 청소년 장학금 지원을 위한 '천원의 행복'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공연은 생활예술오케스트라의 2017 정기공연 시즌축제의 일환으로, '성미산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봄을 깨우는 소리, 두 번째 향연' 등 다양한 공연이 열린다.

일시 3월 17일(금)~31일(금)

장소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sejongpac.or.kr / 02-399-1037



SAT\_18

**시민청 <바스락콘서트>**

시민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시민예술팀과 시민청예술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 콘서트를 개최한다.

일시 3월 18일(토)~19일(일)

오후 3시~4시 30분

장소 시민청 지하 2층 바스락홀

관람료 무료

문의 seoulcitizenshall.kr / 02-739-7331

**전시 <마츠모토 레이지 은하철도999 발표 40주년 기념>**

인간성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담아낸 마츠모토 레이지의 대표작 <은하철도999>. 작가가 직접 그린 작품의 오리지널 삽화(원화), 애니메이션용 셀화, 작품 제작과정을 볼 수 있는 스케치화 드로잉 작품들을 전시한다. <은하철도999> 외에도 <캡틴 하록> <우주전함 아마토> <천년여왕> <에메랄다스> 등 마츠모토 레이지의 대표작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일시 3월 18일(토)~5월 1일(월)

장소 한가람미술관 제5전시실, 제6전시실

관람료 성인 1만 2천 원, 청소년 1만 원,

어린이 8천 원,

만 48개월 이상~미취학 아동 5천 원

문의 sac.or.kr / 02-580-1300

TUE\_21

**전시****<TOO MUCH department store>**

'department store'는 'too much'한 것들의 집합소다. 너무 많은 물건, 정보, 연결, 노동에 둘러싸인 환경에서 무엇을 버리고 다시 취할 수 있을까? <TOO MUCH department>에 진열된 모든 것들은 공유, 판매, 교환의 형태로 다시 전환될 것이다.

일시 3월 21일(화)~4월 10일(월)

장소 서울예술치유허브센터 허브 갤러리\_맺음

관람료 무료

문의 02-943-9300

WED\_22

**서울시오페라단 <사랑의 묘약> 앙코르**

도니체티의 유쾌하고 발랄한 오페라가 돌아온다. 2016년에 이은 앙코르 공연. 크리스티나 페츨리가 연출하고 민정기가 지휘한다. 무대 디자이너 자코모 안드리코와 의상 디자이너 로잔나 몬티가 참여한 무대를 만날 수 있다.

일시 3월 22일(수)~25일(토)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관람료 VIP 12만 원, R석 8만 원, S석 5만 원,

A석 3만 원, B석 2만 원

문의 sejongpac.or.kr / 02-399-1783~6

FRI\_24

**문화 TALK콘서트****-도시의 유혹에 빠지다**

한 도시를 주제로 지역의 건축, 문학, 스포츠, 패션, 음악 등 다양한 문화를 알리고 공유하는 토크콘서트는 2017년에도 계속된다. 이전 공연에서 러시아의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영국 런던 등이 주제 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

일시 3월 24일(금)~26일(일)

장소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관람료 R석 8만 원, S석 6만 원

문의 sejongpac.or.kr / 02-399-1000

**피나 바우쉬 부퍼탈 탄츠테아터****<스위트 맘보>**

피나 바우쉬(1940~2009)의 작품이 3년 만에 한국 관객들을 만난다. 피나 바우쉬는 '탄츠테아터'라고 불리는 일련의 작품으로 무용의 장르적 경계를 허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공연에서 선보일 작품은 그가 타계하기 1년 전에 초연된 <스위트 맘보>로, 7명의 여성 무용수들이 자신의 개성을 담아 사랑, 절망, 열정, 희망의 진솔한 감정을 전한다.

일시 3월 24일(금)~27일(월)

장소 LG아트센터

관람료 VIP석 12만 원, R석 10만 원, S석 8만 원,

A석 6만 원, B석 4만 원

문의 lgart.com / 02-2005-0114



SAT\_25

**<토요일은 청이좋아(청춘예감)>**

세대가 문화로 공감하고, 예술로 소통하는 청춘·공감 뮤직콘서트.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시민청의 대표행사다. 매달 다른 장르의 음악으로 시민들과 소통한다.

일시 3월 25일(토) 오후 2시

장소 시민청 지하 1층 활짝라운지

관람료 무료

문의 seoulcitizenshall.kr / 02-739-0057

**정다슬 <당신이 그것에 대해 알고 싶었던 모든 것>**

2016 서울무용센터 국제 레지던스 오픈콜 선정자 정다슬의 쇼케이스가 열린다.

일시 3월 25일(토) 오후 4시

장소 서울무용센터

관람료 무료

문의 02-304-0235

THU\_30

**국립무용단 <회오리>**

2014년 초연된 <회오리>는 국립무용단 창단 이래 처음으로 해외 안무가와 협업한 작품이자 2015년 11월 프랑스 2015 칸 댄스 페스티벌의 개막작이다. 무대, 조명, 의상, 음악까지 모든 요소들이 하나의 거대한 회오리를 일으킨다. 모노톤의 의상, 단순한 무대와 조명으로 시작해 점점 더 강렬한 회오리의 이미지를 그려낸다.

일시 3월 30일(목)~4월 1일(토)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람료 VIP석 7만 원, R석 5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

문의 ntok.go.kr / 02-2280-4114



FRI\_31

**창작채움공방 상설체험 <Big 3>**

어린이가 '예술로' 꿈꾸고 생각을 키우는 어린이 예술공간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에서 클래식 스테코로 꾸며보는 '상상의 나라 액자 만들기', '활동지를 이용하여 만드는 기타 만들기', '음악 대장 랄랄라'와 검은 도화지로 꾸며보는 '마리트를 인형극장' 등 다양한 예술분야를 체험할 수 있다.

일시 ~3월 31일(금)

오전 10시~오후 5시

\*월,일요일, 공휴일 제외

장소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2층

참가비 무료

문의 02-871-7400

**서울시극단 창단 20주년 기념공연 헨리크 입센의 <왕위 주장자들>**

<왕위 주장자들>은 <인형의 집> <사회의 기둥들> 등의 문제작을 통해 근대극의 1인자로 평가받는 극작가 헨리크 입센의 대표작이다. 1863년 발표된 이 서사 드라마를 서울시극단이 국내 초연한다. 권력을 위해 의심과 갈등을 반복하는 인물들을 통해 권력을 향한 우리 시대의 모습을 돌아본다.

일시 3월 31일(금)~4월 23일(일)

장소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

문의 sejongpac.or.kr / 02-399-1000



# NATIONAL REPERTORY SEASON 2016-2017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17상반기  
공연

### 국립창극단

어린이창극 **미녀와 야수**  
2017.1.11 - 22  
KB하늘극장

**홍보시**  
2017.4.5 - 16  
달오름극장

**변강쇠 점 찍고 응녀**  
2017.4.28 - 5.6  
달오름극장

**코카서스의 백묵원**  
2017.6.3 - 10  
해오름극장

### 국립국악관현악단

**2017 리컴포즈**  
2017.3.24 - 25  
달오름극장

어린이 음악회 **아빠사우루스**  
2017.4.29 - 5.14  
KB하늘극장

**베스트 컬렉션-오케스트라 아시아**  
2017.5.12  
해오름극장

### 국립무용단

**향연**  
2017.2.8 - 11  
해오름극장

**회오리**  
2017.3.30 - 4.1  
해오름극장

**시간의 나이**  
2017.4.27 - 29  
해오름극장

**리진**  
2017.6.28 - 7.1  
해오름극장

### NT LIVE

**제인 에어**  
2017.2.19/24/25  
해오름극장

**프랑켄슈타인**  
2017.2.21/22/23/26  
해오름극장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16-2017



#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웹진 [문화+서울] [www.sfac.or.kr/munhwaplusseoul](http://www.sfac.or.kr/munhwaplusseoul)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지적하고 싶은 점,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 독자엽서

김윤정 님(서울시 성북구)

###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성북문화원에서 만났어요. 표지가 너무 예뻐서 펼쳐봤는데 내용 또한 알차고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정보가 가득합니다. 반갑습니다.

###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다양한 방식의 뛰어난 청년예술가들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2월의 테마 토크도 훌륭하고, 무엇보다 고은 시인님을 만나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시국이 좋지 않은 이때에 고은 시인님을 취재해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국내에서 문화예술인들을 소중히 여겼으면 하는 바람이 기사를 접하면서 더 간절해집니다.

###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주제가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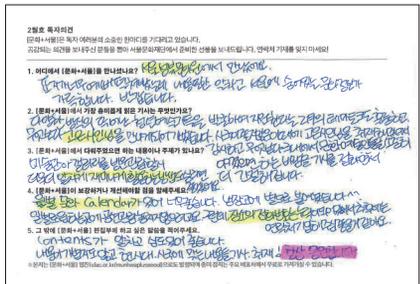
미술관 또는 갤러리 방문 관람 시 더욱 알차고 재미있게 활용하는 방법도 실리면 좋겠어요.

### 4. [문화+서울]이 보강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을 말해주세요.

월별 문화 캘린더가 있어 너무 좋습니다. 냉장고에 별도로 붙여놨습니다.^^ 일별로 원하는 곳의 공연 관람을 놓치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장소의 전화번호는 누락되어 있어서, 추후에는 연락처도 기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5. 그 밖에 [문화+서울]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콘텐츠가 알차고 심도 있어 좋습니다. 내용이 가볍지도 않고 현시대, 시국에 맞는 내용들, 기사, 취재! 항상 응원합니다.



## 4인용 식탁



더 즐겁고  
더 행복한

“배보다 마음이 더 불렀던 하루였습니다. 물론 맛있는 음식과 함께요! 더 맛있게 다배부른 4인용 식탁 신청하세요~”

이재혁, 강산혜, 윤다영

## 편집 후기

9호선 환승 출구를 못 찾아 헤맸다. 새로운 건물과 책상까지 모든 게 낯설다. 새로운 편집부 위원님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홍보팀장

양화대교를 건너왔으니까.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곧, 봄!

안현미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차장

변화가 필요한 시기, [문화+서울]은 새 옷을 입었습니다.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현명하게 신념을 지키는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겨울과 봄 그 사이를 이어주는 물결이 될 수 있을까요? 찬찬히 차오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고민해주는 곁들, 고맙습니다!

나혜린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문화+서울]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지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 주요 배포처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극장용, 금천예술공장, 남산예술센터, 남산창작센터, 동숭아트센터, 대학로연습실, 두산아트센터, 문연몽, 문래예술공장, 백암아트홀,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치유허브, 시민청, 신당창작아카데미, 아코미미술관, 연희문학창작촌, 잠실창작스튜디오, 정동극장, 종량아트갤러리, 한국공연예술센터, 한전아트센터, KT&G 상상마당, LG아트센터 등